국토최남단 마라도 방생법회
제주불교성지순례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

현대불교

山村한과
미리주문하세요!!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쇼핑몰 : www.sanchon.com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월 29일 수요일(주간) 제406호

불자 자원봉사활동 '맑음 속 흐림'

전년대비 인원 11% · 봉사시간 25% 증가

식사지원 등 단순 봉사 전체의 40%
교육 마친 봉사자 연 50명 배출 불과
지역간 심한 불균형 … 서울 · 경기에 편중

조계종 복지재단 발표

불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지역 편중도 심하다. 2001, 2002년에 걸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직영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 35개 복지시설 소속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20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발표한 '자원봉사 활동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자원봉사 활동 참가자는 2001년 대비 994명(11%)이 증가해 연인원 9,4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자원봉사 활동 전체 시간 역시 지난해에 비해 7,510시간(25%) 증가한 총 36,637시간이었다. 불자 봉사자 1명의 경우 1년 평균 3.4일에서 3.8일로 봉사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다.

봉사활동 연인원이 994명으로 증가했지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매해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배출되는 신규자원봉사자 수는 매년 50여 명에 그치고 있었다. 이점에서 볼 때 기존 봉사자들의 활동시간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신규 봉사자들의 활동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활동분야별 통계에서는 식사지원 봉사(음식조리, 밑반찬 배달 등)가 15,288시간으로 전체 봉사활동(37,986 시간)의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 병원 봉사 4,282 시간, 전문봉사(호스피스 봉사 등) 2,593 시간, 간병 봉사 2,227 시간, 목욕봉사 2,227 시간, 의료지원 2,722 시간으로 각각 6%미만에 그쳐, 봉사영역 편중현상을 보였다.

봉사 지역의 편중도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을 제외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복지시설 50개 중 35개가 서울 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도 이곳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역 편중을 심각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봉사 영역 다각화와 전문화, 특히 호스피스나 장애인 학습지원 등 전문 봉사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일반인들을 봉사현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보상체계 마련, 자원봉사 상여보험 가입 등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교계 복지전문가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복지재단 이호걸 복지과장은 "자원봉사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자원봉사를 중도에 그만두거나 형식적 자선 행위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북한산 · 수락산 ·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 · 사회단체 연석회의 관계자 40여명은 21일 수락산 동막골 터널 공사 현장(5공구, 시공사 롯데건설)에서 '관통도로 백지화, 공사 즉각 중단'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 고영배 기자

"북한산 관통도로 · 고속철 천성 · 금정산 구간

노 당선자에 공사중단 제안"

인수위, 북한산 · 금정산 대책위와 간담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북한산 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 금정산 구간 공사중지를 노 당선자에게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산국립공원 · 수락산 · 불암산 관통도로 연석회의는 "22일 간담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전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락산 · 불암산 지역의 공사를 중단하고 취임 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노 당선자에게 제안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성산 ·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 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도 "인수위 경제2분과와 환경분과가 대책위와 합의 전까지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2월 6일로 예정된 공사발주도 금지시키는 것을 노 당선자에게 제안할 것을 22일 간담회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락산 · 불암산 지역에서의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공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율스님(시민종교대책위 집행위원장)도 "인수위가 공사 중지와 발주 금지를 약속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약속이 불이행 될 경우 물리적인 행동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기존 노선을 관철하겠다고 밝혀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가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종하스님(사진 왼쪽)과 법장스님(오른쪽)이 조계사 뒤편에 이웃하여 선거본부를 차렸다.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두 후보의 공명선거 다짐

조계종 31대 총무원장 선거일정이 2월24일로 확정되면서 출마가 유력한 종하, 법장 두 스님을 지지하는 스님들이 24일과 27일 각각 후보 추대식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조계사 뒤편에 나란히 선거본부를 차렸다. 종하스님은 종단협 회의실을, 법장스님은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사무실을 선거본부로 사용한다. 외형상으로 보면 두 후보가 이웃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가 상대 후보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양측은 깨끗한 선거를 공개적으로 다짐하고 있다. 양측은 이미 선거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만나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빠르고 확실한 득표 전략을 찾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돈과 비방이 오가는 혼탁 선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종하스님의 범어문중과 법장스님의 덕숭문중이 종책이나 인물론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문중 이기주의'에 집착할 경우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양자구도가 굳어 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제3후보로 거론되던 법등스님과 정련스님의 한 측근은 기자와 나는 전화통화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3후보론'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특히 정련스님의 경우는 본인의 의중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막판에 선거구도가 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 혼전양상과 함께 공명선거가 말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 변혁과 맞물려 불교의 변화를 바라는 불자들이 많고, 이번 선거는 바로 그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불자들의 시선이 이웃한 두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선거 후 승패가 갈리더라도 좋은 이웃으로 남길 기대한다.

한명우 기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인터넷에서 현대불교신문 판형 그대로 보세요
광고 포함 … 21일부터 buddhanews.com PDF서비스
인터넷 일간 buddhanews.com에서 현대불교신문을 판형 그대로 보실수 있게 됐습니다.
본사가 1월 21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PDF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번의 클릭으로 신문의 각 면을 화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PDF 서비스는 각 지면의 기사와 광고를 함께 볼 수 있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PDF 서비스 이용 방법
buddhanews.com 접속 -> PDF 서비스 배너 클릭 ->원하는 지면 클릭
(주의, 붓다뉴스 회원(무료)가입을 하셔야 이용 가능하며 PDF를 구현하는 Acrobat Reader 한글판을 안내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세계최고의 염주
새해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계미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北韓産 金剛念珠
2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신비의 염주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워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힘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이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해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몰아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향을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는 상품을 믿을수 없으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로나 받아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왕 B/D406호

사 설

공명정대한 총무원장 선거를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서정 스님이 지난 14일 총무원장을 공식 사퇴함에 따라 후임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각 출마자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헌종법에 따라 오는 2월 24일 신임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바야흐로 선거 분위기가 암중에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임 총무원장이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동국대학 재단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전과 달리 별다른 대과없이 자의로 원장직을 사퇴했기에 후임 총무원장 선거는 조계종단 안팎의 축제가 될 법하다. 그러나 축제여야 할 총무원장 선거를 바라보는 불자들의 마음은 기쁘기는커녕 조마조마하기 그지없다. 혹여 잘못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지는 않을까? 청정한 승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권력욕에 오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세속인들도 부도덕하게 지탄하는 금품선거가 되는 것은 아닌가? 등등 노파심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 정직한 표현이다. 과거 수많은 선거가 폭력과 금품으로 얼룩졌거나 비방과 불신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더욱 그렇다.

승가의 근본은 화합과 청정함에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승가의 구성원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인생의 독소들을 여의고, 무욕과 자비와 지혜로 중생들을 제도하는 사표이다. 지혜와 실천을 구비하였기에 언제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이다. 따라서 몸, 입, 마음을 화합시키고 더하여 계율과 보시와 견해를 화합해야 한다고 했다. 총무원장이든 아니면 어떠한 종단의 직책이든 그것은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와는 달라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불국정토건설에 좀더 앞장서겠다는 대의명분이 필요하며, 대내적으로는 중생, 국토, 부처님,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종단 내외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각오를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불교계가 여법한 수행과 중생제도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대답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선거와 연관된 매직, 매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폭력과 비방, 흑색선전이 제 철을 만난 듯이 활개를 쳤다. 불법을 위해 목숨을 던진 역대의 조사들이나 교단을 위해 헌금을 마다하지 않았던 수 없는 무명 재가자들의 공덕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렇기에 불안과 회의가 우리들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문화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종교환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깨달음을 논하기에 앞서 종교 역시 사회의 한 구성요소이며, 사회를 떠나 어디에도 존립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현대사회의 시민들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림하는 불교, 대중과 고통을 함께하지 않는 불교에 더 이상의 갈채를 보내지 않고 있다. 전근대적인 안목과 역사의식을 지니고는 조계종단 내지 한국불교계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졸마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단은 천칠백년 한국불교사의 정통성과 불교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때문에 정보화 사회로 통칭되는 21세기 사회에서 담당해야할 사회적 역할 역시 막대하다. 역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한 종파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한국불교 문화의 향방을 결정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 말할 수 있다. 공명정대하고 당당한 모습 속에서 만인이 찬탄과 경외심을 보내는 선거가 되길 충심으로 기대한다.

현대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환경예산 절대 부족

금년 3천56만원…전체의 0.19% 불과

남북교류 · 복지분야 대비 현저히 낮아

사찰 수행 환경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조계종 환경예산이 전체 대비 0.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도 3천5십여만원으로 자체의 0.19%에 머물러, 최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대사회적 목소리를 높이는 조계종의 입장과 모순 되는 수치다.

2001년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불교환경 관련 의제 수립을 위해 불교환경연대에 의뢰한 '불교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조계종 환경예산은 2680만원으로 전체 예산(일반회계 154억 8559만 6천원)의 0.17%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의 남북교류(1억900만원), 복지(4억4500만원) 등 다른 사업과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10년간 환경분쟁이 발생한 사찰은 70여 곳(조계종 총무원에 접수된 건만 한정)에 이르지만 해당 사찰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 및 보고 시기의 부적절, 교구본사와의 협의 미이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환경분쟁 사안들을 유형화해 종단에서 대정부 정책개선 사안으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종단의 환경기구도 환경위원회와 사회부 두 곳 뿐이어서 환경분쟁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종책연구소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대정부 · 종단 환경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 교육의 경우 본말사주지연수 통해 이뤄지지만 1시간 남짓한 강의와 토론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승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환경 사안이 대형화되고 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종단에서 활발하게 지원 · 협력하는 관계 설정도 요구됐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예산 총액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금 조성이나 교구본사 예산 수립시 환경 관련 예산의 의무적 편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봉은사, "감사에 협조"

조사특위 소위에 밝혀

그동안 감사를 거부해온 봉은사가 조계종 중앙종회 봉은사 조사특위의 감사에 협조키로 했다.

봉은사는 22일 오전 현장감사차 봉은사를 찾은 조사특위 소위원회측과 조사방식에 관계없이 감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소위원회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봉인하는 한편, 추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행자교육원 3월9~31일까지 열려

3급 승가고시 올해부터 대폭 강화

조계종 제24기 행자교육원이 오는 3월9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또 3급 승가고시는 10월1일부터 7일까지 시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21일과 22일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와 고시위원회를 각각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4급 승가고시 일정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모두 291명이 지원한 24기 행자교육원은 '사미 · 사미니율의' 등 9개 교과목과 '일보일배, 삼보일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30일 5급 승가고시가 치러진다.

3급 승가고시는 지난 1, 2회 때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통과할 수 있었던 산림 형태와 달리 입교시험과 고시산림 후 2차 시험 등 두 차례의 과정을 거쳐야만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번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는 스님들은 계율, 복지, 성보관리 등을 교과목으로 한 입교시험에 합격해야만 승가고시산림에 참여할 수 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안심 먹을거리절에서

문화재 보존용 약품 시판

문화재연구소 · 한켐 개발 상품화

그 동안 애를 먹었던 고문서나 불화 보존관리에 한 시름 덜게 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방충 · 방부제 전문 제조업체인 (주)한켐이 종이나 섬유, 목재류 등 유기물 문화재를 해충이나 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용 약품을 국내 최초로 상품화해 '보존(BOZONE)'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내놓았다.

'보존'은 불상의 복장에서 나오는 전적이나 섬유류의 보존상태가 좋은 점에 착안해 복장에 들어있는 약재 중 정향과 팔각회향에서 향 성분을 추출해 낸 것이다. 액체형태의 방향제(450㎖)로 수장고나 서고, 전시실에 간단히 비치해 놓으면 된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m 이내인 공간에 효과가 있으며 지속 기간은 30~40일 정도.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 정용재 연구원은 "궁중유물전시관에서 실험한 결과 해충 침입은 100%, 각종 균도 90% 정도 박멸 효과가 있지만 문화재 재질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체에도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포교사단, 정책기획실 신설

중앙운영위, 사무국을 사무처로 확대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18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확대, 정책기획실을 신설하는 등 포교사들의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정책기획실을 지원하기 위한 포교사단 산하의 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번 사무국 개편은 정책 입안 기능을 강화해 포교사단 중 · 장기 발전안 및 세부 실천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정책위는 외부 포교전문가, 대학교수,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 등 7~8명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이 정책기획실로 분화됨에 따라 기존의 사무국 업무는 특별위원회로 대폭 이관할 예정이다.

임동현 신임 정책기획실장은 "정책기획실 신설과 사무처 승격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중심의 업무에서 활동을 위주로 하는 사무처로 자리를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임시종회 성원 미달 유회

의원 29명 공명선거 촉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던 조계종 제156회 임시중앙종회가 성원미달로 자동 유회됐다.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81명중 과반수인 41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개회가 가능하나, 34명의 종회의원만이 참석했다.

한편, 종회가 유회된 후 29명의 종회의원은 간담회를 갖고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등, 청화, 종광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현 종단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회견문을 통해 "총무원 집행부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엄정중립 실천과 행정을 당부하며, 출마자도 종책적 비전과 종단의 미래 청사진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명우 기자

'빨리어' 등 교육 뒷받침

콜롬보 국제불교회의

'샤모파리 니카야' 창립 250주년 기념 국제불교회의가 16~19일 콜롬보에서 열렸다.

인도, 태국, 중국, 일본 등 50개국 대표들은 학자교류를 통해 우호증진에 협력키로 결의했다. 또한 불교학과 불교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통언어교육과 문헌연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국 대표인 진월스님은 조계종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모델로 제시하며, 대승적 불교사회의 실현방법을 제안했다.

김재경 기자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972년 교계 최초로 설립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하기 위하여 불교지도자와 법사를 양성하는 최고의 불교대학

⊙ 교계최초 전임교수제 채택 ⇒ 일관된 교육성과
⊙ 철저한 학사관리 ⇒ 성숙한 불교지도자 양성구현
⊙ 아낌없는 교육투자 ⇒ 저렴한 교육비 및 장학혜택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과과정 (연간 24과목 240강의)

★ 어렵게 발심한 불교공부 따져 보고합시다. 어디에서? 30년 전통의 대원불교대학에서 !★

◎ 교과과목 및 강의 안내(본 교과과정은 1년제입니다)

담당교수	강의전개 내용(년간 24과목 240강의)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최봉수교수 (동국대 교수)	부처님 초기경전 및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등의 대승경전을 통한 불교교리의 근본이해를 돕는다	초기불교의 이해	초기대승불교	초기불교원전강독	초기대승 불전강독
허경구교수 (동국대교수)	부처님 열반 후 논의 되는 부파불교, 중관, 유식등의 교학적 이해와 불교의 중국전래로 형성되는 천태, 화엄, 선, 정토의 사상을 집중탐구한다.	부파불교의 이해	중기대승불교사상	후기대승불교사상	중국불교 교학사상
김종욱교수 (동국대교수)	불교사상과 타종교 및 서양철학등을 대비시켜 본교가 지닌 현대적 이해를 조명하고, 불교특유의 우주론, 시간론과 인간론을 고찰하며, 불교에 담긴, 인신론적, 심리학적의미를 살펴본다.	불교와기독교	불교와 철학	불교존재론	불교의식론
고영섭교수 (동국대교수)	불교가 각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어떻게 조화되어 거대한 사상문명을 형성해 갔는지 정치, 교육, 사회,제도등 각종 사관의 입장에서 철저히 분석한다.	인 도 불교사	중 국 불교사	한 국 불교사	일본,동남아불교사
마일운 스님 (주요무형문화재 제50호전수교사)	마일운 스님으로부터 불교전통의식을 실수한다.	불교전통의식실수		불교전통의식실수	
김범준법사(대원회)	전통불교의식을 보다 대중적인 한글로 표현하여 불교의 대중화을 추구한다.		우리말 의식실수		우리말 의식실수

◎ 모집과정 및 전형

모집과정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법사과정 정규과정 교양과정	출강 00 명 통신 00 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 대중불교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 (소정양식) 1부 -. 사진 3매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인 터 넷	사이버 과정 00 명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3월 2일까지(본 대학 교무과) , 수시모집
◎ 강의시간 : 주 3일 출석 (주간) 오전 11시 ~ 오후 3시 (화,목.금)
불교전통의식실수(마일운스님) : 금요일 오후 6시 40분
◎ 개강일시 : 2003년 3월 4일 오전 11시 ◎ 입 학 식 : 2003년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법시고시 합격자) , 포교당 종교법인보호, 동국대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문의처 : 본대학교무과 (02)754-1613, 773-9171
FAX (02)756-7258
홈페이지 주소 : WWW. idaewon. or, kr
주 소 :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 大圓佛敎大學


대원불교대학 전경

31대 총무원장 2월24일 선출

2월14~16일 3일동안 후보 등록
각 교구 선거인단 2월9~13일 확정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오는 2월24일 실시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는 21일 중앙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제98차 회의를 열고 31대 총무원장 선거를 2월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키로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21일 회의에서 선거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선거일정을 보면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총무원장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10일 전인 2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며, 후보자들은 14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10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각 교구 선거인단의 선출은 2월9일부터 13일까지다. 선관위는 이같은 선거일정을 1월24일자로 공고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기간(2월14~2월23일) 외에 후보자들이 신상명세나 종책공약의 개요를 공식적으로 광고 또는 홍보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공식적인 선거광고는 후보 등록 후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1회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나 성명서를 발표해서는 안되며,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호법부 조사를 통해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명스님은 선거일정 확정과 함께 발표한 대 종도 담화문에서 "종헌종법에 따라 엄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현행 선거제도가 세속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왜곡된 모습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종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선거 어떻게 치르나

● 선거운동 방법은?

신문이나 방송 광고를 통해 종책이나 인물에 대한 홍보는 할 수 없다. 즉,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공식 선거광고 한 차례 외의 모든 광고는 금지된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광고가 아닌 인터뷰나 토론회 등 언론을 통해 종책이나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다. 선거대책본부도 2월14일 이전에 운용이 가능하다.

●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어떻게

기관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후보를 비난하거나 편드는 광고,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종회의원 81, 선거인단 240명 투표권
신문 · 방송 통한 인물 · 종책 홍보 금지

● 선거인단 구성은?

24개 교구본사에서 각 10명씩 선출되는 교구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 등 모두 321명이 투표권을 갖는다. 각 교구는 교구종회를 통한 선거나 교구본사 주지의 선거인단 지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인단을 뽑게 된다.

● 과열 · 혼탁 막을 방안은?

현재의 종법으로는 사실상 어렵다. 사전선거에 대한 종법 조항이 없어 규제가 용이하지 않다. 또 중앙선관위도 선거행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상식과 관행에 따라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에 머물고 있다.

"파라미타 국제캠프 올 주력사업"

파라미타 청소년협 새회장 원택스님



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도영)는 22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원택스님을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원택스님은 이날 "종단의 유일한 청소년 포교 단체인 파라미타의 발전을 통해 청소년 포교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중점사업은 어떤 것인가

—격년에 한번씩 열리는 파라미타 국제캠프가 올해 가장 큰 사업이다. 참가학생만도 2천명이 넘는다. 그런 만큼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창구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올해는 실무자들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 상담실도 개원하겠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금의 다음 카페와 별도로 독자적인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이며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법구를 보내는 등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그동안 실시해온 문화재 애호활동, 댄스경연대회 등도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조직정비 계획이 있다면

—아직까지 경남, 강원, 광주 지역에 지부가 없다. 우선 이들 3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해 전국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사무국과 지방의 지부, 지회의 연관성과 조직력을 키워 파라미타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열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틱낫한 스님과 달라이라마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어려운 불교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 해석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맞게 대기 설법을 했듯이 청소년 포교도 이와 같다. 교재 하나를 만들더라도 한글세대인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현장법사의 구법계, 삼국유사 등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활용한다면 불교와 청소년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울 때 중책을 맡았는데

—어린이, 청소년, 청년회, 신도회 등의 여러 계층 가운데 청소년층의 포교가 가장 취약한 지금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주위에서 벌써부터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아 부담감도 있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포교원과 파라미타 실무자들, 그리고 일선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파라미타 조직을 정비하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총본산 성역화 등 25개 사업 추진

조계종 올 종무지표 발표

조계종이 올해 종무기조를 '한국불교 중흥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총본산 성역화 불사 및 수행체계 정립 등 25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중앙종무기관 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첫번째 종무지표인 '종단 발전의 정신적 · 물질적 기반 조성' 아래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및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 △종단수행체계 정립 등 6가지다.

두번째 종무지표는 '불교전통문화의 대중화 및 사회적 활동 증진'으로, 북한 불교문화재 보존 지원 및 교류 확대 등 7개 사업이 진행되며, 세번째 종무지표인 '종단 교육 시스템 및 내용 개선'에서는 기본교육기관 재정비 방안 연구 및 추진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네번째 종무지표 '종무행정 시스템, 종단 정보화 기반 구축'에서는 한국불교정보화사업단 설립 운영 등 6개 사업이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탈북자 쉼터 개설 등
진각복지재단 사업계획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탈북자 쉼터'가 상반기 내 설립된다.

진각종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효암)은 최근 밝힌 2003년 신년사업계획을 통해 "북한을 이탈해 국내에 정착을 하려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탈북자 쉼터'를 연다"고 밝혔다.

진각복지재단이 올해 주요 복지사업의 하나로 확정한 '탈북자 쉼터'의 운영 계획에 따르면, 국정원과 통일부의 협조를 얻어 상반기 중 국내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쉼터를 개설, 상시 운영한다. 쉼터에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심리적인 적응을 돕고 직업 알선을 주선하는 등 탈북자들의 자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쉼터 개소 장소는 현재 물색 중이다.

또한 진각복지재단은 인도적 차원의 북한 지원사업, 민족복지 실천 세미나 개최, 북한 탁아소 설치 등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내 진각종 포교시설이 생필품 지급 등 탈북자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 중이다.

강유신 기자

한국비구니사연구 준비워크숍
美 콜럼비아대 2월14~15일

미국 콜롬비아대 중세일본사연구소(소장 미호와시)는 2월 14~15일 한국불교 및 비구니 수행에 관심이 많은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스위스 등의 학자들을 초청, 오는 7~8월 열릴 예정인 (가칭) '한국비구니사 연구발표회'를 위한 준비 워크숍을 연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혜원 스님과 이향순 조지아대 교수, 조은수 미시간대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십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언론으로 질적 양적 발전을 선도해온 현대불교신문이 지역포교에 동참 하실 참신하고 역량있는 지사장을 모십니다.

1)모집 지역
- ■ 강원북부: 춘천, 철원
- ■ 강원남부: 원주, 동해, 삼척, 정선, 영월
- ■ 충 북: 충주, 제천, 음성
- ■ 충 남: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논산, 공주, 부여
- ■ 경북동부: 경주, 포항
- ■ 경남서부: 김해, 마산, 창원
- ■ 울산광역시
- ■ 제주 전역

2)포교사업 내용
지역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3)제출서류 및 기한
-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 제출기한: 2003년 2월 15일(토)
- ■ 제출방법: 우편(15일까지 도착분까지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4)제출처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지원팀
전화: 02)737-8881 팩스:02)737-0697

정법사 중창불사 "불교문화복지회관" 건립

마산 도심에 위치한 통도사 마산중앙포교당 정법사는 우리나라가 일제 정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갖은 탄압과 혹사를 당하고 있을 때 불법으로 우리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을 구제하고자 당시 양산 통도사 주지로 계셨던 구하(九荷) 대선사께서 1912년에 본 사찰을 창건하셨습니다.

초대 주지로 경봉 대선사께서 취임하셨으며, 이후 불교계의 많은 큰스님들께서 거쳐가신 곳이며, 또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곳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도모한 민족 사관의 도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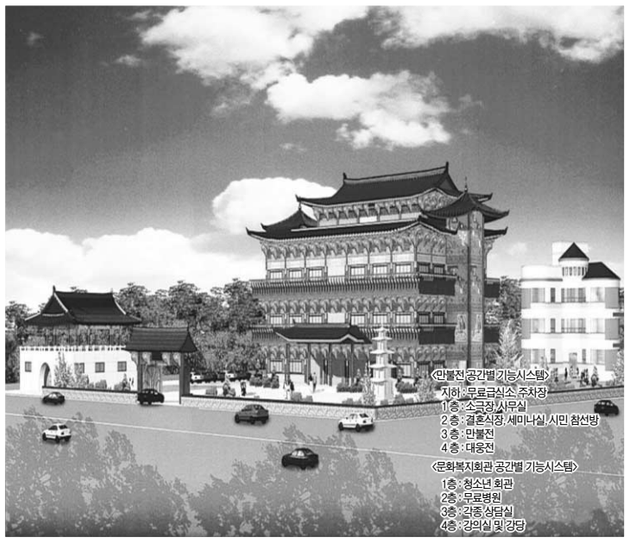
이러한 도량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도시화 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쇠락해지고 불법 홍포와 민생 구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도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을 하나로 모아 도량을 새롭게 중창하여 불법 홍포와 민생구제에 앞장서고 21세기 정보화, 다양화 사회에 걸맞는 시민의 사찰로 거듭나고자 불기 2545년 8월 19일에 정법사 중창불사 "만불전 건립 및 만불봉안" 천일기도 입재를 봉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8월 31일 마산 로얄호텔에서 지역사회 각계 지도자 여러분들을 고문 및 운영위원으로 모시고 "마산시민을 위한 불교문화복지회관 건립 추진위 창립" 행사를 성황리에 가진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법사의 뜻깊은 중창불사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 불자님과 지역 사회의 각계 지도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동참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불기 2547년 1월 일



통도사 마산 중앙포교당 정법사 주지 호암 지태

<불사 추진위 고문 및 운영위원>

■고 문

강삼재,김정부,김호일,황철곤,배종갑,이순항,김조일,이수오,이성근,김상실,허종성,강주성,안홍준

■운영위원

이광석,강재호,고용석,고호곤,권영호,권윤홍,김대환,김미윤,김상헌,김순규,김여환,김영규,김영달,김영현,김제현,김진백,김태문,김형성,김형춘,남태욱,노치웅,노화순,민소현,박권주,박성원,박영근,박종수,박철홍,박현효,배대균,배문수,백상원,변상봉,변재정,서인숙,손종호,손천수,송인식,양영조,윤봉현,윤영호,윤재근,이광문,이상룡,이외율,이인호,이점호,이종진,이처기,이태일,이필이,임영주,장권현,장영준,정규덕,정목일,정찬현,조남규,조민규,조병무,조순제,조택제,진종만,진종삼,최명해,추정자,하연승,한철수,허종태

■일만불조성 동참 : 1人 1佛 50만원(3년분할 납부가능)

■동참 계좌 : 농 협 849-02-321986
경남은행 603-35-0002651
국민은행 651-21-1076-628
우 체 국 612499-01-001633
예금주 : 마산포교당 정법사

■문의처 :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번지
055)246-8393, 245-6544

일주문



문수사 창건 1주년 법문
원명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은 2월 23일 오전 10시 창녕 문수사 창건 1주년 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한다. 055-532-0028



'생명31' 운동 홍보대사로
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대표는 2월부터 생명문화 정착을 위해 종교인들이 벌이는 '생명31' 운동 홍보대사로 나선다.



신년하례회 · 정례이사회
운산 한국종교협의회 이사장은 2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 3층 대상해에서 신년 하례회 및 정례이사회를 열었다.



조계사 청년회서 법문
무비 조계종 교육원장은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불기 2547년 조계사 청년회 새해 발심법회'에서 회원들에게 법문했다.



태국 봉불식 증명법사로
혜성 서울 도선사 회주는 태국 왕실 초청으로 27일 방콕 수탓 데파라람 사원에서 열린 봉불식에 증명법사로 참석했다.



범어사 본말사 주지 회의
성오 범어사 주지는 23일 휴휴정사에서 2003년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 심의와 의결을 위한 본말사 주지 회의를 열었다.



서울구치소 교정협 회장에
성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은 16일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랑의 쌀 · 금일봉 전달
정수 성북구 사암연합회 회장은 23일 성북구청에서 구내 불우이웃들에게 사랑의 쌀 900㎏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법화삼부경 출간 법회
묘각 서울 국청사 주지는 24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법화삼부경〉 개정판 출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불교관련 서적 군법당 기증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설날을 맞아 100여권의 불교 관련 서적을 구입해 군법당에 기증했다.



시집출판기념회 개최
박문석 문화관광부 차관은 28일 국립민속박물관 1층 강당에서 '무우전 · 황금거위를 잡아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대불련 2003년 정기총회
임동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은 2월 19일 오후 7시 동국대 그림관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불청 회장 이 · 취임 법회
정상옥 대한불교청년회장은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 21, 22대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스님 친견 법회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회장은 26일 해인사 법당에서 회원 100여 명과 함께 조계종 종정 스님 친견 법회를 열었다.

부처님 가르침 접목… 인성교육 주력

부산시교육감에 재선된 설동근 회장



"학생, 학부모, 교육 가족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시며 누운 풀잎처럼 낮은 자세로 지원 행정을 펼쳐 부산을 교육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법화정사 신도회장인 설동근(53, 혜송) 부산시 교육감이 20일 재선에 성공했다.

설 교육감은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한 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앞으로 3만 교육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설 교육감은 "앞으로 4년 동안 한 생명의 꿈과 장래, 희망을 좌우하는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이 접목된 인성 교육을 펼쳐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마치면서 반드시 법화경을 독송하고 크고 작은 불교행사 참여를 알뜰히 챙기며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염불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설 교육감.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은 없다"는 설교육감은 불자로서 "종립학교 지원,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와 교사불자회 활성화를 비롯 부산불교신도회의 화합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모바일 존 서비스 시작
위덕대, 20일부터



손제석 위덕대 총장은 20일 SK-Telecom 후원으로 모바일존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일존은 휴대폰 1대로 이동전화와 구내전화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또 교내 어느 곳에서나 휴대폰을 노트북에 연결해 인터넷을 무료 접속할 수 있다.

지역불교 일구는 사람들 ③
김태제 (경기불교문화원장)

큰스님 법문 가까이서 듣게
문화원서 '백고좌 법회' 열 터



"올해 문화원에 백고좌 법회를 열어 경기지역 불자들이 큰스님들의 법문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CMS(금융기관에서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 결제방법)를 통한 재정자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원장의 지역불교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지역불교가 활성화돼야 한국불교 전체가 잘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 · 인도 불교 지원, 석가족에 법당

김 원장은 지난 해 3월 31일 수원 팔달문 인근에 경기불교문화원을 개원했다. 2층 · 140평 규모의 문화원은 대법당, 회의실, 소모임방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원불교연합회 등 20여 재가 신행단체가 문화원 건물에 입주해 있다. 김 원장이 문화원을 개원한 이유는 바쁜 직장생활로 사찰을 찾지 못하는 재가불자를 위해 가까운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다.

김 원장의 불심은 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인도와 티베트까지 미쳤다. 2년 전 티베트 불교 지원금으로 10만 달러를 기증한데 이어 작년에도 10만 달러를 인도불교 지원금으로 쾌척했다. 또 인도 석가족이 운집해 있는 마을에 법당 건립과 불상 봉안을 했고 둥게스와리 수자타 아카데미 인근 마을 관정사업에도 1000만원을 지원했다.

김 원장이 이렇게 대사회 회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행일치(知行一致)'가 불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행자세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행동하지 않는 불자는 진정한 불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원장은 불교가 더욱 더 활성화되기 위해선 자기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말로는 불교와 중생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가 더욱 더 활성화되기 위해선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웃 종교만 하더라도 자신의 시간과 정력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한 회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봉선사 불교교양대학 졸업식

남양주 봉선사(주지 일면)는 21일 청풍루에서 불교교양대학 제25기 졸업식을 가졌다. 주지 일면 스님을 비롯해 연수원장 수월 스님, 총무국장 여산 스님, 재무국장 석봉 스님, 김순경 신도회장과 졸업생 79명 등이 참석한 졸업식에서 일면 스님은 "불교대학에서 배운 것을 몸소 실천에 옮기는 참된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불교신문 창간 43주 기념식

불교신문 창간 43주년 및 주2회 발행 기념 리셉션이 20일 봉은사 문화센터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직대 선용,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불교신문 사장 영담스님은 기념식에서 "그동안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스님들과 독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동계 청소년 자강학교 열어

전북불교대학은 18~20일 전주 정혜사 회관에서 제9회 동계 청소년 자강학교를 열었다. 40여 청소년들이 동참한 이번 행사는 발우공양, 불교와 동양사상 강좌, 예불, 다도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18일 입제식에서 정혜사 주지 지현스님은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법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불자로서 긍지를 갖고 생활하자"고 당부했다.



동작구청 불심회 신년법회

동작구청 불자회인 불심회가 22일 서울 흑석 3동 화성사(주지 현문)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청련사 혜철스님, 법성사 법운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혜철스님은 법문을 통해 "진실한 마음으로 삼보를 따르고 배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신년계획을 세우는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중앙승가대학교 2003학년도 신입생 추가 모집요강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 대학으로써 대한불교 조계종「기본교육기관」입니다

■모집 과정 및 학과

학과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모집인원	13	25	23	4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응시자격 :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고교내신성적	필기(교리)고사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400점)	40%(400점)	20%(200점)	100%(1,000점)

■원서교부 및 접수 : · 원서 교부 : 2003. 1. 27(월) ~ 2. 7(금)
· 원서 접수 : 2003. 2. 4(화) ~ 2. 7(금)
※토 · 일요일 및 16:30분 이후에는 수위실에서 원서교부 합니다.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 1 부
2) 고교졸업(예정) 증명서(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 1 부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200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1 부
4) 승적증명서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 1 부
5)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1 부
6) 사진 (대가사 수한 반명함판사진 3×4㎝) 〈3매 원서부착, 2매 별도〉 ..... 5 매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 2) 전형료 : 60,000원

■전형일정 : · 면접 및 인성검사 — 2003. 2. 12(수) 11:00
· 합격자 발표 — 2003. 2. 14(금) 14:00

■기 타 : · 조계종 승려는 전원 수행관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전화 : 031)980-7713~6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 앙 승 가 대 학 교

한국불교 최초 일대사 불사 1000일 백만인동참 기도

봉 33관세음보살 점안 및 친견대법회 행

불국토 성취, 남북통일, 세계평화 기원

원효종에서는 창종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및 세계 처음으로 33관세음보살(목각)을 조성하여 점안봉불식 및 친견대법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불교 원효종 종정 혜은 법홍 대율사와 전 종도의 발원에 의거 인간 문화재 허길량님의 정각스러운 조각과 깍기질로 혼을 불어 넣었기에 예경의 대상인 33관세음보살을 장엄하고 아름답게 경주 연화사에 모셨습니다. 이는 한국불교사상 초유의 일대사이며 불교중흥을 알리는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계 대덕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동참으로 33관세음보살 점안 및 친견법회가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아 래

· 증 명 법 사 : 종정 법홍 예하
· 입 재 일 시 : 2003년 2월 1일(토) 음력 1월 1일 오전 10시
· 회 향 : 2006년 9월 27일(수) 음력 8월 6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주 연화사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116-5)
· 기도동참금 : 1일(1인 1,000원) 10일(1인 10,000원)
100일(1인 100,000원) 1000일(1인 1,000,000원)
· 교 통 편 : 경주터미널에서 금화교통 502번 도초새마을 종점하차
· 문의 및 접수처 :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116-5 연화사 종무소
054)745-6945, 011-822-6946(성월스님)

대한불교원효종 경주 연 화 사
기도법사 종도 일동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도시·농촌불자 잇는 다리"

불교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 열려

봉은사 등 7개단체 304 조합원 참여

사업계획 통과, 조현숙 이사장 등 선출

농촌 불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도심 사찰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불교도농공동체인 '불교생협운동본부 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불교생협은 18일 서울 봉은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봉은사, 능인선원, 수원포교당 생협 등 총 7개 단체 304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유억근 발기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불교계에서 생협 운동은 바른 먹을거리를 구하는 일보다는 불교의 연기관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생명운동이고 화합이 강조되는 공동체 운동이어야 한다"며 "나눔을 실현하는 회향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 시대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생협은 총회에서 정관 및 규약 승인과 △도심사찰이나 포교당을 중심으로 2003년에 2~3개 매장 개장을 통한 매출 확대 △월 1회 정기교육 실시 및 연 1회 생협학교 개최 △생산지 방문 등을 통한 조합원 교육 △생협신문 발간 및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 △사찰별 생협준비위원회의 개별 법인화 등을 통한 회원확대 △주말농장 및 체험장 운영 등의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또 이사장에 조현숙 전 봉은사 생협부장, 유억근 발기인을 비롯한 9명의 이사, 이상호 조합원 등 2명의 감사를 임원진으로 선출했다.

조현숙 이사장은 "생협본부가 농촌과 도시의 불자들이 연계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생명·평화·환경위한 범종교인 기도회 개최

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규모 생명파괴 사업의 조속한 중단을 위한 '생명·평화·환경을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가 개최됐다.

22일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열린 기도회는 수안스님,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개 종교 500여명의 성직자들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여성들, 가정폭력 가장 고민

"배우자가 가해" 63%로 최다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가정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 부설 행복한가정상담소가 발표한 '2002년 상담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소는 지난 한 해 312건의 상담을 했으며 이 중 55%에 달하는 173명이 가정폭력피해를 상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내용은 신체적 폭력 31%(55명), 정서적 학대 29%(51명), 경제적 학대 24%(4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63%(120명)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의 배우자, 직계 존속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피해 상담자를 제외한 139명은 가정생활(41명)과 자녀문제(35명)를 주로 상담했다. 상담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유형은 선도 상담(198건)과 고소고발(4건) 등이었다.

김묘주 회장은 "가정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통도사영축산 환경위원회는 20일 양산시청앞에서 초산유원지개발 백지화를 요구하는 수행환경 훼손 규탄법회를 개최했다.

"초산유원지 개발 백지화 투쟁"

영축산 환경위원회 무차별 자연훼손 규탄대회

양산시장 면담 양측 입장 차이만 확인

20일 초산유원지 개발 백지화를 요구하며 양산시청 앞에서 규탄법회를 마치고 가진 통도사와 양산시장의 면담은 양측의 입장차를 분명히 확인하며 끝났다.

이날 면담에서 통도사측은 시장에게 전달한 요구문에서 "불보종찰 통도사 주변의 수행, 문화환경을 훼손하는 초산유원지 공사와 우회도로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산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등 부분적 수정만이 가능할 뿐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얘기만을 반복했다.

면담에 앞서 가진 수행환경 훼손 규탄법회는 5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영축산 자연환경 파괴 사례설명 및 경과보고, 성명서 낭독, 결의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산옹스님은 결의문을 통해 "양산시의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수행환경 파괴를 자행하는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환경단체뿐 아니라 범불교적 연대로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지리산댐 백지화"성명

함양·산청·남원 주민들

경남 함양과 산청, 전북 남원 지역 주민들이 '지리산댐(마천댐) 재추진 백지화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3개 지역 주민들은 20일 결의문에서 "최근 지리산댐을 건설한다는 함양군수의 발언으로 지리산 안에서 하나였던 지역이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일고 있다"며 "함양군수는 생태자원의 보고이자 천해의 관광자원인 지리산을 훼손하고 지역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미륵산케이블카 설치

경남 11개 단체, 반대지지

거제시민단체연대회의와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경남시민·사회 11개 단체가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립 반대에 연대의 뜻을 표명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통영시는 적자사업이 될지라도 기필코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 동원한 온갖 편법과 관치 투표 실시에 깊이 반성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문화 정착을 퇴색시키고 왜곡하는 구시대적 악습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불교유학 어디로 갈까?

석림紙 소개

미·印·중·독에 61개 대학·연구소

독일 인도학·티베트불교 연구 적합

불교학을 공부하기 위해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야 할까?

미국 인도 중국 독일 4개국에서 불교학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대학과 연구소는 61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중국은 한문문화권의 본고장, 인도는 빨리어 배우기에 안성맞춤, 미국은 세계불교학자들과 교류에 유리, 독일은 인도학 및 티베트불교 연구가 깊다.

이 같은 사실은 동국대 석림회(회장 보경)가 최근 발행한 <석림> 제16집 기획논단 '불교유학의 길라잡이'에서 일미스님(하버드대 석사과정), 안성두(동국대 강사) 조준호(동국대 강사) 김진무(동국대 강사) 씨가 밝혔다.

일미스님은 미국의 경우 "하버드, 위스콘신, 인디아나, 시카고, 하와이 대학에서 불교학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고 말했다.

안성두 동국대 강사는 "독일의 경우 본 대학 티베트불교, 프라이부르크대학 초기 팔리경율, 괴팅겐대학 아비달마불교, 함부르크대학 대승불교, 빈 대학 불교인식논리학 등의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준호 동국대 강사는 "인도에서 불교 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델리대 마가다대 잠무대이며, 빨리어와 불교학과는 켈커타대 바라나시힌두대, 빨리어과는 마가다대 산스끄리뜨대 뿌나대, 불교철학과는 삼뿌르난드 산스끄리뜨대 등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무 동국대 강사는 "중국 정부가 집중관리하는 불교학자는 임계유(북경도서관) 루우열(북경대) 황심천 양증문 두계문(이상 중국사회과학원) 방립천(인민대) 뢰영해(남경대) 반계명 (소주대학)등 52명"이라고 소개했다.

김원우기자

목탁소리 '금강경결제' 아쉬움

김재경 (취재2부 차장)

1월 18일 저녁 실상사 화엄학림 강당에서 열린 '금강경 결제' 제8회 논강은 '간경결제(看經結制)'라는 새로운 틀과 '논강(論講)'이라는 절집 고유의 토론방식으로 입추의 여지 없이 참석자들로 열기를 뿜고 있었다. 그러나 '금강경 결제'는 낯선 광경만큼이나 적지 않은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우선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소재로 논강을 벌이면서도 '성(性)이란 무엇인가'란 소주제 아래 불성, 여래장, 청정자성, 주인공, 본래면목 등 대승불교의 핵심 개념들을 힌두교의 아트만으로 규정하는 위험스런 토론장에서 대강백이나 선사들의 논파(論破)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아트만과 같은 잠나, 주인공, 본래면목을 상정한 수행은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상(相)들을 철저히 타파한 '무전제의 수행'이 참된 수행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청정자성' 등의 근본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거나 배우는 수행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눈먼 까닭이지, 법이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논강을 지켜본 일부 스님들은 "결제기간에 '망상놀음' 하지 말고 해제 후에 '금강경 대토론회'를 열면 되지 않느냐"고 꼬집기도 한다. 논강이 조계종의 종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려는데도 바로잡아줄 증명명사가 부재한데 과연 '여법한' 결제로 볼 수 있느냐는 주장도 들린다. 차라리 금강경을 전공한 대강백이나 눈뜬 선사가 금강경을 설하고 의문점에 대해 논강하는 형식이었으면, 이런 문제제기는 없었을 것이다.

논강의 막바지에서라도 실상사 조실 청화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들을 모셔서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안거수행에 걸맞는 논강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2003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과 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 별 전 형 30%
개 호 복 지 사 과	2년	■ 주간 30명 ■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 교 학 과 (승 려 학 과)	2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 통신 80명		
	4년	■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4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포 교 사 과 정	2년	■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남경효장대학(사방대) 분교 체결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합격
2002. 11. 종립삼화불교대로 확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 개호복지사 2급 자격 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한의대) 본과 입학 가능
· 중국 남경효장대학(사범대학) 3년 편입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2월 20일까지
·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우편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8 FAX.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 376-1321,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학원 종립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 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영문) ◇ 대학 졸업자 (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4년대학 학사과정 졸업자)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2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 025-6798167 · 팩 스 : 0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 전화 : 02-511-2026~7 · 팩 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 업 연 한	모 집 과 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 화 학 원 삼 화 불 교 대

천태유물전시관 건립
총본산 구인사 성역화
천태종학·교학 선양
미아찾기 센터 개설
종무행정 전산화

내실화에 역점

천태종, 올 사업계획 발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21일 '종무의 내실화로 종단의 중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천태종은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종단 발전의 내적 기반 조성 △사회복지 및 대사회 활동 강화 △종무행정의 체계화 및 정보화 등을 3대 종무지표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천태유물전시관 건립과 총본산 구인사 성역화사업을 비롯해 천태종학 · 교학 선양사업 등 종단의 내적 기반을 닦아 내실을 다진다는 것이다. 특히 춘천 삼운사, 성남 화성사 등 5개 말사를 올해 낙성하고 청주 명장사, 인천 황룡사 등 진행중인 불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종단 승려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등 승려기본생활 보장 제도 확립을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

사회복지활동 및 대사회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니르바나 봉사자 교육, 미아찾기 사업, 해외 입양아 찾기 사업 등을 펼쳐 나간다. 이를 위해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펼치는 니르바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기본 · 심화교육 강화, 사회종합복지관 운영 · 지원 확대, 미아찾기 신고전화(02-579-5518) 개설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안을 마련했다. 미아찾기 사업의 경우 종단 산하 250여 사찰에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천태종보, 월간 금강 등 종단의 모든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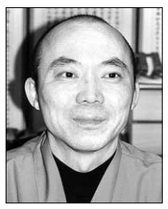
이와 함께 구인사 내 전산 네트워크, 전자신도카드 발급 등 온라인 종무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전산화를 통한 종무행정의 체계화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천태종보의 발행주기 변경, 출판부 신설, 불교정보화협의회 활동 강화 등 종단 홍보와 정보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부장 무원스님은 "천태종의 올 사업계획의 큰 틀은 불교 발전에 있는 만큼 종단 내실화와 복지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문서포교에 보람 느껴요"

'보운법보' 제작·배포 도우스님



서울 중랑구 면목6동에 위치한 포교당 보운정사에 다니는 불자들은 매월 새로운 부처님 말씀을 접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보운정사 주지 도우스님(삼론종 교무부장 · 사진)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사보 '보운법보' 때문이다. 보운법보에는 부처님 말씀과 불교 우화, 불교교리, 경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운법보에 들어갈 원고까지 직접 챙기는 도우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곡해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를 해결할 방편으로 보운법보를 생각하게 됐다"면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신도들과 타종교인들이 보운법보를 보고 찾아올 때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우스님이 문서포교를 시작한 것은 말재간이 없는데다가 심한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해 신도들이 스님의 법문을 잘못 알아들으면서부터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벌써 8년째. 보운정사에 창건하기 이전부터 도우스님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문서포교를 시작했다. 이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삽화와 만평 등을 그려주고 있는 박동열 씨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구리시에 사찰 부지를 마련하고 불사를 준비중인 도우스님은 "보운법보를 만드는 시간은 하루 일과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며 "보운법보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지성정사


◇법등정사


◇대원정사

총지종 통리원 부장급 인사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17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통리원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총무부장에 지성정사(인천 시법사 주교), 교정부장에 법등정사(서울 총지사 주교), 사회부장에 대원정사(부산 덕화사 주교)를 임명했다. 그러나 재무부장은 여전히 공석으로 남은 상태다.

한편 총지종은 16일 록정 종령을 비롯해 종단 소속 스승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록정 종령은 "종단 소임의 적격자로 정해지면 반드시 따르고, 따를 수 없으면 스승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해 10월 법공 통리원장 선출 이후 새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한 채 종단 업무가 공백상태에 빠진 상황에 대한 훈시였다.

종무 행정관리 온라인 네트워크

태고종, 총무원-지방종무원-사찰 연결

태고종이 종무행정 통일과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태고종은 종단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1억여원을 투자해 개발에 나선 종무행정관리 프로그램을 22일 완성, 보급에 들어간다. 개발을 맡은 에스아이렉스(S.I.Lex)는 이미 지난해 12월 개발, 이달 말까지 실제 사용시 문제점을 점검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총무원과 지방종무원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사찰등록, 승려분한 신고 등 총무원 업무를 지방종무원이 직접 처리하고, 총무원은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은 1월말부터 이 시스템을 가동, 3개월간 총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입력작업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제주, 강원, 충북, 경북 등 시스템 가동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5~7개 종무원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각 사찰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 전산화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총무국장 진허스님은 "종무행정관리 프로그램이 가동에 들어갈 경우 종단의 2천여 사암이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종무행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각 지방종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총무원과 사찰의 거리를 좁혀 원활한 종무행정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게시판

알림 ▲수원시 매탄로 2가 삼불주선원(주지 정광)은 시민선방을 개원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8~10시, 오후 2~4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031)252-2842

▲조계종자원봉사단 부산 · 경남지부는 28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에서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시명스님 독창회를 연다. (051)506-0146

▲민족문화추진회 이상현 전문위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성신여대 수정관 409호에서 '사기 강독' 강좌를 열고 있다. (019)330-8032

▲부산 우곡선원은 2월 4일~3월 4일 매주 화요일 해운대선원에서 초심자를 위한 참선교실을 연다. (051)740-6288~9

구인 ▲천태종립 서울 금강불교대학은 도서관에서 근무할 사서를 모집한다. 준사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02)576-6401~2

▲보령시 보령원은 총무직 사무국장 1명을 31일까지 구하고 있다. 대상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041)931-2335

▲노인전문요양원 감로당은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등을 찾고 있다. 자격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 충원시까지. (031)671-3677

모집 ▲충북 청원군 정토마을에서는 호스피스 봉사활동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후원계좌 :401142-52-182117(예금주 아미타 호스피스). (043)298-2258

▲서울 구로종합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3~6시에 활동할 밑반찬 배달 및 말벗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02)852-0525

▲서울 정토노인주간보호센터는 기체조, 미술교육, 독서교실 등에 대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52-0525

▲부산 용호복지관은 용호평생학습마을의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051)628-6737

인사 ▲태고종 봉원사=부주지 환우스님, 총무 일운스님, 교무 현성스님, 사회 운봉스님, 재무 고담스님, 서무 성진스님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태고종

극락사 조사위 구성

태고종은 고양 극락사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前 극락사 주지 상균스님을 해임하고 보현스님을 임명, 원만한 처리토록 조치했으나, 이후에도 양측이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규로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에 총무원 규정부장 경담스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에 총무원과 경기북부교구 종무원, 現 극락사 주지 보현스님, 前 주지 상균스님 측이 각각 2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천태종

승려 수행안거 입제

천태종은 18일 단양 총본산 구인사에서 종단 소속 스님들의 수행안거에 들어갔다. 이번 안거는 55일간 진행되며, 3월 13일 해제한다.

진각종

홈페이지 새단장

진각종 홈페이지(www.jingak.or.kr)를 새로 단장, 21일 재개통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진각종과 밀교 소개, 심인당, 부속기관 안내, 불교 자료 등이 담겼다. 커뮤니티와 진각인터넷방송 등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마당도 마련됐다.

제주도 문화탐방



비로자나청소년협회(회장 혜명)는 13~15일 제주도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다. 100여 청소년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산굼부리, 성산일출봉, 여미지식물원 등 제주지역 문화 탐방과 서바이벌게임, 국궁, 산악자전거 훈련 등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관음종

43억여원 예산 확정

관음종은 22일 인천 흥륜사에서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43억7천여만원의 2003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종회에서 관음종은, 현재 불사중인 종단 산하 사찰의 불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해 종단의 위상을 세워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각종 복지사업과 포교사업, 교학체계 확립, 종도교육사업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총본산으로 중건중인 서울 창신동 묘각사의 낙성법회는 4월 초순경 열기로 했다.

업무표장 등록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지난해 12월30일 특허청으로부터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등 9건의 업무표장 등록 특허를 받았다. 이에따라 관음종은 상표법에 의해 종단명의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미륵종

교육원장 등 임명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20일 교육원장에 정업스님(울산 태봉사), 감찰원장에 영각스님(김해 용연사), 호법원장에 보광스님(거제 견성암), 총무원 부원장에 무계스님(언양 미륵정사)을 각각 임명했다. 또 총무원 교무부장에 혜경스님(부산 금강사), 재무부장에 동성스님(부산 옥선사), 규정부장에 혜종스님(서울 심복사), 사회부장에 마하스님(울산 해광사), 문화부장에 영민스님(일양 금오암)을 각각 선임했다.

무량종

의정부지원 개원



무량종(총무원장 혜안)은 22일 의정부지원을 개원했다. 지역거점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일환으로 종단 소속 사찰인 비룡정사(주지 지원)를 지원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삼존불 점안법회도 겸해 열린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혜안스님을 비롯해 종단 간부 및 중진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원스님은 "의정부 지역 불자들이 비룡정사를 중심으로 신행과 포교활동을 펼칠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회복을 위한 발원문

단군 성조께서 신단수 아래에서 나라를 열었을 때 대륙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만주평원 요동반도와 동남으로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금수강산 한반도에 자비, 평화의 백의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단군 조선의 맥은 고구려로 이어지고 고려 또한 고구려 옛땅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민족 정기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우리민족의 터전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남쪽 한반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만주벌판 요동반도는 우리민족이 일어난 요람의 땅으로 조상의 얼이 잠든 곳이며 아직도 조선족은 아리랑을 부르며 한에 울고 있는 국토입니다.

우리 국민이 원력을 간절히 세울 때 잃었던 조상의 옛땅을 언젠가는 반드시 찾게 된다는 일념에 빈도는 이곳 산천수려하고 옻샘이 솟는 경내에 사찰을 창건(의왕사) 국토 수호 민족의 상징이었던 단군, 동명성왕, 고려태조와 왕 · 충신을 모시어 개국이념, 민족이상을 찾기를 발원합니다.

위대한 민족은 위대한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그 원력이 칠천만 동포의 가슴, 가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를 때 동방의 빛은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또한 법당에는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약사불을 모시어 무릇 때를 아는자의 동참을 기다리며 그 인연 공덕으로 큰 복을 지으시고 세세 생생토록 평안함을 기원코저 합니다.

이곳 옻샘에서 많은 중생들이 건강을 되 찾았고 이 터전에 사찰을 세워 중생과 더불어 국토 회복을 위한 원력을 발원 하고자 합니다.

아미산 옻샘 약수에서
거사 왕영신 합장

● 전 화 031-835-5986 / 017-210-5986 ● 농 협 223080-56-001156

龍岩寺

계미년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住持 韓太空

대중일동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11번지
031)942-0265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과정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박사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02) 747-1567/02) 737-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시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 인도돕기)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
buddhanews.com 을 클릭하세요.

단주 · 빵에 母情담아 … "어머니 고맙습니다"

군포교 자원봉사단 심우회
'신병 훈련소 가던 날'

'군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내 '춥고 배고픔'이란 단어가 뒤 따른다. 거기에다 '훈련병'이란 단어까지 겹쳐지면 '서러움'라는 단어가 추가된다.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예전에 비해 구타나 기합도 많이 줄어 들었고 먹는 것도 일반 가정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사병들이 군대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여전히 춥다. 군대가 바뀐 것보다 사람은 더 바뀌었기 때문이다.

19일 오전 7시 30분. 간밤의 어둠이 아직 웅크리고 있을 때 심우회(회장 이춘심) 회원 30여명은 서울 고속터미널 근처에 주차된 버스로 속속 모여들었다.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불자 40여명이 뜻을 모아 조직한 심우회가, 강원도 화천에 있는 00부대 신병교육대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모두 도착하자 버스는 이내 화천으로 향했다.

강원도 험준한 비탈길을 돌고 돌아 버스가 도착한 곳은 00부대 체육관. 매서운 바람이 먼저 회원들을 맞았다. 잠시 후 몸과 마음이 다 꽁꽁 언 듯한 훈련병들이 굳은 얼굴을 하고 줄을 맞춰 한 무리씩 들어오고 있었다.

법회가 시작되자 250여명 참석자들은 체육관 단상에 모셔져 있는 30cm 남짓한 '야전불상(불감 형식의 금동빛 나는 부처님)'에다 합장 반배를 하기 시작했다. 부처님 형상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허리를 굽혀 정성스레 절을 했다.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이 끝나자 정인성 법사는 단상으로 올라가 법문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삶은 우주의 생멸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점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이 모여 하나의 점이 되고 선이 됩니다. 전방에서 26개월 군 생활도 마찬가집니다. 매사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새 여러분들도 전역을 하고 의젓한 사회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정 법사의 법문이 끝나자 심우회 권영호 부회장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권 부회장은 먼저 훈련병들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저도 군생활을 화천에서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남 같지 않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군 생활을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걸 손목에 차고 있으면 사고가 안 나. 꼭 차고 다녀." 한 회원이 훈련병들에게 합장주를 나눠주며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신병교육대를 방문하기 전에 군법당에서 법회를 본 다음 보시함에 정성을 담았다.

법당 좁아 체육관에서
30cm크기 불감 모시고 법회
합장주 주며 "꼭 몸에 지녀라"

사흥서원으로 법회가 끝나자 회원들은 가지고 온 빵과 음료수를 훈련병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빵을 받은 훈련병들은 음료수도 받기 전에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4~50대 주부 회원들은 자식과 같은 훈련병 한명 한명의 컵에 음료수를 부어주며 끝없이 반복한다. "목 막힌다. 음료수 마시면서 천천히 먹어라."

또 다른 회원들은 합장주를 나눠주며 "이걸 손목에 차고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으니 꼭 차고 다녀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 그대로다.

법회에 참석한 훈련병들의 관심이 부처님께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빵과 음료수가 더 절실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한 결핍감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람이 그리워서 어머니의 살냄새가 말고 싶어서, 불교가 뭔지 불상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 채 참석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30cm 정도의 '불상(불감 형식의 금동빛 나는 부처님 · 아래 사진)'을 모시고 법회를 보는 훈련병들.

1인당 빵 하나와 음료수 한 컵이 돌아가고 난 뒤 한 회원이 '빵 더 먹을 사람'을 외치자 여기저기서 손을 들며 '여기요 여기요'를 외쳤다. 몇 개 더 나눠주지만 이내 동이 났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 지켜보는 사람의 가슴에도 휑하니 찬바람이 지나간다.

작별은 언제나 서툰 법이다. 겨울해는 짧고 돌아갈 길은 먼 심우회원들도, 한 순간 어머니의 품을 느꼈던 훈련병들에게도 작별은 또 다른 그리움을 남긴다. 떠나가는 이들을 향해 훈련병들은 한 목소리로 외친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화천=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훈련병 포교 자대까지 이어져



목련존자 이야기 듣고
눈물 흘리는 병사 많아

군법사 12년째 정인성법사

"훈련소에서 처음 종교를 접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또 훈련소에서 접한 종교가 자연스럽게 자대까지 이어집니다. 20년 이상 부모님들과 함께 있다가 훈련소라는 낯선 공간에서 힘들어 할 때 접한 종교는 제대 후에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군 법사 생활 12년 째인 정인성 법사는 훈련병 포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포교 차원이 아니더라도 군대에서 종교생활을 하면 정신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돼 국방부에서도 장려를 한다고 한다.

정 법사는 훈련병들에게 기간병과는 다른 설법을 한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훈련병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법문보다는 절은 왜하며 그 방법은 어떠한지, 사찰을 참배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등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한다. 특히 '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훈련병들에게 많이 들려준다.

"효성이 지극한 목련존자가 생전의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갖은 고통을 받고 있던 어머니를 위해 1천 2백여 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독경과 목탁을 친 '우란분재'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눈물을 흘리는 훈련병들이 많습니다."

정 법사는 훈련병들의 가슴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고 한다. 또 심신이 피곤한 훈련병들이 법회에서 졸아도 모른 척 넘어간다. 법당에서라도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군 포교는 '1사찰 1군법당 결연 사업' 등으로 예전보다 많이 낳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회 볼 군법당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불자들의 조그만 관심이 '큰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원문의:02-725-5233(군불교위원회), 02-578-2525(심우회)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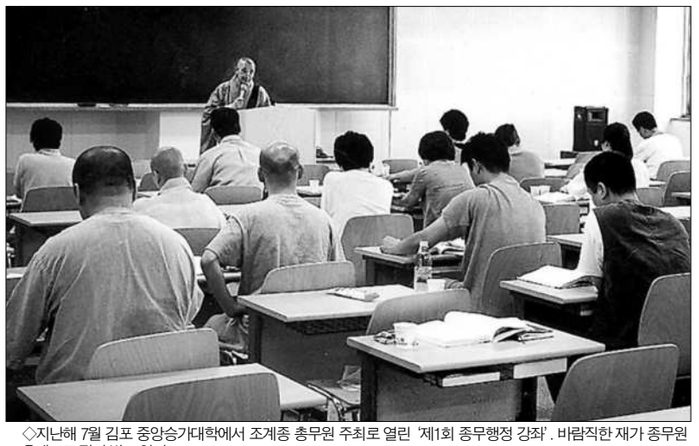
상담문의 : 053-652-3300

사찰 재가종무원 처우 대부분 열악

사찰의 주인은 누구일까. 현실적으로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생활공간이고 부처님을 향한 예경의 공간이다. 따라서 사찰의 실제적 주인이자 수호자는 스님이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사찰이 제 구실을 다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외호자도 있어야 하고, 시대에 따른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재가 종무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도 분명 사찰 운영의 한 주체다.

절 살림과 신도관리의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종무원 없이 사찰 운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종무원의 처우는 사찰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다. 들쭉날쭉한 급여체계, 불안한 신분보장, 국민연금은 물론이거니와 고용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에서도 소외돼 있다.

직업인으로서 사찰 재가종무원의 처우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



◇지난해 7월 김포 중앙승가대학에서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열린 '제1회 종무행정 강좌'. 바람직한 재가 종무원 교육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근무여건은 어떤가'

맞벌이는 기본, 신심은 필수. 재가종무원의 직업 수칙이다. 이 같은 자조적 이야기의 뿌리는 급여.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경남 지역의 한 사찰에서 5년 째 근무하고 있는 오 씨(39). 한달 급여가 120만원을 조금 넘는다. 전직 교사인 오씨의 급여는 중소기업 고졸 초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에 둘째 아이까지 본 오 씨는 늘어난 생활비 감당을 못해 이 번달부터 집 근처 가게에서 저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내 역시 상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

오 씨와 같은 사례는 조계종 본사급 재가종무원들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급에 따라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140만원, 상여금은 0~400% 정도다. 게다가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 들쭉날쭉한 급여 체계,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재가종무원들의 근무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모든 종무원들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경기지역의 교구 본사 사무장 임 씨(45)는 "현재 받고 있는 급여는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사찰 종무원 생활을 못 한다"고 말했다. 사찰의 규모나 종무기관의 성격에 따라 급여 수준이나 근무 조건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다. 해법이 단순할 수 없는 건 물론이다.

▲'노동자인가 신도인가?'

재가 종무원의 직업적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경남 지역 한 교구본사의 사무장 박 씨(59)는 오전에 주지 스님에게 핀잔을 들었다. 50여 명 종무원들의 급여 인상을 요구했다가, '부처님 일 하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느냐'는 말만 들었다. 주지 스님과 종무원간의 실랑이. 비단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찰에서도 연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종무원의 직업 정체성이 노동자와 신도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노동자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종무원의 신분보장 문제는 더 심각하다. 강원도 지역 S사찰의 종무원인 김 모씨(36)는 "주지 스님이 바뀔 때마다 사무장이 바뀐다. 업무 지속성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직업인으로서 고유 업무에 대한 보람과 긍지 따위는 상상할 수도 없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관련 인사규정조차 없다. 있다하더라도 노동자로서 신분보장 같은 것을 요구할 거라면 당장 그만 두라는 식의 말만 돌아온다"고 털어놓았다.

이러다보니 재가 종무원의 근무 연수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장기 근속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남 지역 한 교구본사의 경우, 40여명의 종무원 가운데 1~2년 근무자가 절반에 가깝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대불련 출신 김 모씨(27)는 "종무원의 복지처우도 문제지만 고용보장이 안 되는 불교계 현실이 안타깝다"며 "불교계에서 일을 한다는 건 생각조차 않는다"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

직업인으로 재가 종무원 제도가 자리 잡고 있는 사찰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서울 조계사, 대구 동화사, 해남 대흥사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급여체계 들쭉날쭉 · 신분 보장 안돼

대부분 사찰, 중앙기관의 절반에도 못미쳐
국민연금 · 고용보험 등 기본안전장치도 없어

사찰투명운영 · 보수체계 표준화를

서울 조계사는 지난 1999년에 국민연금, 의료(직장), 고용, 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전체 종무원 26명을 일반 회사와 같이 직급과 직책을 부여하고, 급여도 중앙종무기관의 수준으로 인상했다. 조계사의 이 같은 변화는 사찰재정 운영, 신도조직관리 등 제반 업무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종무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구 동화사도 마찬가지다. 2001년 초에 고용 ·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해 하반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해 영남지역 교구본사 가운데 처음으로 4대 보험 가입을 끝마쳤다. 특히 종무원들의 퇴직금 적립을 위해 총급여액의 10%를 적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가종무원의 기획을 사찰에서 받아들여 호평받고 있는 모델도 있다. 해남 대흥사는 일찌감치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사찰의 역할을 준비해왔다. '새벽 숲길' 등 테마 중심의 수련프로그램은 재가 종무원이 기획했다. 전문직인 종무행정력을 인정받아 사찰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종무원 처우의 열악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ㄱ사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ㄴ사찰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찰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이다. 본사나 중앙종무기관에서 사찰 규모별로 표준화된 급여 체계를 제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물론 이를 개별 사찰에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 만족도가 신도 관리나 포교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개별 사찰에서 알아서 할 일만은 아니다. 신분보장, 합리적인 급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무원 복무규정의 현실적 보완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또 대다수 사찰에서 가입하지 않고 있는 4대 보험가입도 추진돼야 한다.

충북 지역 한 사찰의 최 모 사무장(43)은 "그동안 종무원들은 사부대중의 참여에 의한 사찰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노동자로서 재가 종무원을 인정하는 스님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근무조건이나 위상 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정진우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실장

한국을 떠나는 두 네팔 친구에게

'고국서 또다른 어려움' 생각에 선뜻 귀국축하 인사말도 못해

인드라, 그리고 빔. 당신들을 만난 지도 벌써 8년째에 접어드는군요. 비록 저보다 나이는 몇 살 많지만, 그래도 허물없는 친구로 서로를 바라보며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네요.

네팔에서 한국에 와서 힘든 노동을 하며 지낸 시간도 벌써 12년을 맞이하고 있으니, 인드라와 빔의 청춘은 바로 한국 생활이 전부겠네요. 20대 초반의 혈기가 이제는 어느덧 30대 중반의 여유로움으로 바뀌었으니까요.

1995년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상담을 할 때, 너무도 서툰 저를 두 사람은 참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지요. 네팔 불자모임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를 같이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운 단어가 욕이었다는 얘기,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한국말을 못해 물건 사기가 겁나 한 달간 빵만 먹었다는 얘기를 이제는 웃으면서 하지만,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웠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번도 고국에 가보지 못했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지요. 빔은 네팔의 부인이 어여쁜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기만 했을 뿐 몇 년째 사진으로만 딸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요. 인드라는 큰형의 죽음을 한국에서 들어야 했고, 작은형이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아픔도 있었지요. 큰형의 제사와 49재를 이국인 한국에서 지낼 때 인드라의 말라버린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같이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네팔 친구들과 일요일마다 만나서 소식도 나누고, 네팔 음식도 해먹고, 야외로 나가 노래와 춤을 출 때는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폐암으로 투병생활을 했던 선제이 구릉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 완쾌된 선제이를 만나 포옹할 때, 7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어야 했던 찬드라 구릉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썼던 일 등 네팔 불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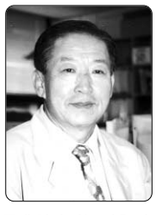
인드라, 빔. 이제 며칠 후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지요. 귀국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으면 왠지 어색한 미소로 고맙다는 대답을 하는 당신들을 볼 때, 그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춘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한국 땅을 떠난다는 것이 말처럼 축하만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아직까지도 저는 귀국을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너무도 변해버린 그리운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 인드라와 빔에게는 네팔에서의 생활이 또 다른 도전이리라 생각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기쁨도 크겠지만,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크겠지요. 그러나 저는 당신들이 한국에서 그동안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다면 분명 네팔에서도 꼭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드라, 빔. 당신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도 힘들지만 그래도 항상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다 어려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실천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인드라와 빔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군요. 당신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였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54-3733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올해부터 초기경전 중심의 지회별 소모임을 결성한다.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는 2003년을 '공부하는 공무원 불자상 정립의 해'로 정하고, <아함경>, <법구경> 등 초기경전 중심의 기초교리 교육을 산하 206개 지회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공불련의 이번 계획은 그동안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법문이 회원들의 교리이해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된 것이며, 법회 형식을 회원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초기경전 중심의 공부소모임은 부처님의 원

초기경전 중심 지회별 소모임

공불련, 올부터 추진

음을 공부하려는 최근 불교계의 흐름을 반영했다. 이같은 공불련의 신년사업계획은 앞으로 공불련 지회를 비롯한 다른 직장·직능불자회의 경전공부 소모임 결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불련은 우선 3월부터 산하 지회를 대상으로 경전연구 소모임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지역 거점 사찰을 활용한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안홍부 사무국장은 "경전공부가 자칫 이론 중심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음이 생생하게 담긴 초기경전을 중심 교재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대덕단지 불자련 조직활성화 나서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회장 김천석, KT&G 중앙연구원)가 회원들의 불교입문교육을 강화하고, 9개 지회를 순회하는 합동법회를 실시하는 등 조직활성화에 나섰다. 또 회원의 60%가 박사급 연구원인 점을 감안, 개별 연구 분야와 연계한 경전연구회 결성도 지원한다.

연합회는 20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2월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불교입문교육·지회별 법회 강화 박사급 연구원 경전연구회 지원

태전사 원찰로 산사음악회 정례화

연합회는 지난 1987년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기관의 불자회가 모인 단체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9개 지회로 구성돼 있다.

연합회는 첫 사업으로 회원들의 불교입문교육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도법사 도일 스님(태전사 주지)이 지도하는 2개월 과정의 입문교육을 연중 6회로 확대 실시한다. 또 2월부터는 1차 수료자 30명을 대상으로 참선전문교육과정도 진행한다. 이러한 회원교육은 단순 입문교육에서 '입문-참선'으로 확대 개편해 '순환교육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연합회는 또 산하 9개 지회를 순회하는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회별 법회 개최 시기 등의 현황을 이달 말까지 파악하고, 순회 합동법회 일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 창립 이후, 줄곧 제기돼온 지회별 지도법사와 회원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소 해소되는 것은 물론, 지회별 정보공유 체제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법주사 포교당인 태전사를 중심 원찰로 연계 활동을 강화한다. 지난해 1월 태전사에서 개최한 연합회 산사음악회를 올해부터 연간 행사로 정례화 하고, 지회별 경전연구회 결성도 지원한다. 특히 경전연구회는 1천여 명의 회원 중 절반 이상이 박사급 연구원인 점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으로, 앞으로 회원들의 연구 분야와 연계해 활동을 펼친다.

김천석 연합회 회장은 "대덕연구단지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조성된 연구단지인 만큼 연합회 활동이 회원들의 연구성과 제고는 물론, 신행활동에도 도움을 주겠다"며 "올 해 실시되는 기본교리와 참선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되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

山上법회 큰 자랑… 짧지만 긴 여운

성금 모아 군법당·복지시설 방문도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 이름에서부터 우리 산악회가 '산(山)을 좋아하는 불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산을 좋아하는 법우들이 모였고, 법우들이 좋아 산을 찾습니다. 산을 사랑하다 못해 산에 미쳐버린 사람들. 우리는 언제나 산 정상에서 '붓다의 메아리'를 전하고 있는 신행단체입니다.

창립은 지난 93년 12월에 했습니다. 현재 대한불교 전국산악인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대원 법우님이 창립을 제안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고 있지요. 당시 서울 조계사 신행단체 임원으로 활동 중이던 김 법우님이 '산행하면서 법회를 보자'고 제안해 몇몇 불자 산악인들이 의기투합했던 겁니다.

첫 산행법회 때는 회원이 10명 잊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산이 좋아 만난 사람들이지만 불자임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악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니뭐니 해도 정기산행과 성지순례를 겸한 산상법회(山上法會)랍니다. 힘겹게 오른 산 정상에서 여는 법회. 파란 하늘은 후불탱화가 되고, 넓은 바위는 불단이 되어 줍니다. 이뿐인가요? 우리가 봉독하는 <반야심경>은 '금강의 메아리'가 돼 온 산을 휘감고 돌아온답니다. 법열이 느껴지지 않나요? 산상법회가 끝나면 회원들은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공양을 하고, 장기 자랑과 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 그대로 야단법석인 셈이지요. '짧지만 여운이 긴' 법회, 우리 산악회가 매월 만끽하고 있는 산상법회랍니다.



◇지난해 겨울 서울 수락산에서 '산행법회'를 마친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악회는 매월 두 차례의 정기 산행법회는 물론 자연보호 활동, 사찰환경보전 운동 등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회원 2백여 명의 알찬 불교 산행단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는 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때문에 우리 산악회는 매월 두 번씩 전국의 산과 사찰을 찾아 떠납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은 서울 근교로, 셋째 주 일요일은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그야말로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성금을 모아 군법당, 소규모 복지시설을 분기별로 방문하는 것도

올해 우리 산악회는 창립 10돌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신규회원 확보를 위해 우리 단체를 불교계 안팎에 널리 홍보하고, 창립 10년사를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전국의 불교산악회들로 구성된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금강의 메아리'와 같이 우리 서울불교산악회는 부처님의 법을 올곧게 실천하는 참된 불자 산악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02)730-1080

■서울불교산악회 한의섭 총무

인천국제공항경찰대 불자회 창립

◇동북아시아의 관문을 지키는 인천국제공항 경찰대가 21일 공사 1층 강당에서 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4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전인배 불자회 회장의 경과보고, 초대 경승실장 계성스님(강화 전등사 주지)의 법어, 조계종 포교부장 일관 스님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우리 모임에선

대구광역시청 유마회 금강경 강좌

대구광역시청 유마회(회장 강재형)는 2월 6일 대구 삼덕동 관음사 대웅전에서 <금강경> 교리 강좌 법회를 연다. 회원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법회에서는 대구 동화사 강주 해월 스님이 강의를 한다.

부산본부세관 관우불교회 정기법회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관우불교회(회장 현후길)는 2월 11일 부산 당리동 관음사 대웅전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성지순례 법회, 수계 법회 등 올 신년사업계획을 논의한다.

함양군청 불교회 창립1주년 기념법회

경남 함양군청 불자회(회장 박영일)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불자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황대선원 선원장 성수 스님을 초청, 법문을 들었다.

단체장



공인회계사 불자회 한 돌

박노영 공인회계사 불자회 회장은 1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신년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불교와 현대생활' 주제 법회

김은표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 회장은 23일 연구소에서 대전 계룡대 정우 법사 초청, '불교와 현대생활'이란 주제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대전청사 반야회 합동법회

김창균 대전정부청사 반야회는 2월 6일 오후 7시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청사 내 불자회 합동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중랑뽈 법우회 '찬불가 배우기'

오상열 서울 중랑경찰서 법우회 회장은 23일 12시 경찰서 내 경승실에서 경승실장 법만 스님과 함께 찬불가 배우기 법회를 봉행한다.

밝은 정성, 맑은 햇살로 빚은 사찰토종메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서리가 내려앉는 음력 10월이면 매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 메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복 메주는 100% 우리콩을 가마솥에 삶을 때 솔잎과 장작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토로 만든 흙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 시킨 전통 무공해 메주입니다. 해마다 드셔보신 분들마다 옛 뚝배기 맛 그대로 배어있어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 메주 주문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참기름과 된장(죽염), 고추장, 조림간장, 국간장, 분말메주도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주1말 6kg 57,000원

● 연락처 : H·P 011-203-6567,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 서울 02)742-0172 / 부산 054)514-3566 / 대구 053)425-3063
울산 052)245-0337 / 대전 042)862-8638 / 창원 055)299-5419 / 수원 031)253-2677
군산 063)452-7852 / 광주 062)681-3268 / 강릉 033)642-0987

가시오가피하면, 함박재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강 훈 구 대표

함박재를 꼭 확인하세요!

함박재농장에서 20년간 재배한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 사용!

▶10만평의 대규모 직영 농장
▶충남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한국표준 협회 으뜸상품으로 선정



■ 국제 생약학계의 권위자
독일 바그너(H.Wagner)박사도 격찬한
"함박재 가시오가피"
(2002.7.24 함박재농장방문)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자료신청 : (02)2272-4900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재질(모직)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조끼,몸배

누비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셔츠



8. 셔 츠 ₩50,000 (차이나형, 라운드형)
바 지 ₩60,000
₩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총판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원효종 승가대학
원효불학원 학인 모집

원효종 승가대학 경주 복원사 원효불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사미 0명
◆수학기간 : 2년(대중생활)
◆수학내용 : 초발심 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도서, 불교학개론, 대승기신론, 소, 별기 불교의식
◆입 학 식 : 2003년 3월 4일 오전 11시

원 효 불 학 원
원 장 : 영 운
강 주 : 우 궁

경주복원사 054)745-3646
경주시 현곡면 내태1리 875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발간한 <불교문화재 지정현황 목록>을 보면 우리 나라 국보 · 보물의 64%가 불교문화재이다. 그러나 조사가 안 돼 알려지지 않았을 뿐 지정 가치가 있는 사찰소장 불교문화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이었다.

현황 파악조차 안 돼 도난범들의 주요 표적이 됐던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문화재청 예산 지원으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002~2011년)를 벌이고 있는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설웅)은 첫해인 지난해 강원도 지역 109개 사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21일 결과를 공개했다.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1600년대 조성).

강원지역 불교문화재 3,200점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작년 109사찰 조사결과 발표

120건 488점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결과 1950년대 이전에 조성된 불교문화재는 999건 3,200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96년 조계종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강원지역 본 · 말사 성보문화재 현황조사 때보다 99건 761점이 늘어난 것이다.

시대별로 보면 조선시대 문화재가 2,974점으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으며 근대(132점), 고려시대(77점), 통일신라시대(9점), 기타(8점)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서지 및 전적류가 1,939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탑 등 석조물 382점, 경판 273점, 불상 등 조각류 230점, 서예 및 현판류 135점, 불화 107점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지정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현재 지정된 강원지역 불교문화재(87건 452점)의 138%에 이르는 120건 488점으로 밝혀졌다. 특히 1600년대 조성된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과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당장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척 천은사에서 발견된 높이 14㎝의 금동약사불입상(8~9세기) 역시 보물급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고성 화암사 칠성탱과 신중탱 등 17건 294점은 훼손이 심해 보존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삼척 천은사에서 발견된 금동약사불입상(8~9세기).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부단장 성효 스님은 "해방이후 전국적 규모의 불교문화재 조사는 처음"이라며 "일제조사가 끝나면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번에 조사된 불교문화재를 수록한 도록과 목록집, CD를 제작해 전국 검 · 경찰청, 공항 · 항만 문화재감정관실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올해는 조계종 1차 실태조사가 끝난 전북과 제주 지역 160여 개 사찰에 대해 정밀 조사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개항이후 불교계, 타종교 어떻게 봤을까?

기독교인식 '폄하' '선망' 교차
유교는 '윤리' '교육사상' 이해

송현주씨 종교문화포럼서



개항(1876년)이후 해방(1945년)에 이르는 시기, 한국 불교계는 기독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18일 열린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제20차 종교문화포럼에서 송현주(한국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진)씨는 '근대 한국 불교의 타종교 인식과 이해의 태도'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송씨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유심> <불교> 등 이 시기 불교계에서 발행된 잡지 8종에 실린 글들.

먼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보면 '선망'과 '폄하'라는 이중적 인식이 교차한다. 송 씨는 "불교 교리에 비춰 기독교의 교리를 열등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미신' 또는 '맹신'이라고 보는 시각이 불교계의 일반적 대세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포교, 구제사업 등 제도적, 실천적 문제에서는 기독교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모방하려 했다.

유교와 민간신앙에 대해서는 종교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 유교를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윤리' 또는 '철학' '교육사상' 정도로 이해했으며, 불교의 '본질 회복' 차원에서 무속을 포함한 민간신앙을 '미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불교로부터 분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송 씨는 "진리에 대한 배타주의와 포괄주의적 입장, 타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 이 세 가지가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화순 운주사 천불천탑 누가 · 언제 조성했나
10월 한중일 학술대회

전남 화순 운주사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곳이다. 천불천탑을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조성했는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갖가지 설만 넘쳐난다. 별자리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밀교성지로 파악하거나 민간신앙 차원에서 이해하기도 한다.

(사)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회장 홍윤식)가 '운주사의 역사적 가치 검토'를 주제로 올 10월 한 · 중 · 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학술회의에는 탑이나 불상뿐 아니라 불교교리나 불교천문학 분야의 전문가 등 5명이 발표자로 나설 계획이다. 일본에선 각각 밀교학과 불교문화 분야의 권위자인 요리토미(代富) 슈우지인(種智院)대학장과 이시가미 젠노(石上善應) 슈쿠토쿠(淑德)단기대학장이 발표를 맡는다. 국내와 중국 쪽은 현재 섭외 단계.

홍윤식(국악예술학교장) 박사는 "지금까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설만 난무해 온 운주사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주지역 절터 일제조사
다보탑 등 석탑 3기 보수

남산을 비롯해 경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절터에 대한 일제조사가 시작된다. 또 훼손 및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 감은사지 서탑 등 경주지역 국보급 석탑 3기도 보수정비에 들어간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5년 시작된 중요무형문화재 조사연구 및 기록화 사업은 올해도 계속돼 영산재(50호) 등 10건에 대해 영상물 제작과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미국 하버드대 옌칭 도서관을 비롯한 해외 주요 한국 전적 문화재 조사도 해외 조사사업과 별도로 추진된다.



불교공예(6)

치미에 새긴 신라인의 마음

경주의 중심, 더 나아가 신라의 중심을 상징하는 황룡사. 강당의 북쪽에서 출토된 조각들을 맞추어보니 높이가 182㎝나 되는 치미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치미가 이만하니 그 강당이 얼마나 컸겠는가? 치미(鴟尾)란 신화로 전하는 치(鴟)라는 새의 꼬리이다. 황룡사 치미를 보면 안쪽으로 곡선을 그리며 휘어진 가운데 바깥부분에는 꼬리털이 새겨져 있다. 이 치미는 용마루 양끝에 건물의 표정을 잡아주기도 하고 건물의 위세를 드러내주기도 한다. 그러나 치미는 단순히 이러한 미학적인 고려에서 세운 것은 아니다. 치가 화재를 막는다는 강한 믿음에서 더 질박한 표현을 좋아한 신라인의 취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나 토우식의 질박한 표현을 좋아했으면 지붕의 꼭대기에까지 그것을 표출한 것일까? 신라토우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신라인들의 본성을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될 것이다. 왕릉 급이나 귀족 계층의 무덤에서도 질박한 토우나 토우로 장식한 잘 생긴 토기가 출토되는 나라가 신라이다. 토속미는 하류계층, 세련미는 상류계층과 같은 도식적인 분석은 적어도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황룡사 치미(6세기, 높이 182㎝,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황룡사 강당 꼭대기에 설치된 치미에 토우를 빚듯이 주물럭거려 무늬를 나타내었다.

삼국 가운데 신라만큼 토속성이 짙게 배인 문화를 가꾼 나라가 없고 신라만큼 국제적인 열망을 보인 나라도 없었다. 신라인은 강한 토속문화의 기반 위에 세계문화를 받아들였다.

황룡사 치미 얼굴 · 연화문양 표현 질박해
신라인들 '토속' 바탕 외래문화 받아들여

비롯된 것이다. 불에 취약한 목조건축에서 치의 상징적 존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황룡사 치미를 보면 늘 흥미로운 의문에 휩싸인다. 겉에 노인들의 얼굴과 연화무늬를 두드러지게 새겼는데, 토우를 빚듯이 거칠게 손가락으로 주물럭거려 표현한 것이다. 그것도 해학적으로. 신라에서 가장 큰 사찰의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치미의 무늬를 왜 세련되고 정교하게 다듬지 않고 손가락으로 거칠게 주물럭거려 만든 것일까? 치미가 큰 건물의 꼭대기에 있어 밑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잘 잡히지 않으니 와공들이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장난기를 발동시킨 것일까? 아니면 솜씨가 떨어진 와공의 작품인가? 이보다는 오히려 질박한 표현을 좋아한 신라인의 취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나 토우식의 질박한 표현을 좋아했으면 지붕의 꼭대기에까지 그것을 표출한 것일까? 신라토우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신라인들의 본성을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될 것이다. 왕릉 급이나 귀족 계층의 무덤에서도 질박한 토우나 토우로 장식한 잘 생긴 토기가 출토되는 나라가 신라이다. 토속미는 하류계층, 세련미는 상류계층과 같은 도식적인 분석은 적어도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괴테는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가장 토속적인 문화가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이다. 괴테의 논리를 신라문화에 적용하면, 국제적인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꾀한 문화가 신라문화인 것이다. 신라미술에는 두 종류의 미의식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토우와 같이 토속미가 짙게 배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마도와 같이 외래적인 미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두 미의식은 양극단에 서서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그만큼 외래적인 세련미 못지 않게 전통적인 토속미도 더불어 애호한 민족이 신라인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보관상태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종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보시행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기거하는 정신대 할머니들이 설날을 앞두고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가래떡 500인분을 종로구청에 보시해 마음까지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이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쌈짓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왔다. 후원자들의 조그만 성금으로 근근이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계속 되는 보시행은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보게 한다.

창문속비

실망스러운 종교 지도자의 말 말 말

김수환 추기경이 한 가톨릭계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다시 신앙을 찾아 기도를 통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신앙인으로서 할 만한 소리이긴 하지만 사회적 지도자로 존경받는 김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실망스럽다. 대통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사람이다. 노 당선자는 '무교'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대미 벼랑끝 전술의 수위를 점차 높여 가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지난해 12월분부터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하자 핵개발 포기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 서방과의 대타협이란 선택 대신 핵동결 해제를 선언했다.

북한이 핵동결 해제선언을 한 동기는 전력공급 중단으로 생길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제네바합의 미이행에 따른 전력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북 중유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매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전력생산을 위한 핵동결 해제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미국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초 미국 켈리 특사 방북 이후 다시 불거진 북한 핵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북-미 불가침조약체결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제의했다. 북한은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북한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북한이 미 [illegible] 하면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라는 요구를 국에

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교수
동국대 북한학과

북핵문제 요구·우려 일괄타결 돼야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라는 것은 불가침을 약속한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국으로 명시하는 등 대북 압박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부시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의 불침공 약속만으로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개혁·개방을 본격화하기 위한 내부 설득의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북-미간 불가침조약을 맺을 경우 북한 당국은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본격화하자고 군부 등 개혁·개방 반대 세력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이 북한의 불가침조약체결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어떤 국가와도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점과 불가침조약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에 대한 부담도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불가침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위상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불가침조약 대신에 선 핵개발포기 등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불량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이를 포기해야 '정상국가'인 미국, 일본, 한국 등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문제시하는 '우려사항'이란 바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사항을 해소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안전담보)'과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 맞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 해결방식은 미국이 '선 핵개발 포기 후 대화' 입장을 '대화를 통한 핵개발 포기' 방향으로 수정하고, 북한에 핵 포기와 관련한 명분을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행화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법회 기도

지장사 법회안내
첨야정진 : 매주토요일 밤 9시 ~ 새벽 4시까지
자장재일 : 매월(월)18일 오전 10시
일요법회 : 매월 첫째일요일 오전 10시
인생상담 : 조급이나마 밝고 윤택한 삶에 보탬을 가져보자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2)981-8418
02)907-1643

동두천 흥륜사 법회안내
(오전10시30분)
매월 음력 초하루 초삼일까지 신중기도
매월 음력 16일 산신기도
매월 음력 18일 지장재일
매월 음력 24일 관음 인등기도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2번지
031)862-8229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천도지장도량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봉황산 미륵암
(영통첩학관)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구인구직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절에서 평생 사실분 모십니다
연령 60-70세 사이
건강하신분을 모십니다.
02)577-0007
011-9864-1095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도 이천 원경사
031)641-6311
www.wonkyungsa.com

무료소개
· 비구 · 비구니 부전스님
· 40~50대의 공양주 보살
· 남 · 여 출가 희망자 행자학습
02)537-9933
011)354-8484

관음기도 도량에서
기도공부하며 한평생
가족처럼 지내실 20~30대
女행자님을 모십니다
인연이 되면 도량을
물려줄수 있음
주지. 비구스님
016)9393-9617

불화(부적관련)에
관심계신 스님과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급여 상담 후 결정]
달마부적연구소
053)755-4402~3
016)5533-4000

계해년 정초 기도 및
부전스님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십시요
▷ 조계종스님
016-9997-0288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구합니다
011-459-3282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 45세 이상
011-517-6099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 상계동 불암산 정암사
011-254-3037

행자모집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6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무릉산 일도사
054)733-8786
054)733-4731
homepage www.ILDOSA.COM
연락바랍니다

초하루 관음재일
천도재 · 염불스님
필요한 사찰을
연락주십시요
054)433-6315

평생 함께 사실
비구 스님을 모십니다
행자도 모십니다.
▷ 천안영락사
041)584-6675
011)289-1635

부전스님 모십니다
불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952-790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5세미만, 월 80만원
054)533-2133
016-9245-1155

경기도 가평에 있는
산사입니다.
포교와 기도를 전담할
스님을 구합니다
보시금은 능력에 따라 지급함
011-722-3418

칠갑산 토굴암자
기도하며 공부하실
비구니 스님이나
스님공부하실 여성구함
(불교대학공부시켜드림)
017-409-959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태화선원
041)734-1447
041)735-036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미만
041)856-7170
041)857-0621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신심돈독하고 오래 계실분
▷ 50세 이후
011-483-5639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용 암 사
▷ 서울 은평구 진과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011-9782-3216

부전스님
모십니다.
▷ 부산 바닷가근교
011-860-4322

스님 모십니다.
수행과 사찰을 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 지역 : 충남 아산온천지역
011-701-0140

부전스님 모십니다
055)286-1779
기본 보시는 월80만원
능력에 따라 급여가 오를 수 있음.
1년 동안 부전으로 서로 뜻이 맞으면
사찰운영권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 50세 이하, 사찰규모가 큼. 창원오봉사

가족처럼 스님과 함께
생활하실 사무겸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서울 성북동 여래사
011-732-6933

한가족 같이 생활하며
기도하실노보살님
모십니다
▷ 충주 무량사
043)851-4879
017-766-85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011-576-27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분당
031)719-0408

사찰 사무장(보살님)
급 구합니다
▷ 북아현동
02)363-0425~6
011-306-6544

행자모심
고졸이상, 40세 미만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진학 보장
타종단 스님도 환영
02)917-3363

건강하고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 보시금 80만원
보너스 별도
054)744-1689
011-763-1690

알림정보

스님과 함께 하는 동양사상 2기생 모집
주역을 통한 한방역학 및 사주 명리학 특강
사주학대비 사상체질, 오행침법, 식이요법
(돔, 부항, 침술, 민의학 강의)
길 없는 길의 비밀
선지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던 스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직시, 본법의 장에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직관에 의한 깨달음 상승법"을 통해 열어 드립니다.
문의 031-256-5605 / 016-433-5605
심우선원 선불장

군 포교 불사 후원
호국 법해사
지도법사 송정스님
파주시 문산읍 문산1리 10-33
031)445-0573
011-748-6452

우울증
치료가능
031)765-0584
011-445-9126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일심사 甲寅山神大祭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소납이 백두대간을 다스리는 서른세분 산신님을 봉안하고 癸未年 正月十日甲寅月甲寅日맞이 산신대제를 봉행하오니 산신님과 인연불자는 일심사 甲寅산신제에 동참하시어 새해에는 국운발전, 업장소멸, 만사형통 하시고 소원성취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2월 10일 (음 正月十日) 오전 10시
● 장소 : 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1구 일심사 산신각
● 동참금 10만원을 입금하시고 016)289-1187로 연락주시면 기도동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466802-04-007694 / 예금주 : 정문식)
일심사 주지 설호 합장 Tel. 041)356-1187

부처님 삼존불 계십니다
인연있는 스님께 시주드립니다
055)973-7388

마음의 쉼터(단기출가)
강원도 죽림산의 정기를 한곳으로 모은 청정도량에서 일상을 쉬어가는 '마음의 쉼터'
부처님 품안 죽림산사에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 본래 갖춰져 있는 당신,
자신안에 있는 삼보를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재충전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이 되도록 쉬어 가십시오.
'서쪽동안 닦은 미음 천년의 보배요, 백년 동안 탐하여 모은 물건 하루아침에 티끌이려'
033)345-6008 竹林山 마음의 쉼터

승복가게 인수할 분
찾습니다
부산시내 최고요지
▷전세권리비품金5000만원
051)818-8063

천도재 · 구병시식 전문
정월 재수 불공 입춘 삼재 풀이 접수 中
노원구 상계4동 450번지 4층
02)3391-8523 / 011-9002-8523
약 천 사 자 운 합장

생활장터

산소법당에서 기도하세요
도심법당
산소피아가
山寺의 법당을 만들어 드립니다.
JM GLOBAL 홍보이사 김광현
02-771-1095 / 011-704-5195



불자정보

강직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위치: 부산	•위치:부산	•위치:충북
•법당: 24평	•법당: 40평	•법당: 20평
•요사: 50평	•요사: 80평	•요사: 50평
•부지: 300평	•부지: 350평	•부지: 1,200평
•가액: 3억2천	•가액: 7억	•가액: 2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
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절에서 평생 사실분 모십니다

- 시주금 오천만원(부부)
- 개인은 삼천만원
- 사망시 장사, 49제, 납골봉안
- 연중 제사(4번)등 일체 무료 봉행

031)989-7515
011)795-8576

♣보 리 수♣

취급품목: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철학 수강생 모집

수강비 없음,
숙식제공 무료
(명리학, 관상학 등)
011)9769-6699
031)726-1722

『신비의 경옥고』

▶수락산 암자에 정진중인 승려입니다.
스승께서 전수해 주신 경옥고를 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경옥고의 효능 ※

★원기회복 ★수족저림완화 ★비염에 효능
★심한변비 효능 ★중풍예방 ★수명익수

● 중량 : ☞ 석달 분(옹기포함 7.5kg) ● 가격 : ☞ 500,000만원
● H·P : ☞ 011-669-5708 / ☎ : ☞ 031)874-5700

사찰(전세)구함

토굴에서 정진하는 스님입니다.
다음과 같이 사찰 또는 암자를 구합니다

- 지역 : 경북 경산, 청도,영천 부근
- 전세 3천만원 정도의 사찰 또는 암자

011)490-4693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하동읍 근교 지리산 정기를 받아 물 전망 및 교통 아주 좋음
- 대지 260평 건평 32평
- 가액 : 1억 5천 (절충가능)

011)9535-4811

포교당(급)안내

- 전남 광주시내 중심가로서 교통편리하고 덕림산 중턱에 있는 공기맑고 조용한 최고의 포교지로 적합함
- 평수 320평 1층 유치원, 2층 법당, 합 120평
- 요사채 (1, 2층 50평),별채 30평
- 가액 : 5억5천(가격절충, 전세도 가능)

011)603-845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 평수 : 60평, 4층건물에 2층
- 도심속에 최고시설 완비 대량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700(월세가능)
- 시설비 : 1억 3천 중 4천만원만 받고 모든 집기류 일체 제공

인연있는 스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1)9315-1200

히말리아 서티벳트 대청보사

원시불교가 그대로 살아있는 나닥. 내. 1989년 한국사원을 건립하였으나운영과 포교가 소승으로는 힘이 부족하여 다른 분에게 양도 하고자 합니다. 인수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대암 017-380-4546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포교당 안 내

●위치 : 경기도 광주시내	●위치 : 서울시내(지하철역 200m)
●법당 : 50평	●법당 : 26평
●요사채 : 방2개	●요사채 : 방 1개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보증금 8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시설비 답사 후 결정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 105번 종점(바닷가)
- 대지 507평
- 요사채 36평
- 대웅전 28평
- 가액 : 2억 8천

011)795-1420
011)609-1106

사찰안내

- 대지 470평 ●대웅전 42평(목조기와)
- 요사채(슬라브) : 25평 큰방3개 (거실)주방
- 칠성각20평(목조기와)
- 산신각15평(목조기와)
- 가액 : 3억5천(절충가능)

※ 2차선 도로 절입구까지 연결 여수시내인접

011)254-3037

천하명당사찰부지안내

- 위치: 가평 율길리 임야
- 만평, 평당 3만원
- 37번국도변 100미터
- 폭4미터이상 도로확보

011)320-4060
018)275-880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상림면 산세와 수림이 병풍처럼 우거진 청정도량 임
- 부지 : 5800평
- 법당 : 23평(3년전 준공)
- 산신각, 용왕당 각 4평씩
- 요사채 30평씩 2동(심야전기)
- 가액 : 3억 8천만원 납골당 준비 중 (대구에서 50분 거리)

053)326-4585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사찰안내(토굴)

- 위치 : 지리산청학동
- 부지 : 3300평 ● 토굴 : 30평
- 가액 : 6억 6천만원
- 특징 : 전입로포장공사가 완료된상태이며 가용면적이 지리산내에서는 가장넓은자락으로 납골당 설계타운으로적지입니다.

좋은 인연됩시다 -
동 진 불 사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광명시소재
- 법당 : 30평(안법당)
- 가액 : 보증금500만원 월5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 특징 : 스님개인사정으로인해 저렴한가액으로 양도코저 합니다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태백산 기도도량 사찰안내

●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알을품고있는 형국이며 산세, 암석, 계곡, 절경이 아주 좋음
사찰 100m 앞에는 춘양봉화로 가는 길이 잘되어 있고 큰계곡 유원지가 있음. 사찰부지 1850평 자연돌로 조경이 잘되어있으며 기와건물 50평 지어있고 전기, 전화, 수도 시설도 잘 되어있음 ● 가액: 답사후 절충

018-223-2101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진인동
- 시설 : 삼존불 (용신, 산신, 독성불)
- 부대시설(현장방문)
- 가액 : 5천만원

011)541-998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시청 정문 앞 4층
- 법당 : 총 42평(방2,주방,다용도실)
- 청동,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인등단 모셔져 있음)
- 가액 :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1)349-1586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부근
- 2층건문 45평, 법당20평, 방2개, 거실, 주방, 샤워실
- 화장실은 별도로 있음
- 도로변 근접한 최적지
- 가액 : 전세 5000만원 시설비2000만원

032)517-3001
011)9020-6037

나 무 운 동

고고하고 신비한 운동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신비감과 오묘함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건강 운동입니다.
일명 나무운동이라 일컫죠. 몸과 마음이 개운치 않은 분 관심 가져보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활인건강집 016)794-3859

사 찰 안 내

●위 치 : 김포	●위 치 : 논산
●부 지 : 150평	●법 당 : 20평
●법 당 : 15평	●요 사 : 36평
●요 사 : 20평	●부 지 : 300평
●가 액 : 1억 5천	●가 액 : 1억 1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김해포교당

- 위치: 김해시 내동
- 삼존불(금장불 신중단 종합탱화 영가단 방3칸, 거실大자 2층 대로변)
- 건물 30평
- 가액: 보증금600만원 30만원 시설비 900만원(가격절충가능)

017)842-503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부항면 마을종점
- 대지 : 370평 목조 인법당
- 건물 : 2동
- 가액 : 9천만원

054)437-1857

촌집(암자)안내

- 위치: 경주시내근교
- 평수 : 건평 108평 건물 40평
- 보증금 1000만원 삭월세 250만원 시설물 850만원 (개금불상, 삼존불, 산신각)

054)773-6352
016)898-6352

사찰 안내

- 전철역 10분거리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
- 대지 : 38평
- 특징 : 주택가이면서 주변녹지가 있고 전원주택 같은 외관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수려
- 가액 : 1억 2천만원

016)481-6909
019)276-2388

역학 수강생모집

수강과목 1. 역 학 : 사주, 신수, 궁합, 택일, 건강
2. 성명학 : (작명, 성명감정)

◆ 기 간 : 수시모집
◆ 강 사 : D대학 교수가 직접 친절하게지도 합니다.
◆ 교통편 : 서울 영등포로타리(지하철 1,5호선 3분거리)

성일철학 02-2637-6483 / 02-2637-5266
연구학회 011-9093-5206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깨끗하게
法輪大法(파룬궁)무료전수 안내

- 물질적 삶에는 풍요롭고 충족한 것 같지만 도덕적, 정신적인 면에서는 날로 타락과 지쳐가고 있습니다.
- 온갖 공해와 오염된 물질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당신에게 **파룬궁**은 아무런 댓가없이 당신을 도와 드립니다

문의 019-201-9532 **http://www.falundafa.or.kr**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신도시 중심가 (주엽대로 70m)
- 건물 : 3층 건물 중 3층(20평) 앞뒤로 아파트 단지로 포교원이나 철학관으로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7백만원(시설 A급)

031)919-0306
011)9701-060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마산에서 통영중간 지점
- 부지 : 600평, 법당 : 30평 삼포 목재 단청된 30년 전통사찰 산신, 용왕각
- 부대시설 : 요사채 50평
- 특징 : 노송이 어울려져 경관이 수려하고 시내 인접하며, 절 뒤에서 보면 바다가 내려다 보임
- 가액 : 2억 3천만원(답사후 조정 가능)

011)9384-7893

사찰 안내

- 위치 : 구리시 근교
- 부지 : 약 900평
- 법당 : 30평(목재)
- 요사채 : 150평(3동)
- 양도가 : 15억
- 뒤는 산세 좋으며 서울강남에서 40분거리

011)530-1975

그림같은 별장

- 관세음보살이 출현한다는 남해 관음포
- 최고 명당에 위치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별장
- 대지 500평 현시가
- 평당 15만원
- 현대식건물 1동 30평 건축비 1억 조경비 2억
- 가액 1억 5천만원
- 보시하는 마음으로 양도함

011)841-9934

道通易學 비법전수

천문, 지리에 능통하고 人事에 관계된 모든 사항을 과거,현재는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 할 수 있는 道通 역학의 비법을 인연있는 몇분에게만 속성 전수합니다

02) 3446-4118

관절·통풍 대나무시트가 효과

- ◆ 대나무의 마디가 사람의 마디(관절)를 살린다.
- ◆ 체내와 관절부위의 노폐물과 수독을 배출시키는 대나무시트의 불가사의한 작용
- ◆ 관절통증부위는 폐수에 담겨있는 것과 같다.
- ◆ 혈액 속의 뇨산을 배출시킨다는 대나무의 힘
- ◆ 죽초액이 목초액보다 살균, 소독, 소염 효과가 약28배~40배 높다(일본 교또대학 노무라다가야 박사)
- ◆ 왜 관절에는 대나무가 좋은가(동양의학의 동종요법)
- ◆ 많은 체험자의 뛰어난 효과 증언

3판인쇄 "수액시트 효과의 신비"
한국예술사 간행 ₩6,000 (02)925-4096



대나무 시트 전문 총판

구입자 전원에게
대나무마디 숯가루 무료증정
(체험연구자료증정)

일본 직수입 시트 100매 박스 ₩120,000

조흥은행 359-03-004847

한국목탄연구소 02)925-0300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C.W. (주)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미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발걸음 되시어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시지 못한 일들과 자녀의 행복한 사랑의 결실이 보람찬 한해로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大卒.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방문전 전화 약속

▷ 위 치 안 내 ◁
1호선 부천역 하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희원오피스텔 202호

※ 신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연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휴대폰 : 011)288-2944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

경북

불기 2547년 경북불교대학 18기
서기 2003년 경북불교대학원 14기

신입생 모집

경북불교대학에서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불자들의 불교적 교양향상과 전법도생,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신적 개발을 취지로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새 시대를 여는 지혜 밝은 불자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03년도 대학 18기, 대학원 14기생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인원** : 불교대학 - 1년과정 250명, 불교대학원 - 2년과정 50명
2. **입학자격** : 대 학 - 남녀 학력, 연령 제한없음
   대학원 - 본 대학1년 수료자 또는 동등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3.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3) 사진 2매(소명함판이나 증명사진)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 원서교부 : 2002년 11월 20일 ~ 2003년 2월 20일(90일간)
   (2) 원서접수 : 2002년 11월 25일 ~ 2003년 2월 25일(90일간)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1) 본 대학 교학처(054-632-8226)
   (2) 천보당 한약방(흥천동 번개시장내)(054-631-4623)
   (3) 안양원(상망동 영주여고 옆)(054-636-8877)
   (4) 평화지업사(기독병원 건너편)(054-638-0860)
6. **합격자발표 및 입학식**
   (1) 2003년 2월 25일까지 개별통지함.
   (2) 입학식 : **2003년 3월 8일(토요일) 2시 정각**
   (3) 장 소 : 경북불교대학 강당
   (4) 입학금 : **30,000원(원서제출시 납부해야 함)**
7.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1) 시간 : 매주(대 학) - **금요일 저녁7시~9시까지(2시간)**
   (대학원) - **수요일 저녁7시~9시까지(2시간)**
   (2) 강의내용(교과) : 불교기초이론
   (경전 5교외, 불교기본적 교양상식)
8. **수료 후 받을수 있는 혜택**
   (1) 대 학 : 포교사자격증, 학위자격증
   (2) 대학원 : 포교사자격증, 대덕원호 학위증
   (3) 상의자격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부여 - 법사 등

경북 영주시 영주2동 로알상사 5층
Tel. 054)632-8226 Fax. 054)634-6675

경기 남양주

제 9기 봉선사 불교대학 및 제 26기 봉선사 불교교양대학

수강생 모집

교종본찰 봉선사에서는 2003년도 제9기 봉선사 불교대학 및 제26기 봉선사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하고 함께 공부할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제9기>불교 대학

1. **입학자격** : 봉선사 불교교양대학을 수료했거나 타사찰에서 불교신도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 성인남녀 불자님
2. **입 학** : 2003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3. **교육기간** : 2003년 3월 5일~12월 17일(약10개월)
4. **수 업**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 **교 과 목** : 불교교리, 불교역사, 불교문화, 포교방법론, 천수경, 관음경, 선가귀감, 반야심경, 특강
6.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 3만원(교재 별도 구입)
   - 수업료 : 매월 ₩15,000(일만오천원)

<제26기>불교교양대학

1. **입학자격** : 불교에 관심있는 분이나 불자로써 기본교육을 원하는 성인남녀
2. **입 학** : 2003년 3월 4일(화) 오전 10시
3. **교육기간** : 2003년 3월 4일~7월 22일(약5개월)
4.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120분)
5. **교육내용** : 불자의 예법 및 사찰의 이해, 부처님 생애, 불교 기본교리, 불교역사, 불자의 수행, 불교의 신행생활 등
6.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 3만원(교재 별도 구입)
   - 수업료 : 매월 ₩10,000(일만원)

※ **문의 및 접수처**
- 봉선사 사무실 : 031)527-1951~3
- 입학원서(소정양식) : 사무실 비치(증명사진 첨부)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불교대학 · 불교교양 대학장 황일면**



"불교 제대로 배워 보시지요"

2003년 전국불교대학 안내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싶은 불자!
포교사가 되시고 싶은 불자!
전문교육을 원하시는 스님!
올해는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십시오



인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가호

작법무 강좌안내

(바라춤 · 나비춤 · 법고춤 · 타주춤)

- **교육목표** : 불교의 전통무용인 작법무 가운데 바라춤 · 나비춤 · 법고춤 · 타주춤의 교육 수련을 통해 심신의 건강과 불교무용의 아름다운 예술세계를 접하여 견고한 신심과 바른 생활인으로 거듭 태어나 인천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 **교육기간** : 2학기 과정
- **강 의 실** : 인천 예총회관 3층(무용실) <수봉공원 내>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담당교수** : 김능화(종형)
- **강 사** : 임산조(인산), 김대호(방추), 이준연(보문), 박미정(보현)
- **년학습비** : 100,000원
- **교 재 명** : 한국불교무용 총서 무보집

※ **특 전** : 수료후 성적우수자 전수생 지정, 무보 · 음악제공
※ 수강희망자는 연령과 종교 제한없음, 수시 접수함
※ **후원회원 모집** :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후원회원을 모십니다.
후원회원님께는 전승공연시 VIP초대권을 보내드립니다.
세금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국민은행 : 208-01-0504-542 (예금주 : 한국불교 구양사)
※ **연락처** : 011)346-3389(교수스님), 032)884-8904 (구양사)
[산사음악회, 각종공연행사 문의]
http://www.buddhistdancing.or.kr
e-mail : kuyangsa@korea.com
우)402-014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 4동 7-4 인천예총문화회관 (수봉공원 내) 3층

인천불교문화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가호 보존회

인천

지 선 사
불교교양대학

지선사 불교교양대학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과정** : 불교 기초교리, 포교론, 영상포교, 찬불가, 경전강의 (천수경)
- **개강일자** : 매년 3월, 10월 (첫째주)
- **교육기간** : 6개월
- **강 사 진**
  덕환 스님(지선사 주지)
  김응철 교수님
  (중앙승가대학 포교사회학과 교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 2동 산 48-7
Tel. 032)545-7835
Fax. 032)543-2890

서울

제12기 (출강 · 통신)

법사 신입생 모집

12년의 역사와 전통은 한국불교법사대학의 긍지이며 최강의 교수진과 체계화된 법사교육은 신뢰와 품격으로 돋보입니다.
또한 법사의 정체성과 위상정립은 공인적격으로 인증되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1년
   대법사과정 2년
2. **모집학반** : 출강반, 통신반
3.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부산 학습도량
4. **접수마감** :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1(견지빌딩 3층)
Tel. 02)720-1836, 733-1959
http://pubsa.buddhism.org

경기 안양

안양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부처님 정법을 배워 기도와 참회로써 올바른 생활과 양질의 삶을 위하여 대덕 큰스님과 훌륭하신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기초교리, 기도, 참선 수행법을 지도합니다.

강의일정표

- 원서마감 : 2003년 3월 10일
- 입학식 : 2003년 3월 13일
- 강의내용(8개월 과정) :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천수경, 금강경, 참선수행법
- 강의시간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2시~4시
- 강의료 : 10만원

교 수 진

- 전 해인사 주지, 동국대학총장, 조계종 원로위원, 현 가산 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 큰스님**
- 지장선원 회주, 해인사 주지 **세민 큰스님**
- 동국대학 교수 정각원장 **법산 큰스님**
- 동국대학 교수 **현각 큰스님**
- 중앙승가대학 교수 **태원 큰스님**
- 동국대학 사회교육원장 **권기종 교수**
- 불자 탤런트 겸 가수 **최영준**

※ **접수처 : 대학 사무실**
Tel. 031)444-5935~6
Fax. 031)444-5655

※ **동참하실 분은 미리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불교대학장 지장선원 주지 현 호 합장

경기 고양

노적사 불교교양대학

제 5기 수강생 모집

♠ **교육목적** :
불자들의 자질향상과 신행완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불교교리를 교육

♠ **개 강 일** : 양력 3월 2일(일)

♠ **교육기간** : 3월부터 6월까지(4개월)

♠ **교육시간**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셋째주 수요일 오후 2시

♠ **교 육 비** : 4개월 전과정 6만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Tel. 02)353-5016, 353-4924
Fax. 02)386-4198

노적사 주지 종 후 합장

경기 고양

일산 원각사 불교대학

원각사 불교대학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과 정**
불교대학 - 초심자를 위한 교육
경전반 - 불교대학 졸업자를 위한 교육

■ **개 강**
매년 3월 첫째주 (1학기),
9월 첫째주 (2학기)

■ **교육기간** : 6개월

■ **강 사** : 정각스님
(동국대 강사, 원각사 주지)

■ **문의** : **홈페이지** www.wongaksa.or.kr
전 화 031-913-774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SBS방송국 옆

원각사 주지 정각 합장

경기 고양

흥국사 불교대학
제2기 수강생 모집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흥국사 불교대학은 불교에 처음 입문한 분이거나 불교를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불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은 불자여러분들을 보다 행복한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모집기간**
불기2547(2003)년 1월~3월 1일

▣ **개강일시**
불기2547(2003)년 3월 2일(화) 오전 11시40분

▣ **강의시간** (4개월 과정)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40분 ~ 오후 1시

▣ **강 사**
흥국사 주지(대오스님), 동국대 차차석 교수

▣ **수 강 료**
40,000원(교재비 포함)

▣ **문의 및 접수**
흥국사 종무소 02)381-7970

대한불교 조계종
약사도량 구파발 흥국사 주지 대오 합장

서울

선 택!
대원불교대학

"왜 대원불교대학인가?"

- 30년 전통(불교계 최초설립)
- 전임교수진의 책임교육
- 지도교수제 도입으로 책임교육
- 동국대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교과과정 (연간 24과목 : 240강의)
- 철저한 학사관리
- 저렴한 교육비
- 신심깊은 도반과의 만남
- 불교 전통의식 실습

어렵게 발심한 불교공부 따져 보고 해야 합니다.
어려운 불교를 알기쉽게 효과적으로 배울수 있는 특별한 기회 !

▣ **모집과정**
법사과정, 정규과정, 교양과정, 통신과정, 인터넷사이버 과정

입학상담 : Tel 02)754-1613, 773-9171
홈페이지 주소 : www.idaewon.or.kr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특수학교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생모집 요강

본 학교는 어산작법(범패 · 무용)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작법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한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 **모집학과**
1) 어산과(불전의식) : 일용의식, 상용의식, 제반의식
2) 재가포교사반 : 독경의식, 정근의식, 예불의식, 수계의식, 법회의식, 평생의례

※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합격한 자

※ 본 학교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스님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졸업장과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짐

■ **응시자격**
어산과 : 종헌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비구(니)

■ **접수일자**
2003년 1월 ~ 2003년 2월 28일까지 (우편접수도 가능)

■ **면접일시**
2003년 3월 4일 (화) 오후1시

■ **문 의 처**
- 교학처 02)921-3425 교무국장 011)261-6809
- 재가포교사반 02)737-7588

■ **원서교부 및 접수처**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7번지 보타사내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서울

2003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3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 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고
기본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조 · 석예불, 불공의식, 시식	20명	6개월
전통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재의식 (정안 및 제공의식)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 **응시자격**
다음 사항 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4회(月~木)**
▶ **접수일자 : 2003年 1月 17日 ~ 2月 18日**
▶ **개 강 : 2003年 2月 19日**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우)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 산** 합장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서울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 모집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체계를 세워 정리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 학생을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란다 삼장불학원에서는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스님과 출가 희망자들을 위하여 학인을 모집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나란다 삼장불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2003년 3월 3일
모집인원	무제한	무제한	30명
수업년한	2년(4학기)	경 · 율 · 논 · 선학부 각 1년	사미 · 사집 · 사교 · 대교 각 과정별 6개월
수업방법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 2회 출석 : 합숙교육)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 2회 출석 : 합숙교육)	매주 1일 출석수업
지원자격	불교를 적극적으로 신행하는 분	불교통신대학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 소지자	출가수행 및 사암 · 포교원을 운영하실 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원서교부	수 시	수 시	2003년 2월 28일까지
전형방법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
특 전	·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포교활동을 지원 · 사찰운영 행정지원	· 법사 · 포교사 자격증수여 포교활동을 지원 · 사암 ·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2003년 8월 국제수계 참가 자격 부여 · 출가수행, 사암 ·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 기숙사입사 희망자(10명) 집중수련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김호암 스님, 남진각 스님, 혜인 스님, 김진하 스님, 김진궐 교수님, 이지행 교수님, 김익순 교수님, 서무선 박사님		

한국불교 통신대학 · 대학원,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 장 **활 안(한정섭)** 대학원장 **호 암(김정수) 합장**
문의처 (02)969-2410, 4918 / 팩 스 (02)964-2433

통도사 본말사 연합신도회 사무실 개소…각종행사 주관

교구 본사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6일 창립된 통도사(주지 현문) 본말사 연합신도회(회장 장복만)가 17일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통도사 본말사 연합신도회는 서울, 부산, 양산, 울산, 마산 등지의 130여 본말사에 등록된 2만여명의 신도를 대표하는 기구로 통도사의 크고 작은 행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통도사 본말사 연합 신도회는 앞으로 사무실에 상근 직원을 두고 신도회가 조직되지 않은 말사를 파악하고 조직을 이끌어 내는 한편, 연합신도회 전체 모임, 신도회 임원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통도사 포교국장 오심스님은 "전국 6개 도시의 말사 신도회의 통합과 화합으로 통도사의 발전은 물론 지역 신도회 활성화의 증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문화유적강좌 3월 개최 신라문화원 시니어클럽

경주 신라문화원 시니어클럽은 문화유적 강좌를 3월 5일 개최한다.

4개월 과정으로 주2회 진행될 신라문화원의 문화유적 강좌는 2개월은 신라문화원 강의실에서 전문 강사들의 강좌가, 나머지 2개월은 경주일원에서 현장답사로 진행된다. 강좌를 수료한 시니어들은 유급 또는 자원봉사로 경주지역의 문화유적 안내를 담당하게 된다.

문화유적강좌는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교재비를 제외한 참가비는 무료.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시니어들이 문화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니어클럽 전화 054)775-1950

박원구 기자

경북 전통사찰·고분·탑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경상북도가 최근 전통사찰과 탑, 성곽, 고분 등의 중요문화재 수리자료인 <문화재 수리보고서>를 발간했다.

총 5천여만원 예산을 투입,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에는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총 220건의 사찰 등 지방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상세한 수리내용과 함께 설계도면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하고 있다. 앞으로 이 보고서는 문화재 수리와 고건축 등의 문화재 학술연구 작업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원구 기자



◇3월26일 전적 목판전문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개관한다. 사진은 완공된 지하1층 지상1층의 성보박물관전경.

범어사

성보박물관 3월26일 문연다

삼국유사 등 소장 유물 도록·해설서 펴내

108평 전시실에 선종영가집 등 100여점 전시

3월 26일 문을 여는 전적 목판전문 박물관인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이 개관을 앞두고 소장 유물의 도록과 해설서를 펴냈다. 성보박물관이 소장 유물 도록을 펴낸 것은 통도사 성보박물관과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이어 세번째다.

21일 선보인 270쪽 분량의 도록에는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과 의상대상 영정, 삼국유사 등 대표적인 유물 177점의 사진과 개괄적인 설명이 담겨 있다. 유물의 조성 동기와 학술적 의의 등은 해설서에 담았다. 이번 도록과 해설서 발간은 관장 경선 스님과 나철희 학예연구원(前 경성대 한국학 연구소 상임 연구원)이 실무를 맡아 진행했다.

한편 3월 일반에 공개될 성보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108평 규모의 전시실과 50평의 수장고, 학예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실에서는 범어사 창건기와 선종영가집, 삼국유사 등의 고서와 동산 스님 유품 등 100여점이 전시된다. 최근 보물로 지정된 삼국유사 외에도 시지정 문화재 26점을 비롯, 여느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걸개 형식의 대형 사천왕상과 큰스님 영정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경선 스님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보박물관이 불자들의 신심을 고양시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수행은 질병 근본치료에 도움"

삼광사서 한의학 강의 박경일 동의대 교수



"한의학과 불교는 일맥상통합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가 건강의 척도가 되듯이 불교의 수행도 그와 같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한의학의 기본입니다."

지난해 9월 개강한 삼광사 한의학 강좌를 맡아 온 박경일(47·사진) 동의대 한의학과 교수는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불자들의 신행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과로 인해 모든 일이 생기고 없어지듯, 병 또한 증상 치료보다는 병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어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 교수는 "삼광 한의학 과정을 통해 평소의 식생활, 태도, 마음가짐 등 생활 전반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월 종강을 앞두고 있는 삼광 한의학 과정은 한의학의 기본 개념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하는 박 교수의 해박한 강의로 수강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70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삼광 한의학 과정은 3월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051)808-7111 천미희 기자

명상 중급과정 교원 연수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

지난해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명상전문 지도자과정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사)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회장 김석조)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불교교육대학 강당에서 명상 중급 과정 교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중급 명상 과정에 참석한 80여명의 교사들은 방학을 맞아 (사)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원 직무연수 특수분야에 참여해 명상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다.

다양한 명상체험으로 교원들의 자아발전과 교육관 재정립을 위해 마련된 명상전문지도자 과정은 초급과 중급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7일부터 17일까지는 초·중·고 교사 84명을 대상으로 초급과정이 실시됐다.

명상 지도자 이선, 곽승현씨의 지도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사)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가 마련한 세 번째 교원 직무연수다.

천미희 기자

원효불학원 사미승 모집

원효종 최초의 승가대학인 원효불학원(원장 영운스님)은 2년 과정으로 사미승을 모집한다.

대중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원효불학원은 초발심자경문에서부터 치문, 서장, 대승기신론별기 등 학인들이 갖추어야 할 전반적인 교과목을 공부한다.

입학식은 오는 3월 4일 경주시 어림산 복원사 원효불학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전화 (054) 745-3646.

박원구 기자



◇한나래문화재단이 19일 개최한 연날리기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30여명이 전통 연을 만들고 있다.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

마산·창원 불교련, 저소득 가정에 성금 전달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태)는 23일 창원 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저소득 가정을 초청, 성금 2천 만원을 전달하고 위안하는 모임을 가진 이날 행사에는 마.창불교연합회 회장 지태스님, 원로 지원스님을 비롯한 신행단체장과 저소득층 가족 50세대가 함께 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자비의 장 행사에 이어 나눔의 장 행사에는 노화순 사단법인 금강자비원 이사장, 이점호 경남문화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2003년 마산 창원 불교 활동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지태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천하는 것이 불교연합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2003년에도 그늘진 곳에 관심을 기울이는 불교연합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문화재관리 우수기관 문화재청, 고령군 선정

고령군이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령군은 지난해 전통사찰 관음사와 반룡사에 3억여원을 지원하고 관내 문화재 관리 및 보수사업에 6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는 등 지역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박원구 기자

외국인 30여명 연만들기 연 날리며 즐거운 한때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스님)은 19일 부산 신창농원에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연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30여명의 외국인들이 함께 해 방패연과 가오리연을 만들고 그 연에 소원을 적어 날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국 전통문화를 통해 외국인 포교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한나래문화재단 국제 포교부가 매월 셋째주 일요일마다 갖는 이 행사에는 연등 만들기, 녹차만들기, 발우공양 등 다양한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천미희 기자

불국사 석가·다보탑 조각

아사달 추모비 건립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을 조각한 석공 아사달의 추모비가 건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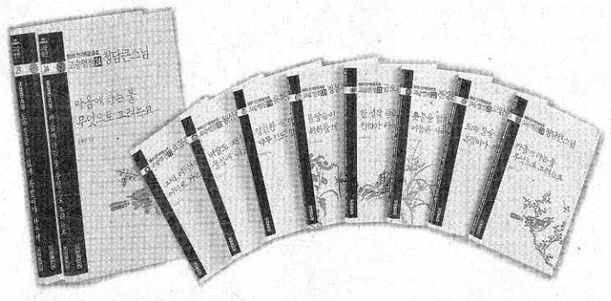
경주지역 석공들의 모임인 경석동우회는 오는 9월 경주 문화엑스포 기간에 맞춰 아사달을 기념하는 추모재를 개최하고 불국사 부근에 비문과 부조를 새긴 아사달 추모비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동우회 관계자는 "추모비는 당간지주 형태의 2개의 화강석 가운데 아사달의 예술혼을 상징하는 검은 돌을 설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추모비 건립과 함께 석공의 스승인 아사달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눈 있는 자 보아라! 여기 고승들의 회통(會通)치는 소리가 있다

소설로 읽어보는 큰스님들의 큰 삶, 은은한 감동의 세계로 독자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BBS 인기방송 프로

고승열전

윤청광 지음 / 신국판 / 각 권 300쪽 내외 / 각 권 값 10,000원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낱권으로도 판매합니다.

저자 윤청광은 MBC-TV 개국기념작품 공모에 소설 〈末島〉가 당선되었으며,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거쳐 현재 〈법보신문〉 논설위원, 법정스님이 제창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본부장, 출판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고 다수의 작품들이 있다.

고승열전

아도화상 • 향은 제 몸 태워 온 세상 향기롭네
겸익스님 • 버리고 사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일세
원광법사 • 인생은 한 토막 꿈이로다
자장율사 • 백년도 못사는데 무얼 그리 탐내는가
원효대사 • 걸림없이 살게나 물처럼 바람처럼
의상대사 • 마음을 비우시게 온갖 근심 사라지네
보덕스님 • 지혜의 눈뜨면 행복이 열리거늘
진각국사 • 부처되기 쉽다네 자비롭게 살게나
일연큰스님 • 그대 몸안에 있는 여섯 도둑부터 잡으시게
원감국사 • 극락도 지옥도 마음속에 있다네
경허큰스님 • 착한 일 많이 하게 그대가 부처일세
용성큰스님 • 작은 솔씨가 푸른 소나무 되네
영호큰스님 •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네
만공큰스님 •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롭네
한암큰스님 • 바구니에 물을 담고 달려가누나
만암큰스님 • 마지막 입는 옷엔 주머니가 없네
효봉큰스님 •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동산큰스님 • 벼슬도 재물도 풀잎에 이슬일세
운허큰스님 • 영원한 내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네
경봉큰스님 • 돌장승이 허허롭게 웃누나
금오큰스님 • 한 생각 돌리면 천하가 다 내 것일세
전강큰스님 • 촛불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진다
고암큰스님 • 도(道) 물을 것 없네 복발이나 가꾸게
청담큰스님 • 마음에 타는 불 무엇으로 끄려는고

재미! 감동! 교훈!

당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위대한 스승들의 포근한 가르침! 전국 불교방송 애청자들을 열광시킨 〈고승열전〉!

고승들의 선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있음을 이 책에서 맛볼 수 있게 한다.
- 암도스님(전 포교원장 • 백양사 청량원) -

〈고승열전〉을 통하여 불교의 진수와 만난다. 허허롭게 웃는 돌장승이 내 앞에 다가서고, 마음에 타는 불을 끄게 한다.
- 맹난자(수필가) -

한 번은 꼭 읽어 보라! 친근하고도 박진감 넘치는 고승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를. 그 재미와 감동은 손에서 쉽게 책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 박경준(동국대 불교학 교수)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E-mail / woribook@chollian.net

“회암사지 道사업비로 정비 寺址발굴·보존 모범사례”

손학규 경기지사 지역발전 인프라로 구축

양주군, 토지매입비등 예산 580억 지원 요청

유물전시관 건립…토기류 제작 체험실 등 설치

양주 회암사지(국가 사적 128호)가 전국 사지 발굴 및 보전의 모범사례로 정비된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1일 임충빈 양주군수 등과 회암사지 발굴현장을 둘러보고 “회암사지를 경기도 사업으로 확정, 국내 문화재 발굴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지사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인 만큼 양주군은 회암사지가 지역발전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밑그림을 그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군은 이날 회암사지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2백44억원, 발굴조사비 33억원, 유구정비 1백29억원, 전시관 건립비 1백억원, 기타시설물 설치비 74억원 등 총 580억원의 예산에 국비와 도비의 지원폭을 늘려달라고 손 지사에게 요청했다.

양주군은 회암사 정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2008년까지 580억 들여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10만 평)외에 사유지를 매입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추가 발굴조사, 유물전시관 건립, 발굴된 유적지에 대한 정비 등 대대적인 보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 689종에 이르는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1층 550평 규모의 유물 전시관을 건립계획을 설명했다. 유물전시관에는 회암사 역사 등을 알 수 있는 회암사실, 토기류를 제작 해보는 체험 교육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회암사지는 고려 충숙왕 15년(1328년) 원나라를 거쳐 인도에서 온 지공스님이 아라난타사(阿羅難陀寺)를 본떠서 창건한 266칸의 대규모 사찰이었다. 고려 말 3천여 스님이 수행하던 총본산이었으며, 조선 초에는 태조 이성계가 태상왕으로 물러나 무학대사와 수행했던 왕실사찰로 유명하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佛외교관이 본 개화기 한국불교

경기도박물관 ‘먼나라 꼬레’ 사진전



◇대웅전에 왕족의 목조원패를 모셨음에도 임시로 천을 드리운 불단이 조선불교의 퇴락한 위상을 보여준다. 사진은 서울 근교의 한 사찰 모습.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국 불교의 첫인상은 어떠했을까?

지금 경기도박물관에서는 ‘먼 나라 꼬레’(~3월 2일)전이 열리고 있다. 1892~1894년까지 제2대 조선 주재 프랑스 영사 및 전권 대사를 지냈던 아폴리트 프랑뎅이 직접 촬영하거나 수집한 사진 156장 속에는 개화기 스님들의 모습과 서울 근교 사찰을 담은 사진 5장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대웅전에 왕과 왕세자, 왕비의 목조원패(木造願牌)를 모셨음에도 임시로 천을 드리운 듯한 불단의 모습은 퇴락한 조선불교의 위상을 확인하게 한다(사진).

이 사진의 가감 없는 기록성은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1895년까지)된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증언한다.

1904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 북한산 중흥사 전경이나 당시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 중 하나였던 세검정 백불사의 모습도 파편적이긴 하지만 당시 모습을 재구성하게 하는 하나의 단서이다.

전시 기간중 ‘프랑스 내의 한국 문화재 현황’ 등에 관한 학술강연회도 2월 14, 18일 열린다. 권형진 기자

도솔암 마애불 보존방안

전문학술기관 연구용역

고창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국보 1200호)의 보존대책이 마련된다.

고창군은 23일 선운사 도솔암 미륵좌상 마애불의 보호각 건립 등 향후 복원 및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억여원을 들여 전문학술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피스로드’ 캠프 열어

광주나눔의 집, 24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은 24~26일 역사와 인권을 위한 평화교육 캠프 ‘피스로드(Peace load)’를 열었다.

10여명의 중·고교생들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역사관 관람,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은 비디오 상영, 인권영화제 영화 상영, 성매매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박봉영 기자



◇피스로드 캠프에 참가한 한 여학생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정 앞에서 헌향하고 있다.

“마을 일도 포교·수행 방편”

옥천 이평리 이장 도광스님



“시급한 마을 숙원사업인 배편부터 마련하겠습니다”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오지 마을이 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최근 이평리 주민들이 마을회의에서 이장에 도광스님(49, 보현사 주지)을 선출했다.

본격적으로 마을 일에 나선 스님은 “댐이 들어서면서 세부분으로 나뉜 마을을 쉽게 왕래 할 수 있는 배편 마련 및 마을까지 버스를 다니게 하고, 마을회관을 짓겠다”며 “힘들어도 면 단위 이장회의에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작은 일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승려가 세속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수년전부터 마을주민들의 청을 한사코 거절한 도광스님은 ‘봉사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생각에 결국 수락했다. 80세 이상 노인들만 남은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들어가는 도광스님 말고는 달리 뾰쪽한 수가 없었다. 이평리 이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도는데만 30리, 면사무소까지 50리를 걸어야 하는 고된 업무를 80세의 노인이 처리하기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1976년 출가한 도광스님은 통합불교 아미타종 총무원 부원장이다.

김원우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초심자를 신도로’ 일등 노하우

대구청계사 신도회 윤상완·최성희 부부

대구 월드컵경기장 뒤 약 1.5Km의 산길을 오르면 막바지 불사가 한창인 청계사(주지 설정)가 나온다. 이곳에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법당에 나타나 하룻밤 동안 불단에 쌓인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참선과 108배를 통해 마음 속의 티끌을 털어내는 윤상완(66, 보산)거사와 최성희(63, 구품화)보살.

부부 불자인 윤 거사 부부는 2년간 1시간 거리인 청계사를 찾아 수행과 포교를 계속해 왔다.

특히, 윤 거사 부부는 절에 처음 온 초발심자들을 소위 ‘청계사 신도’로 만드는데 일등공신이다. 이들 부부의 노력을 열매를 맺어 청계사 신도회가 탄생되기도 했다.

윤 거사는 절을 찾는 초심자가 있으면 관심을 보이는 일부터 시작한다. 보통 절을 찾는 초심자들이 낯설고 쑥스러워하다 이내 돌아가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윤 거사는 이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 절과 참선하는 법 등의 기본 예법에서부터 기초적인 불교교리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제가 처음 절에 갔을 때 아무도 불교에 대해 설명해 주질 않아 자칫 귀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할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20년전 기억을 생각하면 아찔하다는 윤 거사는 요즘 절을 지나는 등산객들에게까지 불법을 전한다.

윤거사의 부인인 최 보살도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신도들을 이끌어주는 큰언니 역할과 공양간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 부부가 안과 밖에서 일심으로 수행정진하는 것을 본 기존의 신도들도 자극을 받아 요즘은 청계사에는 법회 때 함께 오는 부부불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낯설고 쑥스러워하는 초심자 찾아

절·참선법·교리 등 알기쉽게 설명

“처음 이곳 청계사를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산속에 다 쓰러져가는 토굴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홀홀단신 생활하며, 2층 규모의 대법당으로 중창불사를 하고 계신 주지 설정스님의 노력에 비한다면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윤 거사 부부. 이들 부부는 “언제까지나 청계사 평신도로 남아 어렵게 만난 부처님의 귀중한 법을 항상 실천하며 살고 싶다”며 다정하게 손을 잡았다.

대구= 박원구기자



◇윤상환 거사(왼쪽 두번째)와 최성희 보살(왼쪽 세번째)이 청계사 신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추천의 말

설정스님 청계사 주지

“모두 소중한 신도님들이지만 특히 윤 거사 부부는 우리 청계사의 보배입니다.”

이제 곧 낙성식을 가지게 될 청계사 대웅전 중창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들 윤거사 부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윤거사 부부가 다른 신도님들에게 큰형님, 큰누님 역할을 해주며 신도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런 공을 인정해 신도회 간부라도 맡아달라고 하니 거절하며 신도회가 잘 되도록 뒷바라지 하는 일에만 만족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윤거사 부부는 진정한 불자입니다.

신도회에 활력 불어넣어

화엄학림 제8기 학인 모집 안내



실상사 화엄학림은 『華嚴經』의 탐구와 실천을 통하여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고 새 시대의 승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2년 과정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의 인가를 얻어 1995년 처음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7기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림의 수업은 간경을 한문 글새김에 그치는 오늘날 한국불교 강당의 경학 풍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는 경전이 담고 있는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수행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가지 못합니다. 경전을 보는 것이 곧 수행과 하나되지 못하고 실천과 괴리된 지식에만 머물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학림의 강사를 중심으로 학림의 졸업생들이 모여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하는 주제로 2001년 초부터 2002년 말까지 화엄결사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화엄학림의 수업은 경전의 자구 해석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된 경론을 교재로 삼아 공부합니다. 경전의 사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각 단원의 개요를 파악하고 주요 논점을 잡아 집중 토론하는 형식으로 논강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한문원전의 독해를 위한 별도의 전문강좌를 갖습니다.

이처럼 『華嚴經』을 통해 불교의 사상을 확립하고 자신의 수행을 바로세워 가고자 하는 스님들의 동참을 아래와 같이 바랍니다.

아 래

◈ 교 과 목 : 중관개론 · 유식개론 · 화엄관행문 · 화엄사상사 · 화엄현담 · 화엄경(80화엄) · 한문독해.
◈ 응시자격 : 기본교육기관(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불교학부, 기초선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구, 비구니 혹은 사미, 사미니.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서 1부 •사진 5매(반명함판)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각 1매
◈ 원서교부 및 접수일자 : 2002년 9월 23일 ~ 2003년 2월 21일
◈ 원서교부처 : 실상사 화엄학림, 종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http:// www.silsang.net
◈ 접 수 처 : 화엄학림, 실상사 종무소
◈ 전형일시 : 2003년 2월 22일 토요일(음 1월 22일) 오후 1시 실상사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입학일시 : 2003년 3월 1일 토요일 (음 1월 29일)
◈ 문의전화 : (063) 636-3990 · 3994 · 5920 (화엄학림), 636-3031(종무소)

※ 입학 예정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학일 이전에 미리 와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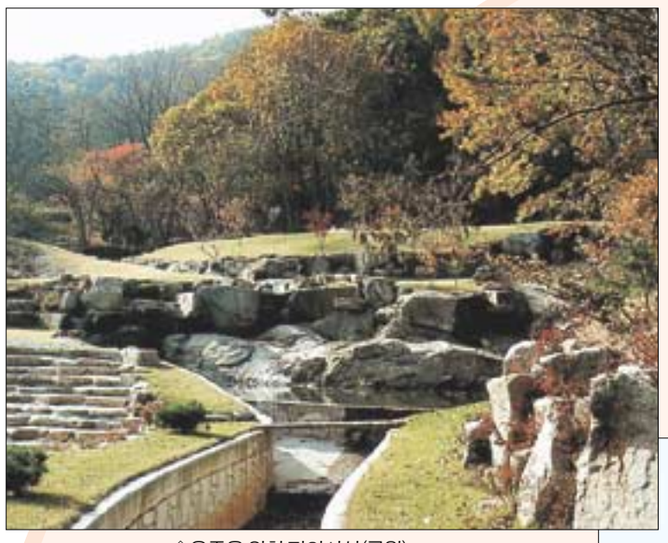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지리산 실상사 (우.590-850)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도 법

불교 전통추모시설

목련관

목련존자 원(願) 기린 영원한 영가 안식처



◇유족을 위한 편의시설(공원)



◇아미타불을 모신 목련관 법당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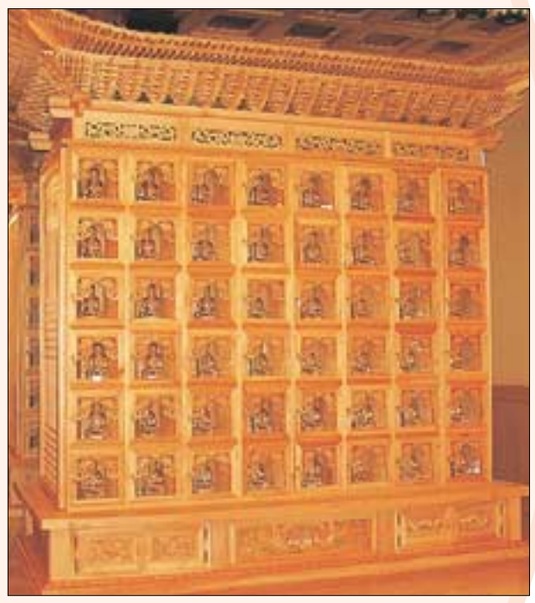


◇영탑



◇용학사 경내의 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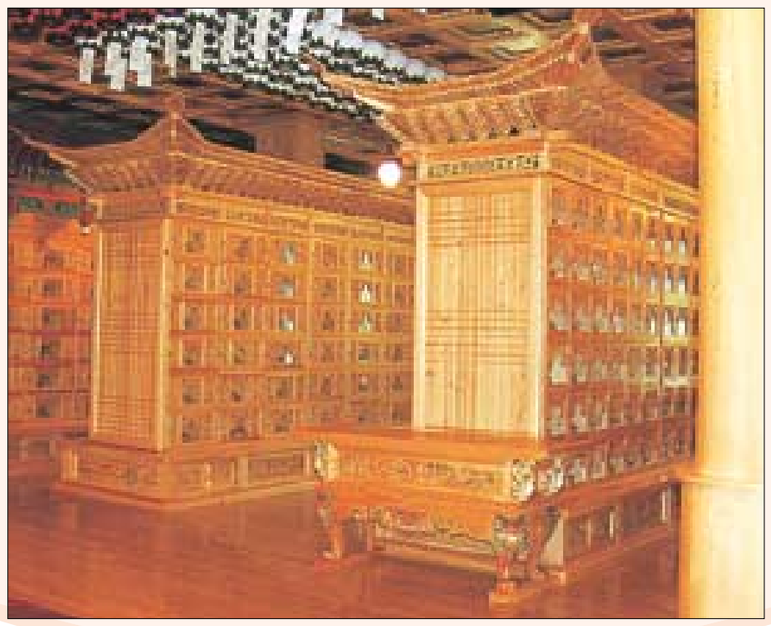




◇추모단



◇목련관 사무실 전경



◇목련관 내부



◇유골함

‘대중속 불교’ 되도록 노력

이천 용학사 주지 혜봉스님



▲이천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이시기도 한데요, 올해 계획은?

–이천 도자기 엑스포때 연합 연등행사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 사암련은 회원들의 강한 결속력으로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회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목련관은 일반 납골당과는 다른 각별한 추모시설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족들의 효심과 스님들의 지극한 발원이 영원히 이어지는 불교전통 추모시설로 장기적인 계획아래 영가와 생존후손들이 함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회복지활동에서 중점으로 삼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법인 마야원이 대표적입니다만, 복지는 가족의 개념에서 전개될 때 완성된다고 봅니다. 무의탁노인은 집안의 할머니가 되고, 복지요원은 아버지 형님이 되고, 고아들은 자식으로 하나의 가족공동체로 구성될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무간지옥서 고통받던 어머니 목련존자 효심으로 극락왕생

목련관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제한 효(孝)행을 오늘에 기리고 본받아 영원한 영가 안식처로 조성한 납골법당 입니다.

왜 ‘목련관’ 인가?

목련존자는 출가한 이후 신통력으로 어머니가 아귀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살생과 음주 등 방탕한 생활로 탕진하고 그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어머니를 구제할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음력 7월보름 출가스님들이 모였을때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면 불보살과 스님들의 위신력으로 해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존자가 그대로 행하자 마침내 어머니는 7월보름 지옥에서 해탈했고 이후부터 이날과 목련존자의 효행을 기려 우란분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목련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부모와 선망조상을 생각하여 이고득락하도록 공양을 올리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는 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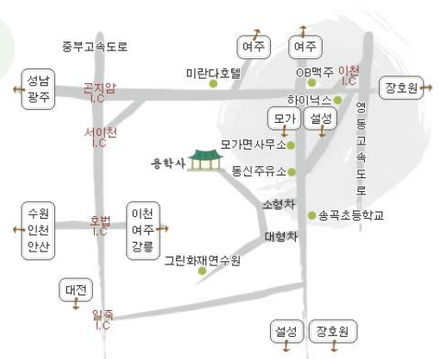
목련관에 납골을 안치하면 좋은점

▣극락세계 부처님이신 아마타불을 모신 법당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모실 수 있습니다.

▣안치된 납골 모두는 매일 스님의 기도 염불을 듣게 됩니다.

▣시제사나 기제사를 절에서 저렴하면서도 정성스럽게 모실 수 있습니다.

용학사 가는길



이천 교통요지의 영험도량 사회복지법인 마야원 운영

용학사는…

불교 전통 추모시설 ‘목련관’이 자리잡고 있는 용학사는 예로부터 재해 및 재난이 없는 평화로운 고장 이천의 유명한 기도 영험도량입니다.

특히 지역적인 특성상 남북의 중부고속도로, 동서의 영동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고, 서울과 충주를 이어주는 국도 3호선, 수원과 여주를 잇는 국도42호선이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기도 합니다.

당초 용학사는 선덕사라는 이름뿐인 폐사지나 다름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여년전 현재 주지이신 혜봉스님의 인연으로 용학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혜봉스님은 20년전 만행길에 머물게된 지금의 용학사 산신각에서 정진하던중 비몽사몽간에 날개옷을 입은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대웅전 우측 기둥쪽으로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스님이 하도 신기해서 기둥을 만졌더니 갑자기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스님은 용학사로 중창하기로 원을 세우고 불사에 착수해 대웅전 산신각 극락전 범종각 등을 세워 도량의 면모를 갖췄으며, 사회복지법인 마야원을 운영해 복지불사도 펴고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469-4
전화 (031)632-4885, 634-5728

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자연보다 좋은 놀이터 있나요?

전통문화체험 '놀자학교' 만든 이 점 원 교수

찬바람이 불어대는 한겨울 경주 아화읍의 한 폐교 교정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뜀박질에 열중이다. 자세히 보니 요즘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굴렁쇠 놀이. 다른 한켠에서는 서로 팔짱을 낀 여자아이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하는 전래놀이를 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 같아도 어느 학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이들 뛰노는 평범한 모습이 이젠 향수를 자아내게 하는 풍경들로 변했다.



◇컴퓨터 같은 놀이기구 없이는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어 '놀이학교' 를 연 이점원 교수.

"땡, 땡, 땡"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에 정신을 빼앗겨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들려온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에 아이들은 서로 먼저 들어가려는 듯 서둘러 교실로 향했다.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서자 맘씨 좋게 생긴 '놀자학교' 이점원 교장선생님(동국대 교수, 조소과, 53)와 '할머니' 이경애 보살(51)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들을 맞아들였다.

책상과 의자들이 닥지닥지 붙어있는 좁다란 교실의 사방 벽면엔 아이들이 만들었음직한 얼음썰매 등 전통놀이감들이 매달려 있다. 장작난로 위에는 양은도시락들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구수한 내음을 풍긴다.

이곳은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점원 교수가 만든 경주 전통문화체험학교. 아이들과 주위 사람들에게는 보통 '놀자학교' 로 불린다. 1995년 폐교돼 이후 7년이나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천촌분교가 이점원 교수 부부에 의해 전통놀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대도시서 매주 200명 찾아

"컴퓨터 같은 놀이기구 없이는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문을 열었지요."

지난해 7월 19일 개교한 놀자학교는 요즘 아이들이 접하기 힘든 우리 옛 놀이들을 체험하고 솟대, 장승, 연, 제기, 팽이 등을 직접 만들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 놀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교수 부부가 정성껏 마련한 공간이다.

2001년 8월 이 교수 부부가 처음 천촌분교에 왔을 때만 해도 운동장은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있고, 교사 천장은 무너져 하늘의 별이 다 보일 정도였다.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 이 교수는 직접 재료를 구해다 천장도 고치고 문짝도 새로 만들고, 잡풀만 무성했던 아담한 운동장엔 마사토를 깔았다. 또, 정문엔 솟대와 허수아비를 세웠다. 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20평짜리 교실 3개는 전통놀이 기구 제작실과 강의실, 그리고 잠자는 방으로 꾸며졌다. 이렇게 학교 건물을 수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따져도 약 1년의 기간동안에 2천5백여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이 교수는 전통문화체험학교를 찾아오는 아이와 부모들에겐 전액 무료로 재료를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료비와 운영경비로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찮아 이 교수 부부의 얼굴에 수심이 생길 즈음, 이곳을 방문했던 학부모들이 스스로 천사회(천촌분교 놀자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만들어 매달 재료준비와 운영비를 보태고 있어 그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아침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학교는 알음알음으로 전해들은 부산, 대구, 서울, 포항 등지에서 매주 어린이 200여명이 찾아 오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 개교이래 하루도 쉰 적이 없다.

부처님 일대기 조각공원 꿈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한 이틀쯤 푹 쉬면서 좋은 전통놀이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숙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전에 관사로 쓰던 50여년 된 낡은 집을 수리해 사용하려는데 비용이 적지 않아 쉽게 시작하질 못하고 있어요."

이 교수가 이렇게 전통문화체험학교를 연 것에 대해 주변에선 별로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교수가 평소 자신의 작품 작업할 때도 우리 전통적인 소재를 즐겨 사용해 왔으며 아이들을 위해 놀이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기 때문이다.

부인 이경애 보살도 "1년 단위로 교육청에 재계약을 할 때마다 까다로운 서류준비로 마음 고생이 심하지만, 언제나 까르르 웃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매번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거든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하게 된 연유에 대해 묻자 이 교수는 "늘 작은 것이라도 베풀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돈이 없으니 이렇게 시간과 애정이라도 우리 아이들과 나누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자연을 벗삼아 놀며 어린시절을 보낸 이점원 교수는 자연 그 자체가 커다란 놀이터였던 그때의 기억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회상한다. 놀자학교에서 만든 얼음썰매, 연, 팽이, 솟대, 토기 등의 전통놀이 도구들은 모두 이 교수의 어린시절 경험을 되짚어 만든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 97년 제3회 '오늘의 미술가상' 을 수상할 정도로 미술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조각가다. 그의 예술세계는 물레, 홍두깨, 방망이 등의 전통적인 재료를 통해 잊혀져 가는 것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외길을 걷고 있다.

이 교수는 "강원도 쪽에 석가모니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 매일 아침 경주 남산의 암자를 찾아 참선을 하고 있는 독실한 불자인 이 교수는 "대형 불상 보다는 아주 작은 불상과 고행상 위주로 만들고 싶어요. 부처님 일대기 조각공원에는 후

물 · 도시락 준비해 입교

대에 남겨줘도 부끄럽지 않을 성보가 되도록 하나하나 개성있는 불상을 조성할 것입니다."

경주전통문화체험학교를 찾아가기 위해선 건천IC에서 영천방면 5분쯤 아화농협이 나오면 농협을 끼고 좌회전 한다. 10여분 농로길을 따라가다보면 길 왼편에 태극기가 걸려있는 천촌분교가 나온다. 예약은 받지 않으며, 마실 물과 도시락은 필히 지참해야 한다. (054)745-2685

경주=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ypark@buddhapia.com



◇이점원교수가 찰흙을 이용해 얼굴을 만들고 있는 어린이에게 자상한 지도를 해주고 있다.

관인 제 1348호 이정순 무용학원

불자님 자녀의 예술적 진로를 책임집니다!





전통과 권위를 지켜온 전문인이 예원 · 예중 · 예고 · 대학입시 100% 합격이라는 노하우를 갖고 최고의 강사진들과 새로운 무용 교육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6가지 교육원칙
-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마음씨
- 유연한 신체
- 신체 교정
- 자신감과 표현력을 통한 자기 발전
- 귀족적이고 지적인 예술 감각
- 창의성, 예술성, 감수성 발달 등의 기본원칙으로 가르칩니다.

수강내용
1. 문화재 및 전통 작품
승무(중요무형문화재 27호) / 살풀이(중요무형문화재 29호) / 태평무(중요무형문화재 92호) / 나비춤(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중) / 바라춤(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중) / 진도북춤(중요무형문화재 18호) / 진주검무(중요무형문화재 제 12호)
2. 한국무용 작품
부채춤 / 화관무 / 장고춤 / 무녀도 / 사랑가 / 꼭두각시 / 입춤 / 선녀춤 / 삼고무 외 다수
3. 한국무용 단체 창작 작품
은하수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디딤과 사위 / 태백설화도 / 등교길 외 다수

전통 예절과 예술적 재능을 전수합니다. 재능개발 · 대학입시 책임교육

■ 교육과정
1. 기본교육과정
1) 유치부 발레반
2) 초등부 발레반
3) 초등부 한국무용반
4) 발레 전공반
5) 한국무용 전공반
6) 현대무용 전공반
2. 특별 학습 과정
1) 개인별 학습
2) 작품활동
3) 타악실기
4) 전수 및 이수과정 (인천시 무용문화재 제 10호 범패 · 나비춤)

■ 강사진과 전수 및 이수내용
인천시무형문화재 10호 범패와 작법무 문화재 작품인 나비춤과 바라춤의 보유자에게 정식으로 춤의 과정을 이행하는 지도 강사분들께서 직접 강의 하십니다.
정통 문화재 춤사위를 그대로 하급하게 되며 전수 및 이수를 위한 전문과정도 밟을 수 있도록 지도 합니다.

■ 지원 자격
신장 남 175cm 이상, 여 163cm 이상이면 성적이 다소 부진하여도 체격에 상관없이 학원 등록이 가능하고, 충분한 예술적 자질을 갖추어 대학 진학에 성공을 약속드립니다. 재수생, 실업계 고등학생 및 일반인 등 무용에 특기적성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경순 원장 Profile
최종 학력 : 중앙대 예술대학원 졸업
◎ 경 력
· 인천시무형문화재 제 10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회장
· 인천시무형문화재 제 10호 범패 · 나비춤 전수자
· 인천시무형문화재 제 10호 범패 · 나비춤 서울 전수관장
· 한국 불교 종합 예술대학 부학장
· 이정순 무용학원 원장
· 인천광역시 안무가협회 감사
◎ 주요공연
· 86' 아시아 게임 "아시아 무용제" 출연
· 88' 서울 올림픽 기념 "국제 전통 무용 페스티벌" 참가
· 예술의 전당 "살품이춤 연구회" 공연
· 월드컵 홍보사절단 해외순회공연
· FIFA 월드컵 한 · 중 평가전 식전행사 나비춤 · 바라춤 시연 (인천 문학경기장)
·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 주최, 일본 초청공연
· 월드컵기념을 위한 인천광역시 주최 작법무 시연(도호도청부)
· 한국 명인 명무전 초청 나비춤 · 바라춤 시연 (제주도 문예회관/울산 KBS 공개홀)
· 그외 다수

본인 및 부모님의 문의에 성실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2-8 다원빌딩 2,3층 전화 02)3665-0528 팩스 02)3663-8448 핸드폰 011-316-9542
E-mail : 1js3665@hanmail.net http://www.bumpae.org

릴레이 수행일기 〈下〉



박병곤
부산일보 논설위원

당시 혜암 스님은 해인총림 방장을 맡고 계셨는데, 수 십년 동안 1일1식을 해온 탓인지 몸은 깡말랐으나 눈빛만은 철산은벽이라도 뚫을 듯 형형했다. "불법의 대의를 알기 위해 수행정진하지 않은 채 탐욕으로 가득찬 중생들은 바로 똥자루가 아니냐"며 일갈하시던 큰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깨침을 얻기 위해 수행정진하지 않은 채 탐욕으로 가득찬 중생들은 바로 똥자루가 아니냐며 일갈하시던 큰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필자가 부처님을 알게되고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되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선배가 한 분 계신다. 서울대법대 재학중 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멤버로 활동하다가 졸가해 7년동안 백련암에서 성철 큰스님의 상좌로 지냈던 이진두 선배이다. 군복무 이후 산으로 돌아가지 않

포교사 합격후 신해행증 실천 다짐
최선 다하는 오늘, 불국정토 가는 길

고 언론사에 입사하시는 바람에 필자는 그 선배님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워낙 큰스님 밑에서 공부한 데다 문화부 기자, 문화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쳤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중진 스님들을 두루 알고 계셨다. 이 덕분에 지난 98년초부터 직장 동료들과 함께 부정기적이나마 스님들을 찾아 뵙고 법문을 들을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다. 위빠싸나 수행을 하신 내원정사의 거해 스님, 지금은 조계종 교육원장이신 범어사 무비스님, 통도사 주지를 지낸 성파 스님의 법문이 아직도 생생하다.

2001년 10월에는 대광불교대학 재학중 응시하지 않았던 조계종 포교사시험에 뒤늦게 원서를 냈다. 한달여 동안 사무실에서, 퇴근후 집에서 조금씩 공부했다. 이 기회에 단편적인 지식을 체계화하고 싶어 큰 기둥을 정리한 뒤에 문제집을 다시한번 속독했다. 시험 결과 뜻밖에 좋은 성적이 나와 주위 도반들로부터 과분한 칭찬을 받기도 했다. 불자의 길은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고 배웠다. 믿고 이해하는 것은 어렴풋하나마 가능했으나 실천하고 수행 성취하는 것은 아직 크게 부족한 사람이다. 더욱 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삼아 다시 출발할 각오다.

지난 몇 년동안 우리사회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큰 홍역을 치뤘다. 선배 동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고 불교공부하던 도반 가운데도 사업체의 문을 닫고 고향도 아닌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거나 은행지점장을 그만두고 새 삶을 시작한 분도 있다.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동안의 공부와 수많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눈앞의 현실 이대로가 부처님 뜻이며 화엄세계가 아니겠는가. 〈벽암록〉에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선(禪)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으로 대한다면 이 땅이 바로 불국정토가 되리라 믿는다.

※다음 주 필자인 박주천 (주)삼현회장은 기업을 경영하는 바쁜 일상에서도 수행을 놓지 않는 것은 물론 부산불교대학 부학장을 맡아 지역불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한국요가연수원의 요가명상

영원한 자유의 길로 안내



◇17일 한국요가연수원 양평 수련장에서 열린 2박3일간의 집중수련회에서 회원들이 하타요가의 아싸나를 행하고 있다.

언제나 붉은 달이 뜬다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공기 좋은 깊은 산 기슭에 자리잡은 한국요가연수원(원장 이태영) 부설 석산수련장에서는 눈발이 날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온 요가 수련생들도 뜨거운 수행열기를 뿜고 있었다.

30여평의 수련장에 들어선 45명의 수련생들은 요가 운동법과 호흡법, 명상법을 위주로 2박3일간 집중적인 수련을 하고 있었다. 이번 지도

호흡과 명상 통해 잠재된 에너지 각성
하타·꾼달리니 등 이론·실수 교육

자교육 과정을 마친 이들은 각지의 요가수련원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거나 보다 높은 단계의 요가 수련을 하게 된다.

서울 봉천동과 분당 등 3개 수련원에서 5천여명 이상의 수련생을 배출한 한국요가연수원(www.yogakorea.com)은 일반 수련생에게는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관계없는 하타요가와 라자요가 행법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하타요가는 생리학에 근거한 운동법인 아싸나와 호흡법인 쁘라나야마 행법이고, 라자요가는 심리학에 근거한 명상법인 삼매 행법을 의미한다. 수련시간은 운동법 35분, 호흡 및 명상 55분으로 총 90분이다. 초보자는 호흡이나 명상을 많이 할 수 없으므로 60분 정도 수련한다. 하지만 무용이나 명상을 통해 잠재된 에너지를 각성시키는 고차원적인 꾼달리니요가나 요가철학과 같은 전문 교육은 '지도자 교육반'에서만 지도한다.

인간의 육체나 정신에 미치는 요가의 실제 효과는 현대의학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심신의 건강이나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해서 요가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 무용 성악 의학 종교 등의 각 분야에서도 자신들의 필요한 목적에 맞게 요가를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요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이라고 한다. 원래 인도 종교철학의 술어인 '해탈'은 육체나 의식 속에 갇혀진 영혼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해탈을 추구하는 요가는 의식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키는 삼매를 통해서 초월적 자아를 현상적 자아로부터 분리(獨存)시켜 절대성과 결합시키는 기술인 것이다. 특히 요가 수행을 통해 인간 생명이 우주와 더불어 영원한 것이 되고, 인간 존재가 우주적인 것으로 확대되는 체험을 '범아일여(梵我一如)'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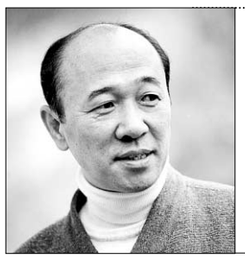
정태혁 동방불교대학장(81)은 "요가의 독존(獨存)이 우주적인 자아완성에 그쳤다면, 불교의 열반은 존재의 실상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지혜와 자비라는 양면을 동시에 구현시키는 실천체계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요가의 열반이 '범아일여'에 그쳤다면, 불교는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길을 동시에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한국요가연수원은 1986년 정태혁 박사와 최준식 박사(이대 교수), 이태영 박사 등에 의해서 '한국 요가학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4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가장 과학적인 명상법이자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켜주는 실천철학이라는 요가를 보급하기 위해 한국요가연수원은 요가의 본질을 망각하고 감각적 외형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잘못된 요가교육을 개선, 요가의 고전에 근거한 전통적인 방식을 중심행법으로 한다.

요가 사상의 기초, 수행을 위한 기초 생리학, 하타 요가, 꾼달리니 요가, 라자 요가 등으로 이론과 실천을 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02)888-5087

글=김재경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이태영 한국요가연수원장

"욕망 여의고 해탈 얻는 수행"

"요가는 영원한 자유를 찾는 길이며, 자유는 오로지 삼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고전 요가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국내 유일의 요가 전공 박사로서 17년간 현장에서 요가를 지도해온 이태영(49) 원장. 그는 요가는 몸의 아름다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욕망을 여의고 진정한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는 수행이라고 말한다.

요가는 어느 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 원장은 요가는 모든 종교 철학이 공유하는 실천 행법이라며, 요가의 삼매 체험은 온갖 지혜가 나오는 보물창고와 같다고 밝혔다. 즉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면 마침내 집중하고 있는 대상과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마저 사라진 무아(無我)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 '통찰명상'(위빠싸나)으로 반야(般若)를 체득하는 것이 불교적인 깨달음이라는 설명이다.

수행 캘린더

■**천수경강의 및 참선**=서울 정혜사는 주지 남전 스님의 지도로 매주 수요일 천수경 강의 및 참선정진 법회를 연다. 천수경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및 오후 7시, 참선정진은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02)903-8019

■**초심자 참선교실**=우곡선원(www.zenkorea.org)은 2월4일부터 3월4일(5주간)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10시 부산 해운대선원에서 제11기 초심자 참선교실을 연다. (051)740-6288~9

■**위빠싸나 초보자 수행**=보리수선원(www.borisu.or.kr)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월~금요일, 10일간) 오전 11시~오후 3시(낮반), 저녁 7시30분~9시30분(저녁반) 2월 초보자 수행을 실시한다. (02)517-2841

■**위빠싸나 집중수련**=근본불교 수행도량 홍원사는 2월 16~22일(6박 7일) 위빠사나 수행처인 천안 호두마을에서 집중수련회를 연다. 반야로까 성오 스님의 지도로 40명이 수행하게 된다. (051)632-8488

■**가족 요가수련**=보은 '샨띠와납 요가수련원'(jshanti.com)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익일 오후 3시까지(1박 2일) 주말 가족 요가수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차를 나누며(자기소개, 취지설명), 요가아사나, 별자리여행(서당골천문대) 또는 모닥불, 호흡과 명상, 다르샨(나를 찾아서) 등이다. (043)544-4406

■**정기 참선정진**=광주 자비신행회(www.jabee.or.kr)는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7~9시와 토요일 오후 3~5시에 화순 만연사 주지정과 스님의 지도아래 참선 정진을 한다. 062)234-2732

■**선으로 읽는 금강경**=부산 무심선원(www.mindfree.net)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선(禪)으로 읽는 금강경 강의'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전심법요 강의'를 개최한다. 무심선원 김태완 선원장을 법사로 설법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진행.(051)515-7226

■**선어록 입문 강좌**=서울 선어록연구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선종 어록 소개 및 선독을 위주로 하는 '선어록 입문' 강좌를 연다. 강사는 송인성(선종 어록 언어 전공) 박사. (02)597-0787

기적의 신물질(생체활성화물질) BeautyScan / HealthScan Series

BeautyScan/ HealthScan 이란? 당사연구소의 핵심개발물질 고유명사이며 순수한방생약성분에서 추출한 주요성분을 법제와 구증구폭 처리하여 개발된 신물질(생체활성화물질)로서 BeautyScan은 피부에 HealthScan은 인체내에 작용하여 생체리듬을 활성화시키고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주는 특성화 물질입니다.

출시품목(화림한방화장품)
☜ 한방기능성화장품(15종)
한방기능성비누(8종) ☞

출시품목(화림한방바이오)
☜ 한방선식(4종)
한방다이어트(2종) ☞
☜ 건강보조식품(2종)
천연향(6종) ☞

♠ 현재 "다음쇼핑몰" http://shop.daum.net/ 입점
전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서울25개구, 전국 16개 지구 판매계약
인터넷쇼핑몰 "소호마트" http://www.sohomart.co.kr 입점
2002 국제생활용품박람회 (MBC주최-대구전시컨벤션센터) 참가
2003. 1 일본(도쿄) 수출계획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서 화장품/ 건강식품, 다이어트 사업에 참여하실 분(소자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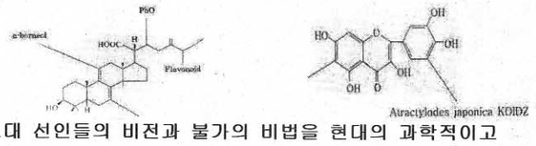
(주)화림한방화장품 www.hrcos.com
(주)화림한방바이오 www.hrbio.com

전국지사 대리점 ◈ 투자자 모집

♣ 투자자 모집 ♣

업체명	(주)화림한방화장품	(주)화림한방바이오
법인번호	170111-0217712	170111-0182965
사업자등록번호	504-81-45677	504-81-47807
최초설립일	2001. 3. 28	2001. 3. 28
본사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번지	
업종	제조	제조, 도매
종목	비누, 화장품	향, 농산물, 무역

- BeautyScan/ HealthScan 의 부분 조직도 -



고대 선인들의 비전과 불가의 비법을 현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개발한 신개발 생체활성물질을 각종 화장품/비누 및 식품에 응용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써 한방바이오 제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저희 회사를 알리 고저 합니다. 수입의 재투자로 인한 적극적인 제품개발로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사세확장과 자체 영업망 구축을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추후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운영되는 회사로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에 앞장 서는 도덕적이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번지 ☎ 053)313-2711~5 FAX : 053)313-2716 http://www.hrcos.com

기쁜소식!



수맥파, 단 30,000원에 말끔히 잡는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바이레이

보이지 않는 흉기, 밤새 괴롭히는 수맥파에서
누구나 해방되는 건강시대가 열렸다!
손쉽게 잘라서 깔면되는 획기적인 바이레이
수맥파는 유해파...
당신의 잠자리는 수맥파로 부터 안전할까요?
수맥파를 흡수하는 바이레이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바이레이는 펼쳐서 깔기만 하면 되는 간편하고도 저렴한 제품으로 침대 매트리스, 카페트 밑 등등 원하시는 장소 어디나 사용 가능합니다.
바닥장식재 시공 전에도 바이레이를 깔아 건강을 지키십시오.

제조원 : 대원화성주식회사
문의전화 : 02)3158-3351
H·P : 019-281-3850
http : www.bye-ray.co.kr

'사람과 하늘의 스승' 뒷바라지 발원

바라밀현장

실상사 화엄회의 인재불사



◇18일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 강당에서 주지 도법스님의 법문을 들은 후 사중 스님들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지회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화엄회 회원들.

18일 전북 남원 실상사. 이날 저녁부터 화엄학림 강당에서 열리는 '금강경 결제 제8회 논강'에 참석하려는 불자들이 경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공양간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텃밭에서 길러온 유기농 야채를 가져와 저녁공양을 준비하는 불자들이 보였다.

이들은 최근 교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금강경 결제'를 주최한 화엄학림의 후원단체인 화엄회(회장 김정진) 회원들. 정성스럽게 공양물을 준비하는 회원들과는 별도로 나머지 회원들은 이날 점심 때부터 법당 바닥 및 주변 청소, 불단 정리, 방석 정리, 난방시설 점검 등 손님 맞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화엄학림 성륜 스님의 집전으로 큰방에서 진행된 예불, 천수경 독경, 석가모니불 정근은 1백여 회원들의 일치된 염불 소리로 한마음이 느껴졌다. 화엄학림 설립 1년 후 96년부터 시작한 '사람과 하늘의 스승(人天師)을 키우겠다'는 인재불사를 발원하는 기도다.

10시경 금강경 논강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자, 화엄회는 화엄학림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제28회 철야정진을 시작한다. <자비도량참법> 참회기도에 들어가기 앞서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이 법문을 통해 화엄회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 "95년 설립된 화엄학림이 25명의 강사급 졸업생을 배출하고 '금강경 결제'와 같은 논강을 펼칠 수 있게 된 것도 화엄회의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인재를 배출하지 않고선 불교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스승을 배출하는 교육불사가 잘 이뤄지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회비모아 강당건립 불사에 적극 참여

매달 철야정진 등 자기공부도 열심

이어 해강 스님의 집전으로 참회기도와 108배 정진이 이어지자 회원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힌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스님들을 배출하기 위해 조용히 뒷바라지만 해온 화엄회가 석달마다 '인재불사'를 발원하며 7년 동안 빠짐없이 철야정진을 해온 것은 남을 위한 기도와 자기 공부를 겸한 수행의 일환이었다.

화엄회는 2001년 11월 23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창립행사를 갖고 전국 9개 지회도 구성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화엄학림 후원회'란 이름아래 뭉친 것은 지난 96년이다. 화엄학림이 설립된 지 1년 만에 아무 조건없이 매달 1만원의 후원회비를 모았다. 회비를 모아 화엄학림 강당과 화림원 건물을 지었고, 대웅전 복원불사에도 참여했다. 스님들이 2001년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며 백두대간, 낙동강, 지리산 종주 순례에 나섰을 때도 회원들은 순례를 뒤따르며 공양물 등 물품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회원들은 1천배, 3천배 철야정진은 물론 <금강경>등 경전공부도 열심이다.

김점진(72, 무애심) 회장은 "사찰의 건축불사를 후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의 주인이 될 훌륭한 스님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063)636~3031

실상사=김재경 기자



화엄회 김태임 총무

"교육후원 가장 큰 공덕"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의 교육불사를 후원하다 보면 절로 신심이 나 함께 공부를 안할 수가 없죠."

96년 화엄회 전신인 '화엄학림 후원회'때부터 맡아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김태임(56, 복덕행) 총무는 "기와불사에는 선뜻 나서지만, 선사나 강사 등 고승을 배출하는 불사에는 무관심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실상사 스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지 스님부터 행자승까지 직접 식기를 닦고, 재가자들과 함께 사찰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설 수 밖에 없었죠."

실상사 대중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남원 및 산내지회를 중심으로 실상사 농장에서 유기농 재배도 하고 있는 김 총무는 IMF사태를 맞아 500여 회원들이 절반이나 줄어든 때가 가장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이제는 불자들도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수행과 인재양성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증엄 스님 (下)

(대만 자제공덕회 회주)

'중생구제' 서원…곳곳서 자비행

인순 대사는 간단한 스승과 제자의 예를 갖추고 증엄 스님에게 '증엄(證嚴)'이란 법명과 '혜장(慧璋)'이란 자(字)를 내렸다. 증엄 스님은 곧바로 임제사에서 열린 삼단대계(三壇大戒; 사미니계, 비구니계, 대승보살계를 수여하는 계단)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한달 뒤 증엄 스님은 화련으로 돌아와, 한 노 거사의 보시로 보명사 뒤쪽에 소박한 목재 가옥을 지었다. 이곳에서 스님은 잠을 줄이고 소식하며 경을 외우거나 사경하며 수행했다. 때로는 연비(燃臂) 공양으로 중생구제의 서원을 염원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다.

1964년 봄, 스님은 그동안의 공부를 회향하기 위해 화련 자선사에서 처음으로 <지장경> 강의에 나선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4명의 출가 제자가 사제의 연을 처음으로 맺었다. 스님은 절에서 보시금을 바라는 인위적인 법회를 열지 않았으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청규(淸規)를 철저히 지켰다. 제자들에게도 자급자족의 정신을 강조한 스님은 1995년 봄부터 종이나 옷, 신발의 원료가 되는 꽃을 키워 팔아 사찰 재정으로 삼기도 했다.

중생구제를 향한 증엄 스님의 서원은 뜻밖의 사건을 목격하고 난 뒤에 더욱 확고해진다. 1966년 스님은 한 진료소에서 위출혈로 수술을 하게 된 제자의 부친을 찾아갔다가 병실 근처에 피가 낭자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 궁금했다. 옆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원주민 소녀가 임신을 해 산길로 7~8시간 달려왔지만 의료비와 보증금이 없어 다시 되돌아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증엄 스님은 "두 생명이 같은 생명인 줄 모른단 말인가? 이곳에 생명의 소중함이 과연 있단 말인가?"며 비통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

출가 본래의 뜻은 명리를 떠나는 것이었건만, 돈이 없어 생명이 죽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하다보니, 스님은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금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된다. 스님은 돌연 경전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고통과 재난을 구해주듯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가진 500인이 각처에 흩어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의 아픔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사찰 자급자족…보시금에 의존 안해

'자제공덕회' 조직 복지사업으로 포교

500명 단위로 조직된 단체가 생활 가운데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역할을 함으로써 출세간의 정신을 다시 입세간(入世間)으로 되돌린다는 이런 발상은 '성실, 정직, 믿음, 실천'을 추구하는 자제공덕회의 생명 사랑과 자비실천의 기본구조가 되었다.

증엄 스님은 보살행의 원리인 '자비희사(慈悲喜捨)'를 사회사업의 실천이념으로 구체화시킨 선구자였다. '자'는 자선과 국제구호, '비'는 의료와 골수기증, '희'는 문화와 지역사회사업, '사'는 교육과 환경보전사업 등으로 세분화시킨 것이다. 김재경 기자



◇지난해 7월 대만 화엄대학에서 열린 제7차 사키야디타 국제불교여성대회에서 강연하는 증엄스님.

心 마음비추기

몸·느낌·법 모두 마음에 근본

그동안 한국 불교에 있어 최고의 수행법으로 여겨졌던 간화선이 위빠싸나 수행법이 보급되면서 그 전통이 흔들리고 있는 감이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간화선은 이제 한물 간 수행법으로 희망이 없고 위빠싸나만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위빠싸나가 꼭 남방불교 수행법에만 적용되고 우리나라 같은 대승불교권에는 없는 것처럼 여기는 풍토다. 즉, 간화선이나 묵조선, 그리고 염불법이나 기타 수행법들은 위빠싸나 범주에 들지 못하고 오직 남방불교권에서 유입된 사념처 수행법만이 위빠싸나인 줄로만 안다는 점이다.

위빠싸나라는 어원을 과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하여야 하는가는 아직도 논의단계에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아차린다' '관찰한다' '전체를 꿰뚫어 본다' 라는 뜻으로 쓰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빠싸나는 간화선을 비롯한 대승불교권의 수행법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승불교의 교리체계는 근본불교의 가르침보다 훨씬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풀이하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방법도 마음 하나만을 주제로 삼아 관찰하는 법을 가르친다.

남방불교의 위빠싸나는 이미 알려진 대로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네 군데를 관찰해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이루는 공부법이다. 이 공부법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동일선상으로 보고 모두 관찰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대승불교의 공부법은 몸과 느낌과 법을 관찰하는 것은 생략하고 마음만을 집중적으로 관찰 한다. 그 까닭은 몸을 비롯한 느낌이나 법은 모두 마음에 그 근본을 두고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곧 마음은 뿌리가 되고 몸이나 느낌이나 법은 가지나 잎이 되므로 마음 하나만 관찰되면 나머지도 다 관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대승불교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처님 당시의 뽀띨라 비구 이야기를 보면 마음하나만을 관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 남방불교 위빠싸나는 사념처 위빠싸나가 되고, 대승불교 위빠싸나는 일념처 위빠싸나가 된다.

남방불교의 시각에서 기존의 수행 방편들에 대해 치우친 견해를 갖지만 말고 그 수행법들 속에 들어있는 위빠싸나의 원리를 찾아내고 실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연(유마선원장)

〔출강 · 통신〕 2003학년도 제 12기 법사 양성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모집

법사 학인으로 입학하여
불교 사회적 책무성을 갖는
직분의 법사가 되도록
지도 교수합니다.

12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3학년도 제1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 ① 출강반 ② 통신반
3.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육기간 • 법사과정=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2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6. 교육장소 : ① 서울 본 대학 ② 부산 학습도량
7. 원서교부 및 접수 : 2003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귀특전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종단에 출가 득도시 수행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Fax. (02)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신흥사 부설
三笑禪院개원안내

사찰 인근에 거주하면서 참선,
기도정진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삼소선원이 2003년 2월 10일부터
변각성 큰스님을 모시고 개원합니다.
함께 할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1. 노후를 사찰에서 지내면서 실버를 설계하실 분
2. 경전, 참선, 서예, 사군자, 달마도, 다도를 즐기실 분
• 변각성스님 매월 2, 4주 토요일 오후 4시 경전공부
• 도건 큰스님 서예 및 달마도 개인 지도(무료)
3. 보증금 2,500만원 부터, 매월 관리비 25만원부터
4. 대 상 : 사부대중(학교 및 통근 가능) - 선착순 10명

◎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구함

■ 교통안내 : 지하철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 10번 마을버스 탑승(종점위치) 그랜드 힐튼호텔 뒤

서울 서대문구 홍은 3동 265-232번지 신흥사
문의처 : 02)395-1222 . 011)225-1222

漢文敎育科

▶ 통신반 · 출강반 募集 ◀

1. 募集期間
• 전기 1월 5일 ~ 2월 15일(기간엄수)
2. 募集學科 • 漢文敎育科
3. 敎育科目
• 무량의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 보현보살 행법경(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4. 敎育期間 • 3년(6학기)
• 통신반 · 출강반 동일
5. 敎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통신반)
• 월1회 출석특강(통신반)
• 출강반은 주1회 출석(대구 · 부산지역)
6. 畢業惠澤
• 畢業證書 수여
• 전문 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무료)

※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國際語文硏究所
所長 · 哲學博士 崔 光 永
대구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동대구빌딩 3층)
053) 952-8711 · 017) 501-



사자빈신 삼매와 부처님 경계

자비 나타내는 정신통일 경지

시공초월 구제하는 생명의 세계

입법계품은 세존께서 사위성의 서다림(逝多林)에 있는 기수급고독원의 대장엄중각 강당에서 보현 · 문수 등 오백 인의 보살과 오백 인의 성문들과 그리고 무량한 여러 세상들의 주인 및 권속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곳에 모인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의 경계 · 지혜로운 행 · 힘 · 삼매 · 머무시는 처소 · 몸 · 지혜는 모든 세간의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중생들에게 알게 할 수도 없으나 오직 부처님의 힘 · 선지식들이 거두어주는 힘 · 청정한 믿음의 힘 · 깨달음을 향한 청정한 마음의 힘 · 광대한 서원의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과 모든 중생들의 여러 가지 욕망 · 이해 · 지혜 · 머무는 처지 · 마음의 경계 · 여래의 공덕을 의지함 · 설법을 들음 등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옛날에 온갖 지혜를 구하시던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행하시던 인연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묘한 법륜을 굴리며, 불국토를 청정케 하시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모든 부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 보이시는 등의 여러 가지 법을 모두 설하여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였다.

그 때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큰 자비심으로 곧 사자빈신삼매(獅子頻伸三昧 · 60권 화엄경에는 사자분신삼매 獅子奮迅三昧)에 드신다. 그러자 세간이 모두 깨끗하게 장엄되고, 대장엄누각이 갑자기 한없이 넓어지며, 모든 곳이 여러 보배로 훌륭하게 장식된다. 또한 부처님의 신통으로 서다림이 홀연히 커져서 불가설불찰미진수 세계의 국토들과 면적이 같게 되었는데, 그 모든 세계 또한 여러 가지 내용과 모습으로 훌륭하게 장엄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엄들은 여래의 선근 · 위신력 · 여래가 한 몸으로 자재하게 변화하여 모든 세계에 두루하는 것 · 여래가 신통한 힘으로써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국토의 장엄을 그 몸에 들어오게 함 · 여래가 한 티끌 속에 모든 법계의 영상(影像)을 나타냄 등이 부사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렇게 부처님 국토가 청정하게 장엄한 것을 보는 것은 서다림의 급고독원뿐만이 아니다. 시방의 온 법계, 허공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장엄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때에 시방으로 각각 미진수 세계를 지나가서 있는 세계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보살이 각각 미진수 보살들과 함께 급고독원으로 모여들어 부처님께 정례하고 가부좌하고 앉는다.

이와 같은 광경들은 모두 세존께서 사자빈신삼매에 들어가시자 나타난 것들이다.

청정하고 아름답게 장엄된 세계의 광경은 범부 중생의 마음에 의해 나타난 광경이 아니고, 모든 번뇌를 정화한 부처님의 마음에 의해 나타난 광경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세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눈뜨게 된다.

사자분신삼매는 부처님의 커다란 자비를 나타내는 정신통일 경지이다.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자처럼 힘차게 용기를 떨치고 일어나 활동하려고 하는 삼매다. 그리고 입법계품에서 세존께서 이러한 사자빈신삼매에 들어가시자 나타나는 부처님의 경계는 청정한 눈에 비쳐진 고요하기만한 그림같은 세계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비로운 중생구제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영원한 대생명의 세계이다.

자비심이 없이 주변세계와 겹겹으로 닫혀져 있는 중생심으로 보는 세계는 모든 것이 서로 대립 차별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세계이다. 그러나 주변세계를 위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비심의 세계는 모든 것이 상호간에 아무런 막힘이나 장애가 없이 융통무애하면서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가 되는 것이다. 입법계품에서 부처님께서 사자빈신삼매에 들어가시자 모든 세간이 깨끗하게 장엄되고, 대장엄누각이 갑자기 한없이 넓어지며 서다림이 홀연히 커져서 불가설불찰미진수 세계와 같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계품에서 부처님 경계와 그것을 실현하는 보살행에 대해 설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이 삼매의 경지로써 그것에 답하고 있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부처님의 경계는 본래 언설로써 나타낼 수 없는 경계다. 그러므로 그 경계는 삼매로써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경계이다. 그리고 수행자가 그 경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경계를 동감하는 삼매의 행을 체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계품에서의 보살행은 여러 가지 삼매에 의해서 설해지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㊹ · 끝

뚜렷이 홀로 밝다

헛된 생각 버리면 진실한 마음 보여

도 배우는 이들이여! 진실한 마음은 몹시 어렵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보면 쉽다. 내가 종일토록 저들에게 말해주어도 배우는 자들은 조금도 뜻을 두지 않으니, 천 번 만 번 밟고 지나가면서도 칠흑같이 깜깜하다.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뚜렷이 홀로 밝은데도, 배우는 자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명칭 위에서 알음알이를 내면서, 나이 50이 지나도록 다만 밖으로 송장만을 지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짐을 지고 천하를 다니니 짚신 값 물어낼 날이 있을 것이다.

마음공부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익혀온 세속의 허망한 마음을 반야의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세속의 허망한 마음은 이름과 모양이라는 대상만을 좇아 다니며 정작 그렇게 행하고 있는 바탕인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는 마음이고, 반야의 진실한 마음은 이름과 모양을 좇는 일이 전부 자기에게서 비롯된 자신의 일임을 잘 알아서 대상에 속지 않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로지 세속의 허망한 마음만을 익혀왔을 뿐, 반야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꿈에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반야의 진실한 마음은 전혀 생소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마음공부의 어려움이 있다. 늘 익숙한 습관대로 행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런 일은 세간의 허망한 마음과 반야의 진실한 마음이 본래 하나의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허망함 속에 있으면서 진실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그리움이 심해져서 목마름으로 되면 진실한 마음을 찾으려는 마음공부를 발심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다행스런 일은 허망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에 익숙해져 있더라도 진실한 마음을 찾으려는 발심만 굳으면 언젠가는 진실한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는, 자신이 현재 진실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진실한 마음에 관한한 자신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서 어떻게도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진실한 마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며, 이제까지와 같이 이름과 모양을 통하여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진실한 마음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공부를 할 올바른 자세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도 손쓸 길을 몰라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어떤 방법에도 의존하지 않고, 다만 진실한 마음에 목말라 하며 길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 하나 뿐인 것, 이것이 바로 마음공부의 올바른 자세이다.

무엇을 찾아내고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방법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손을 놓고서 어떻게도 할 수 없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문득 본래 이대로일 뿐 달리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아차리게 된다. 허망한 마음 그대로가 본래 진실한 마음인 것이다. 다만 허망한 의식을 놓지 못하고 있을 동안에는 진실한 마음이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과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견해를 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 본래부터 진실한 마음이 뚜렷이 홀로 밝을 뿐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과

■ 김태완 선생의 〈임제록〉 강의는 이번 44회로 신문연재를 마감합니다. 45회부터 이어지는 강의는 김태완 선생의 홈페이지 http://www.mindfree.net/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51-515-7226(무심선원)



태아 정말 마음 지니고 있는가?

사람이 성인이 되면 지각(受)의 본성에 의해 탐욕이 생긴다. 이 탐욕을 애(愛)라고 한다. 이것을 12연기에서는 수(受)는 애(愛)를 낳는다고 말한다. 성인은 애(愛)의 본성에 의해 집착을 하게 된다. 이 집착을 불교에서는 취(取)라 부른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기쁨이나 쾌락을 경험하면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슬픔은 멀리하고 싶어하게 된다. 이것을 12연기에서는 애(愛)는 취(取)를 낳는다고 한다. 성인은 취(取)의 본성에 의하여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유(有)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유(有)란 존재에 대한 집착이다. 이것을 12 연기에서는 취(取)는 유(有)를 낳는다고 말한다.

그러면 의학에서는 태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현대의학에서는 유과 인터뷰 한 결과, 수정하기 전의 영적인 존재(pre-existence)는 지구상의 많은 문화권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또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칼만 부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출생 전 영적인 존재가 미래의 부모를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그들은 출생 전 영적 존재를 ‘spirit-child’라고 불렀다. 따라서 비록 태아가 육체적으로는 미성숙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산모와의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둘째, 태아가 이러한 영적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아는 엄마의 감정을 느낄 줄 알고 또한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태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출생 후 자궁 생활을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많은 산모 태아와 영적 접촉 경험

태아 마음 보편적 아닌 초월적

물론적 의학이기 때문에 성인의 마음도 뇌의 부수 현상이라고 생각하므로 미숙하기 짝이 없는 태아의 뇌에서 마음 같은 것이 있어서 작용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불교의 진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태아는 수정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초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할렛 여사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에서 임신 중 태아와 영적인 접촉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태아는 처음 영적인 존재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육체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하였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칼만과 닐 칼만 부부는 출산 경험이 있는 100명의 여성

심리학자 봉가드, 맥마너스, 발드윈 및 마스터즈 등은 최면을 이용하여 사람의 자궁 내 태생기의 기억으로 퇴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람은 임신 5개월의 자궁 생활의 기억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태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정신 의학자 크루피츠키는 케타민이라는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면 자궁 내 생활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영국의 벨패스트 대학의 태아행위연구소의 헤퍼 교수는 태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보편적인 마음이 아니라 초월적인 마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불교의 진리와 외국의 초심리학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태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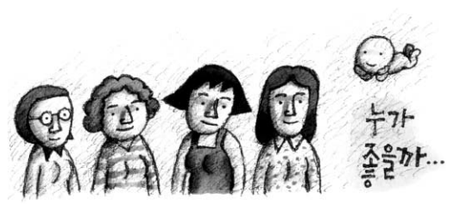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도 치유
되지 않는 원인모른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명 수증증, 와사풍, 중풍(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 작명, 오행철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 뒷길 주차장 100m 전방
감나무식당 아래 (선화정사)
053)614-7935, 011-808-8880

지혜정사
한방치료 · 요양 · 휴양
새절 지혜정사는 3대째 내려오는
한의술을 불교로 회향코져 창건한
북한강과 양수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며 땅의 기운이 힘차
물맛이 좋고 조용하며 고요한
청정도량입니다.
※ 1인 1실 숙식 월 30만원
(침술, 진료, 봉사)
(비구니 스님 특별 혜택)
※ 전주, 군산식 맛깔스런 공양 올립니다.
◆ 절 : 경기도 마석 담내리
☎ 031-592-8418
◆ 한의원 : 서울 제기동
☎02-966-5725
◆ 휴대전화 : 011-790-5725


퇴마승 해원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천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누비,적삼,바지]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 ₩140,000 동방, 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누비,동방,바지]
3. 누 비 (면솜 100%) 적삼, 바지 : ₩220,000 동방, 바지 : ₩240,000 두루막 : ₩200,000
4. 누 비 (혼방) 적삼, 바지 : ₩170,000 동방, 바지 : ₩190,000 두루막 : ₩17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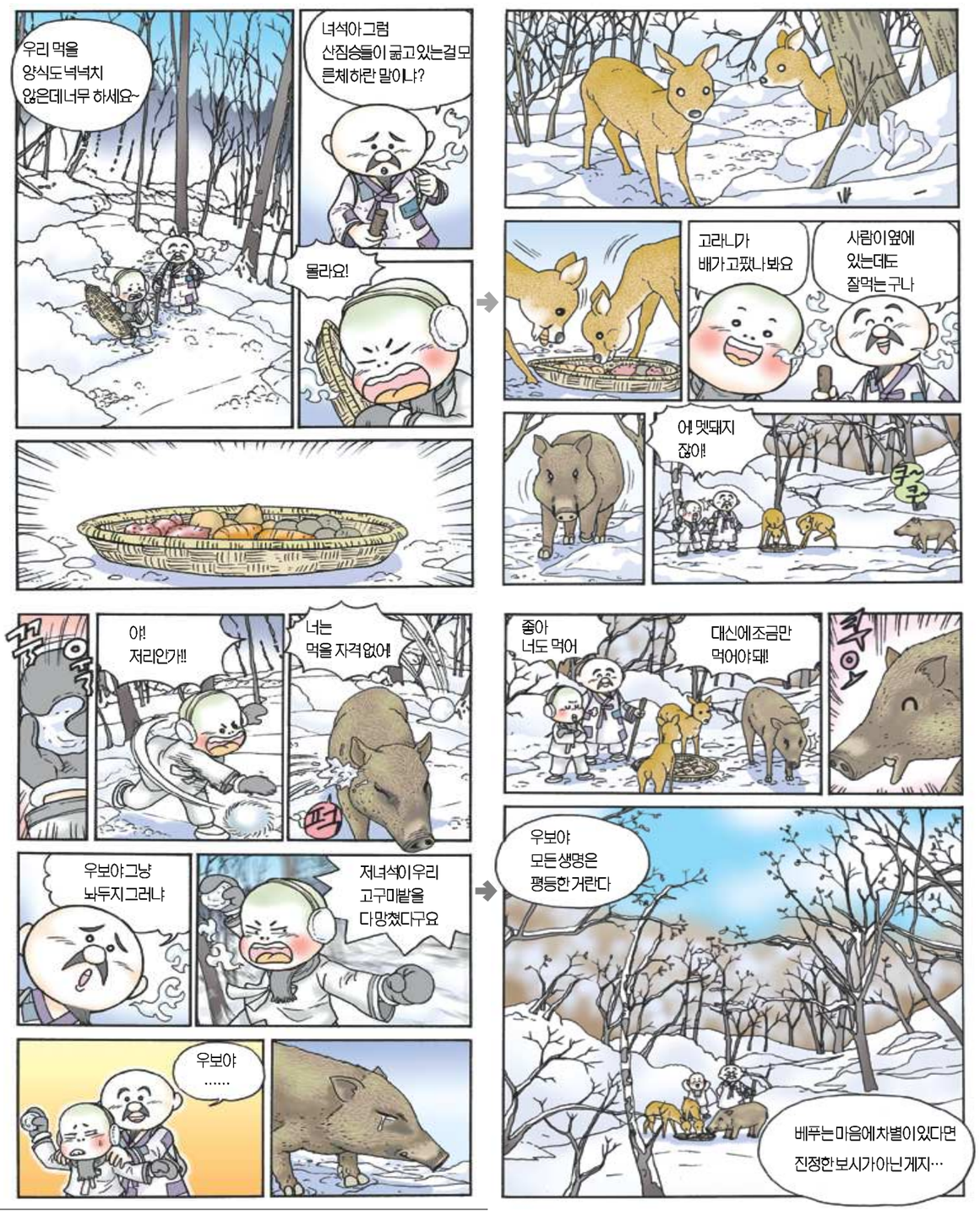
[누비,두루막]
5. 법 복 (회색, 밤색) 쪼끼, 바지 : ₩60,000 ~ ₩65,000
6. 장삼 (모직) ₩200,000 ~ ₩250,000
7. 승복 (골덴) 적삼, 바지, 조끼 ₩200,000 동방, 바지 ₩19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 전화로도 가사 주문 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4화)

"가리지 말고 베풀라"

〈출전 : 중일아함경 제19:등취사 5:2-645중〉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사랑의 열매

누군가 돕는 것, 共業실천하는 일

해마다 연말이면 '불우이웃'을 돕자는 캠페인이 벌어진다. 선재는 '불우이웃'이라는 말이 늘 찜찜했다. 왠지 '멀쩡한' 내가 '불우한' 이웃을 도움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다른 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서일까. 몇 년 전부터는 '희망 이웃돕기 캠페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결 어감이 부드럽다. 어감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ARS나 동전 모금함 등 자발적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도 퍽 세련되었다. 그렇게 해서 가슴에 달고 다니는 '사랑의 열매'는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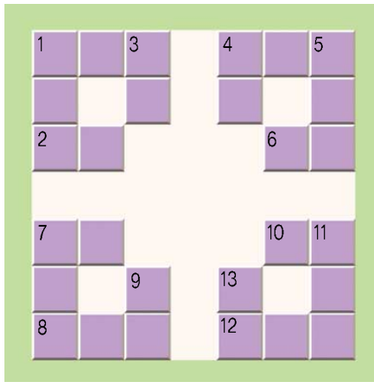
선재는 문득 주변을 되돌아보게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중사업으로 추진하는 모금과 배분 사업에, 지난해 사상 최악의 수해 때 사상 최고액인 1천 3백억원에 달하는 수재의연금이 접수되었고, 이번 연말 '희망 이웃돕기 캠페인'에는 12월까지 20억원이 넘는 모금액이 모였다고 한다. 그 중에 불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담겨있을까?

'지금 잠시 힘든' 누군가를 돕는 일은 그들이 불우해서도 아니고 내가 여유로워서도 아니어야 한다고 선재는 생각한다. 업(業)에는 나의 개인적인 업 이외에도 공업(共業)이 있다. 흔히 공업은 기세간(器世間)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국토나 자연환경 등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공업은 단순히 자연환경과 기세간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기세간에 어디 사물만 있겠는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 역시 기세간이고 나의 주변환경이 아닌가 말이다.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나의 공업의 결과이고, 누군가가 힘든 환경에 살아도 나의 공업의 결과이다. 그러니 내가 '사랑의 열매' 하나 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는 일이다.

'사랑의 열매'. 세 개의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뜻한다고 한다. 지난 연말연시에 나의 공업장은 얼마나 소멸되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기세간이 청정하게 되었는지 잠시 가슴에 손을 올려볼 일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가로

1. 금이나 동으로 만든 불상. 2. 옛 신라의 수도. 4. 불교의 세가지 근본 교의.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6. 부처님의 가르침. 이법(理法) 특별한 진리. 7. 아(我)가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얽매임 8. 육신통의 하나로 타인의 마음상태를 아는 것. 10. 우리들의 존재 근저에 있는 근본적인 무지. 12. 후한 명제부터 453년간에 활동한 고승들의 사전을 다룬 책.

〈405호「교리퍼즐」정답〉



세로

1. 본래 제목은 '능단금강반야바라밀다경'. 3. 불상을 봉안하기 위한 단. 4. 경율론을 뜻하는 불교성전의 총칭 5. 인연의 도리, 연기와 같음 7. 부처님의 10대 제자. 다문제일. 9. 초인적이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컫는 말. 11.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모신 전각. 지장전이라고도 함. 13. 범종과 같이 의식때 치는 사물중의 하나인 북.

21C 천문만세력

단 한번의 사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비법은?



현곡 정수홍 지음
4×6배판 / 1162쪽
정가 35,000원

부록 대법원 확정 한자 인명사전

화제의 신간

- 같은날 출생하여도 출생시간에 따라서 대운수가 다르다!
- 기존 만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월까지 표출되는 나의 행운수는!
- 간략대운수의 오차를 벗어버리는 행운 만세력!
- 기존만세력은 대운수를 월까지 정확하게 산출해 주지 못한다!

적중율이 높은 사주법을 알려 드립니다!

그림 唐四柱大典

이선암/전호일 공저 · B5 · 296쪽 · 값 18,000원



- 적성에 맞는 직업
- 잉태한 달로 남녀 구별하는 법
- 길흉부적법
- 기초역리학
- 남녀궁합론
- 각종택일법
- 기초육갑법

당사주란 중국에서 유래한 그림으로 사람의 일생을 초 · 중 · 말년으로 나누어 쉽게 개개인의 사주를 보는 법의 하나이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헤서 명리진경 신국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昨 譯註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옥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원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全光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홍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홍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전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무영재 지음/정가 18,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벌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챕자 용자)

승복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특별보시!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 21. 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화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아비담마 길라잡이 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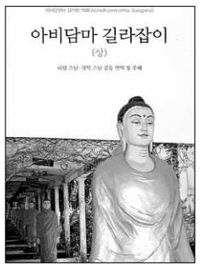
대림·각묵 스님 공동번역·주해

초기불전연구원 / 각 1만5천원

대승불교 중관·유식 이해 돕는 필독서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10세기 경 스리랑카 아누룻다 스님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아비담맛타 상가하(abhidhamma attha sangaha)>를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등지서 산스크리트와 빠알리를 15년 동안 공부한 대림 스님과 각묵 스님이 번역하고 주해를 단 것이다.

<아비담맛타 상가하>는 아비담마의 주제를 남김없이 다루고 있으며, 아비담마의 나라로 불리는 미얀마 뿐만 아니라 모든 남방 불교 국가에서 아비담마를 가르치고 배우는 기본 텍스트로 자리잡아 왔다. 불교계 최초로 남방 불교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한 이 책은 이러한 모든 주제를 <청정도론>과 <위바위니 띠까>, <빠라맛타 디빠니 띠까>를 대조해가면서 각 주제의 개념을 정확한 출처를 제공하고 옮기어 깊이있게 해설하고 있다.



초기불전연구원 원장으로 이 책을 공동 번역한 대림 스님은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주제는 동시에 위빠사나 수행의 주제이다. 그러므로 아비담마를 모르는 위빠사나는 십중팔구 신비주의로 빠져버릴 위험이 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위빠사나 수행법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남방에서 아비담마를 중시하는 이유는 아비담마가 위빠사나 수행의 근본 골격을 이루는 완벽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방의 스님들은 아비담마가 위빠사나요, 위빠사나가 아비담마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특히 이 책은 관점을 달리하는 남방 아비담마와 북방 설일체유부나 경량부의 아비다르마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아비담마의 토대 위에서 발아한 대승불교의 중관과 유식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다.

이은자 기자



'붓다, 그 삶과 사상'

나카무라 하지메·타나베 쇼우지 지음

무우수 / 8천5백원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 원시경전 통해 되새기게

<붓다, 그 삶과 사상>은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였던 나카무라 하지메(1912~1999)가 NHK 방송에서 진행했던 동명의 프로그램을 담당 PD였던 타나베 쇼우지가 정리해 책으로 엮은 것이다. 불교 원시경전의 하나인 <쿳다카 니까야>(소부경전) 가운데 <담마파다(법구경)>, <우다나(자설경)>, <숫타니파타(경집)>, <테라가타(장로게)>, <테리가타(장로니게)>, <자타카(본생경)> 등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부처님이 살았던 당시를 조명하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읽어낸다. 그래서 이 책은 마치 부처님 일대기를 서사 다큐멘터리로 보는 듯 하고, 때로는 부처님이 남긴 깨달음의 시(詩)에 상세한 해설을 곁들인 것 같기도 하다.

진리는 하나이고, 제2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저들은 제각기 다른 진리를 찬양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여러 '진리의 사람'들은 동일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숫타니파타>

자신을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말했던 부처님은 80 생애 가운데 50여년을 맨발로 진리의 길을 걸으며, 동시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길에서 부처님의 목표는 언제나 분명했다. 자기 견해가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증명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 최종 목적지는 해탈이라 부르는 안락한 경지였으며, 따라서 논쟁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법을 전하던 때부터 '자기 정화'와 '무집착'을 강조했다. 이는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맞았던 2500년 전 인도에서 부처님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집착을 떠나고 깨달음을 얻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적극적 방법으로 청정행(보살도)의 실천을 설했다. 그러한 붓다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책은 오늘을 사는 우리 스스로가 지녀야할 마음가짐,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을 원시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살펴보게 하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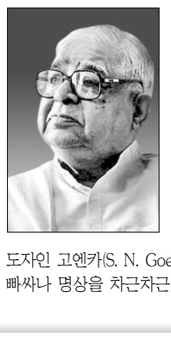
전쟁터에서 백만 명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오직 자기 한 사람을 극복하는 자야말로 실로 최상의 승리자이다.

<담마파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파노라마로 보는 부처님 일대기



해외불서

호흡을 넘어서

<호흡을 넘어서(Beyond the Breath: Extraordinary Mindfulness Through Whole-Body Vipassana Mediation)>는 인도의 명상 지도자인 고엔카(S. N. Goenka·사진)의 위빠싸나 명상을 차근차근 설명한 책이다. 20여년간 '고엔카 명상'을 수행한 저자 마셜 글릭먼(Marshal Glickman)은 실천적인 몸과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mindfulness)'을 통해 유용한 명석함을 얻게 됐다고 말한다. 불교이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를 시도한 저자는 새로운 대뇌연구의 성과물과 불교적 지혜의 상관성을 드러냄으로써 신선하면서도 설득력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계율, 업, 열반 등에 대한 통찰명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다윈의 진화론과 불교의 흥미로운 유사성을 언급하며, '쾌락에 대한 탐닉은 정신적인 미성숙'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감각(sensation)에 대한 마음챙김을 위주로 한 고엔카 명상의 수행법과 효과, 현대적 응용, 과학적 해설이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을 주고 있는 책이다. 미국 Charles Tuttle 출판사 펴냄.

김재경 기자

말기 환자에 용기·희망

'환자를 위한 불교 기도집'

능행 편저

불광출판사 / 9천원



불교계 유일의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인 '정토마을'을 운영하며 말기 암 환자들과 더불어 살며 평화로운 임종을 돕고 있는 능행스님이 그동안 환자들을 위해 사용해 온 기도문을 보완해 <환자를 위한 불교 기도집>을 펴냈다.

제1장 독송요집, 제2장 수계의식, 제3장 투병환자를 위한 기도문, 제4장 임종기도문, 제5장 바르도 기도문, 제6장 극락왕생 기도문과 함께 호스피스의 개념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을 부록으로 실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시아문
2	화	틱낫한	명진출판사
3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출판부
4	화엄경	법정 스님	동쪽나라
5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달라이라마	김영사
6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이화	역사비평사
7	불자의 살림살이	우룡 스님	효림
8	평화로움	틱낫한	열림원
9	불교와의 만남	수산 스님	마하야나
10	아비담마 길라잡이	각묵·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새로나온 책

'침묵이 아니면 진리를'



<침묵이 아니면 진리를>은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이 펴낸 불교입문교양서다. 40여년간 포교와 수행에 매진해왔던 스님이 신도를 대상으로 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것만은 꼭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생각한 것들을 네 마당으로 펼쳐놓았다. 이 책에서 스님은 불교 기초교리에 해당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불교란 무엇인지, 석가모니는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법문하듯 자상하게 이야기한다. 특히 맨 마지막 장에서 조사선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우리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되새기기 위해 선이란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으며, 달마·혜능·임제선사 등 역대 조사들의 법문도 발췌해 놓았다. (조계종출판사, 8천원)

'연꽃 법화경'



<연꽃 법화경>은 원순 스님이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자비신행회의 연꽃 법사들과 함께 법화경 모임을 가진 인연으로 엮어졌다. 구마라집의 한역 <묘법 연화경>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수왕화보살'을 '하늘의 별 큰 꽃 보살'로 번역하는 등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문으로 된 불보살의 명호와 이름도 한글어 풀어썼다. 또한 <법화경>의 내용을 선사의 입장에서 본 설잠 스님의 <연경별찬>에서 뽑은 글을 '연꽃법화경의 참뜻'으로 풀이하여 뒷부분에 실어 이해를 돕고 있다.

원순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송광사·정혜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법공양, 1만5천원)

'알기 쉬운 불교이야기'



<알기 쉬운 불교이야기>는 불교에 관한 모든 것을 간단하면서도 쉽게 설명한 입문서다.

총 9장으로 나눠진 이 책은 제1장 부처님 편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제2장 보살 편에서 여러 보살들의 역할을, 제3장 불제자 편에서 성문·연각·보살들의 수행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4장 경전 편은 팔만사천 경전들의 특징과 중생구제의 덕목들을 살폈으며, 제5장 교리 편은 불교의 핵심교리를, 제6장 사찰 편은 사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설명했다. 또 제7장 스님 편은 역대 고승들의 삶을, 제8장 일반 신도 편은 자리이타를 행하는 불자들을 다루고 있으며, 제9장 용어 해설 편에서는 일상과 관련된 불교용어들을 설명했다. 삼론종 총무원장 영관스님이 집필했다. (삼양, 9천원)

'불설대반열반경'



<열반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라쌍수 숲에서 열반에 들던 음력 2월 15일 하루 낮밤에 걸쳐 설한 내용이다. 광주 성불사 황룡 스님이 펴낸 <불설대반열반경>은 담무참 본의 <대반열반경>(전40권)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대승 열반경에 속하면서 그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열반경으로 평가받는다. 한문본 <열반경>은 본래 복잡 미묘하고 어려운 표현들이 많지만,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문 원본의 뜻을 유지하되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 표현으로 가다듬고 간결화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대화의 형식으로 다듬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금 현재 부처님이 설하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운주사, 1만6천원)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우룡 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6,000원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4×6판 / 값 3,500원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 자세, 방향하는 영가를 올바르게 천도하여 주변을 다스리고 복을 쌓는 방법,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祈禱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 성취 체험담 총 52편을 모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한 부처님의 가피를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정초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좋은 책

미타신앙·미타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 뿐만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에서 누리는 행복,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 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히 불교신앙의 결정판이라 자부하며, 불자들의 1독을 권합니다.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게 풀이 되어 있는 이 책은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바라는 분들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지장신앙·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 김현준 편역 / 값 5,000원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부록-지장보살예찬문

참회·참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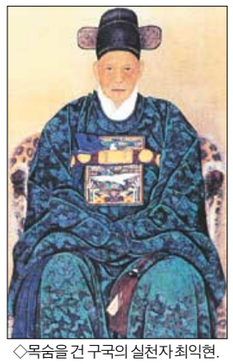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조선시대 도학을 일으켜 세운 조식.


◇실학의 근거를 제시한 허목.


◇시 · 서 · 화에 능했던 김정희.


◇목숨을 건 구국의 실천자 최익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

정옥자 지음

현암사 / 2만5천원

조선 선비 25명 삶을 엿보니…

사명감 · 지조 중시 … 국난때 더 빛나

서울대 규장각 관장인 정옥자 교수(국사학과)가 펴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는 조선 왕조 500년을 통해 구현된, 세상을 바꾸고 경략해 나가는 한국적 고품격 리더십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선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은 선비 정신과 시대 배경에 대해 개괄하고, 조선성리학이 활성화되면서 선비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조선 후기 선비 25명의 삶을 각각 조명하였다. 선비의 리더십은 사회가 어지럽고 외세가 창궐할 때, 국난을 맞았을 때 더욱 빛을 발해 왔다.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 의식으로 의리와 지조를 중요시하며 기개 있는 삶을 살다 간 선비들의 삶과 정신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란 명제를 던지고, 오늘날 지식인의 역할과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게끔 한다.

또한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서도 언급하고 그들의 글씨와 작품을 실어 왕도 어릴 때부터 이상적인 군주가 되기 위해 교육을 철저히 받았음을 보여 준다. 각 선비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의 저서, 글씨, 그림 등을 비롯, 그와 관련한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여 해당 선비의 면모를 파악하기 쉽게 하였다. 간송미술관 등 여러 자료관에서 협조받은 작품 사진과 직접 촬영한 유적 사진, 글씨 탁본 등 총 330여 컷에 달하는 도판을 해당 글과 함께 배치하여 선비와 선비 정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성리학적 이상 사회를 향한 꿈과 좌절을 겪었던 정암 조광조를 비롯해 조선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선비 퇴계 이황, 조선성리학을 구축한 성심(誠心)의 사대부 율곡 이이, 도덕적 카리스마로 문화 국가의 방향을 잡은 선비인 우암 송시열, 붓끝 하나로 조선의 금수강산을 완성한 겸재 정선, 진경 문화 시대의 조선적 시인이었던 사천 이병연, 세계화의 기틀 올린 비범한 선각자였던 연암 박지원, 위정척사의 정신으로 조선의 정체성을 지킨 재야 선비 화서 이항로, 치열한 저항 정신으로 목숨을 건 구국을 실천한 면암 최익현, 세계사적 격변기 비운의 세도가였던 운미 민영익 등 우리가 한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았던 선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조선이 세계에서 단일 왕조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낸 이들 선비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물을 가늠해 보는 것은 재미도 재미려니와, 단순한 교양 쌓기 수준의 독서를 훌쩍 뛰어넘어 시대적 안목을 얻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고통을 친구처럼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

‘고통의 바다에서 하하하 웃으며 헤엄치는 법’

페마 최된 지음 / 진우기 · 신진욱 옮김

부디스트웹닷컴 / 8천5백원

“깨어질 것은 다 깨어지라고 마음을 탁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삶이 무엇인지 일러 주려고 내 가슴을 두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내 가슴의 문을 두드리는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내 꿈은 다 어디 간 거지? 아니 나에게 꿈이라는 말조차 남아있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고통의 바다에서 하하하 웃으며 헤엄치는 법>을 한번 읽어 보시라.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가볍게 읽고 잠시 기분 전환 하도록 배려한 것도 아니다. 고통을 아주 멀리 쫓아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진지하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한다. 고통을 친구처럼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통을 대할 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 고통을 통해 모든 사람의 고통을 알게되고 좀더 넓은 연민이 생겨난다. 그때 고통은 더 이상 미운 그 무엇이 아니다. 나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어주는 끈이다. 그를 통해 삶의 깊이를 알고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는 고마운 선우가 된다. 그리고 고통의 바다 속에서 침몰하지도 않고 익사하지도 않고 유유자적하게 웃으며 헤엄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저자인 페마 최된 스님은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버클리에 소재한 UCLA를 졸업했다. 티베트 불교에서 몇 안되는 비구니이며 금강승 수행을 완성한 최초의 미국인이다. 현재 캐나다 노바 스코시아에 위치한 감포 승원(Gampo Abbey) 원장으로 있으며, 전 세계를 다니며 법을 전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전문가 서평



‘어플루엔자’

존 더그라프 외 지음 / 박웅희 옮김

한솔 / 1만6천원

현대인의 탐욕 · 물신주의 비판

美 소비지상주의 문화 등 ‘사회병 인식’

진단 · 처방 · 치료 등 현실적 해결책 제시

이미 우리 시대의 고전이 된《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를 쓴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여사가 라다크를 처음 방문했던 1975년, 이 지역 주민인 체왕 팔조르는 “여기는 가난 같은 건 없어요”라고 자부심에 가득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역공동체 문화에 그토록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청년이,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은 83년, 저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이 우리 라다크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린 너무나 가난해요.” 빈약한 자원과 혹심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과 협동,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생태적 지혜를 통해 천년 넘게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왔던 이 라다크에, 그 짧은 시간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원인은 바로 서구식 ‘개발’의 시작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환경파괴와 사회적 분열이 일어났고, 인플레이션과 산업이 등장하고, 서구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선망이 일어났다.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생태적 균형과 사회적 조화가 산업주의의 압력 밑에서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것은 필연이 아닌가” 심지어 “이것은 ‘진보’가 아닌가”라고. 그러나 이처럼 무제한적으로 팽창하는 인간의 욕구, 특히 소비에 중독된 서구식 욕망의 구조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 그것도 ‘전염병(유행병)’이라고 진단하는 흥미로운 분석서가 번역되어 나왔다. 이 책의 분석과 진단을 빌리자면, 앞서 말한 라다크에도 70년대 말부터 ‘어플루엔자’라는 치명적인 괴질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인의 물신주의와 소비중독 증세를 비판한 책《어플루엔자》는, 소비지상주의 사회인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함께 새로운 생활양식과 인간상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저작이다. 특히 이 책이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미국 소비문화의 병폐를 어플루엔자라는 ‘사회병’으로 인식하고, 질병의 진단과 처방 그리고 치료과정을 차용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존 더 그라프를 비롯한 저자들은 이 병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새 밀레니엄의 여명을 뒤덮은 번영과 활황과 낙관적인 분위기의 한 복판에서 시작된 강력한 바이러스가 미국 사회를 침범하여 우리의 지갑과 우정과 가족과 공동체와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어플루엔자’라 부른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의 경제적 모델이므로, 모든 대륙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다.” 즉, 세계화 시대에 이 병은 이미 세계의 유행병이 되었으며, 이제 “지구 자체를 거덜낼 징후조차” 보이고 있다.

저자들은 고독감, 늘어나는 파산, 점점더 높아지는 노동강도, 환경오염 같은 증상도 사실은 어플루엔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소비지상주의 사회의 강박적 물질욕이 우리의 삶, 건강, 가족, 공동체, 환경에 입히는 피해를 심도있게 파헤치고 있다. 또한 쇼핑중독, 과중한 스트레스, 가족의 동요 등 병의 제증상에 대한 진단과 그 증상들의 역사적, 문화적 기원을 제시하며, ‘새로운 검약생활’, ‘자발적 단순성 운동’ 등의 치료법과 함께 가족과 공동체를 재건하고 지구를 되살리고 존중할 전략들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흥미로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어느정도 약점이 있다. 그것은 지극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분석들을 마치 생물체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처럼 묘사하려고 애쓰다보니 오히려 서술구조가 산만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여러 사람의 저자가 함께 작업한 책이라는 점, 영상물을 글로 풀어 쓴 책이라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어쩌면 불가피한 약점일지도 모르겠다.

“참다운 문명이란 자발적 포기의 기술이다”라고 간디는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어플루엔자에 감염된 채 맹목적인 소비와 폐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문명과는 정반대의 길, 즉 야만과 자멸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몇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탐욕과 물신숭배의 ‘병동(病棟)’을 직시하고 참된 행복을 위해 ‘자발적 포기의 기술’을 배우라고 촉구하는, 보기드문 ‘죽비소리’이다.

■변홍철/ 녹색평론 편집장

〈어플루엔자〉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인 존 더그라프, 대안운동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데이비드 왠, 토머스 네일러 등이 함께 만든 책으로 현대사회의 ‘소비 중독병’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

고요아침 전화 : (02) 322-0036 팩스 :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 (031) 945-2900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다

동자승 이야기
얼굴



KBS 인간극장 5부작
MBC 아주특별한 아침 방영!

산사의 샘물처럼 맑은 동승의 얼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천진난만한 얼굴, 찌든 세상의 마음을 홀홀 다 털어 내주는 작은 스님들의 부처 같은 얼굴, 꽃 보다 아름다운 작은 스님들의 산사이야기.
사람은 환생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성철 큰스님과 성철동자의 아름다운 인연. 그 동자가 살고 있는 백화도량 ‘해인사’ 일곱 동자와 무학스님의 살아가는 이야기
♣ 이 책을 사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선재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지엽 · 정성욱 글
올칼라 | 값 9,900원

무심 경허 큰 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텅빈 산, 북을 잡아도 한 치 걸림도 없이 문장 구절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글은 만엽이요 시이다. — 중앙일보 경허 큰스님 지음 | 법여 석 명정 | 값 8,500원

마음 꽃 경허 큰 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 조선일보 〈편집자 리터〉 경허 큰스님 지음 | 값 11,000원

편지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눈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가 ‘금언집’이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증언이다 — 중앙일보 경봉 만해 성철 효봉 스님 外 | 값 9,500원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법답게 사는 사람을 섬겨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이란 살아 숨쉬는 한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 존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아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욕망의 지속을 의미한다. 욕망을 버리고 끝고 향기롭게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까지도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은 욕망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욕망을 소멸시키는 것이 최고라는 말씀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사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무쌍한 세상이기에 우리들이 최선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사이 무기치한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의 도래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도 한다.

이러한 점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부처님 당시에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율사가란라는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도 부처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의 성십니다. 부처님. 자신을 칭찬하지도 않고 남을 헐뜯지도 않으면서 바른 뜻을 말씀하셨나이다. 들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시고 닫혀 있는 것을 열어주시며, 혜매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 주시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습니다"고 찬탄했다.

장자란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벌의 총수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당시 인도가 아무리 계급사회였다고 하지만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자들의 모임에서 부처님을 초빙하여 섬김만한 사문이나 바라문은 어떠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물었던 것이다. 인도 사회에서 사문이나 바라문은 가장 존경 받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도자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물은 것이 된다. 한편으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던 부처님의 뭡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대답을 듣고 나자 장자들은 진심으로 부처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자신을 내세우고자 남을 폄하하지도 않았으며, 법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법답게 사는 것을 '사물을 보고 탐욕심을 일으키지 않고, 애착을 벗어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구나

탐욕·애착 벗고 마음 안정된 사람
사랑·존경하며 걸림없이 살아야

인인 공자님도 사람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남기고 있다. <논어>에 의하면 제자가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 공자님의 의견을 물었을 때, 사람도 섬기지 못하거늘 하물며 귀신을 섬기느냐고 핵망하는 것이 그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이기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잡아함경> 제11: 280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선 사람을 섬기되 법답게 사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코살라국의 나가라반다성에 계실 때 성안에 거주하던 장자들을 위한 설법에서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공경하고 섬기지 말아야 하느냐?' 고 물으면 '눈으로 사물을 보고 탐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 법답지 못한 사문과 바라문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하라.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느냐?' 고 물으면 '눈으로 사물을 보고 탐욕심을 내지 않으며 애착을 벗어나 그 마음이 안정되어 법답게 행동하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 고 대답하라." 이러한 설법을 들은 성안의 장자들은 "훌륭하즐가하여 진리를 찾는 수행자나 바라문에게 이러한 문제는 핵심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탐욕과 애착을 벗어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불교에선 무소유라 말한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다. 따라서 <잡아함경> 제35: 973경에서는 즐가하여 부처님의 문하에서 공부하는 이유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서"라 말한다. 이 세 가지를 끊어버리면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현세와 내세에서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즐겁고 기쁘며, 타는 듯한 갈등과 분노에서 벗어나 스스로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답게 산다는 것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 세속에 살더라도 남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삶뒤, 걸림없이 살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는가. 누군가의 존경과 섬김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주변 가까이에 섬기며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그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지상 백고좌

범룡 스님

(대구 비로암 조실)



◇손을 들어가며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범룡스님은 세수 89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다. 금강같은 뜻을 세워 흔들림없는수행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범룡스님.

"진실한 마음 걸림없어 부처님과 통하죠"

자신을 엄히 다스리는 일
수행하는 사람들의 기본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넓고 큰 행원은 훳찍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들뼈 부처님을 찬탄하며, 셋뼈 넓리 공양하며, 넷뼈 업장을 참회하고, 다섯 째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며, 여섯째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일곱뼈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며, 여덟뼈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며, 아홉뼈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며, 열뼈는 지은 바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것이다"하는 구절이 나온니다.

불교에 귀의한 불자들이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수행 정진하여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참다운 수행을 통하여 공덕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알게 된 것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모든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교 수행의 골격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절을 찾아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하고 공양하는 일을 합니다. 또 법회에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발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참회(懺悔) 또한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기 위해 행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懺)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며, 회(悔)는 이 다음에 오기 쉬운 허물을 조심하여 그 죄를 미리 깨닫고 아주 끊어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참회를 이야기 할 때 업장을 참회한다고도 하는데, 이 업장 참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남자여,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으로 내려오면서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없고 가이없어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리니, 내 이제 굳건한 삼업으로 멀리 법계 극미진수세계 일체 불보살 전에 두루 지성으로 참회하되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굳건한 계행의 일체 공덕에 머물러 있으오리다' 하는 것이니라."

업은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가 있다는 것은 행위를 하는 본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인간의 본성, 즉 다시 말해서 본래 자리인 진리에서 벗어난 착각된 자아를 본체로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본래의 밝은 자성을 잊고 자성을 어긴 행위는 그 모두가 업으로서 인간 본분과 어긋납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무한하고 일체와 더불어 조화되고 창조와 환희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인간 본성을 어기고 착각을 일으켜서 그릇된 자아를 설정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참다운 수행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참회하였으면 마땅히 일체 죄업이 소멸될 것을 믿고 스스로 청정광명심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바르게 행하고 쉼 없이 수행한다면 어두운 업장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선 정진하며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오고 있는 범룡스님.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불교를 올바로 신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교를 바르게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궁극에는 해탈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걸림이 없고 멈춤이 없으며, 부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불보살님이 세우신 '고통 받는 중생을 반드시 건지겠다'는 행원력에 의지하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선 수행은 마음을 닦는 공부로 부처님 당시부터 매우 중요시 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불자들에게 참선 수행을 권합니다. 참선은 마음속의 온갖 번뇌와 망상을 깨끗이 하고 일념에 머물기 위한 수행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삼매(三昧)라고 하는데, 마음을 한 자리에 머물게 하여 움직이지 않고 또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명념을 여의는 것을 뜻합니다. 삼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속면 상태가 아닙니다. 지혜 광명으로부터 다시 이 세상 본래의 모습을 비추어내는 적극적인 활동이 그 가운데에서 펼쳐집니다. 이전의 상식적 견해를 넘어 깨침의 입장에서 세계를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조 혜능스님은 "지혜로 관조하고 일체의 법에서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것"이 견성(見性)의 도라고 하였습니다. 삼매에 들기 전에는 불법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모두 기복 불교입니다. 수행하는 불교를 믿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선 수행 하십시오.

최근 선(禪)에 대한 관심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진리의 영원성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고대의 종교사상에 귀의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모습이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식혀주는 선의 위대성은, 그러나 무문별한 선 관련서와 단전호흡법 등의 범람으로 올바른 부처님의 깨달음에 다가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끔 진정한 선 수행은 무엇이냐고 물어오는 불자들을 대할 때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선 하는 데에는 여러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옛

참선수행은 이전의
상식적 견해 넘어
깨침의 입장에서
세계를 재인식 하는 것

날에 조주스님은 무(無)자를 생각 생각에 이어서 걷고, 서고, 앉고, 누울 때 눈앞에 마주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금강 같이 굳은 뜻을 세워 한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다보면 간혹 광채를 보게 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해 살피고 다시 관찰하다가 혼침이나 산란이 생기면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한 번 만번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삼매의 경지에 들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마치 흐르는 물 같이 마음과 경계가 고요해서 쾌락하고도 편안합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는 덕 높은 선지식을 찾아서 소집을 충분히 움직여서 치우침도 바름도 없게 하고, 다시 수행 정진하여 깨달음의 묘한 법을 증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에 조금 이었다고 자만하거나, 잘 되지 않는다고 자꾸 꾀을 찾아보고 그것에 의지하려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중단하고 하다보니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많은 이들이 참선을 어렵게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쉽게 삼매를 체험하겠다는 욕심도 버리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마다 말없이 참회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보고 그 본래 자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천번, 만번이라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다보면 저절로 깊이 열립니다. 비록 이번 생에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불자가 걸어가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기자가 본 범룡스님

범룡 스님은 올해 세수 89세이시다. 1914년에 평안북도 맹산에서 태어나서, 35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해 만화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해방되기 몇 해 전 오대산 상원사를 시작으로 수덕사, 범어사, 해인사 등 전국 제방 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다. 예전에는 동쪽의 금강산, 서쪽의 구월산, 남쪽의 지리산, 북쪽의 묘향산 등 네 곳의 산에서 방부를 튼 수좌만 인정을 했다는데, 스님은 파계사 고송 스님과 더불어 네 곳 모두에서 참선 수행을 한, 몇 안되는 선승이시다.

"법문 안한지 오래 됐어요. 의출도 않고 거의 매일 비로암에서 지냅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나이 드니까 그저 기운이 조금 조금 줄어들 뿐이에요. 매일 밤 10시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3시 쯤 일어나요. 실컷 자는 겁니다. 한창 수행 정진하던 젊은 시절에는 3시간도 못 잤어요. 3시간 자면 딱 좋은데, 옛날 스님들은 2시간만 자라고 했거든요. 2시간 자고 눈을 떠 보면 잠도 안 깨고 뭔가 덜 잔 것처럼, 찜찜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자리가 썩 없어지듯이 한다니까요. 또 70이 넘으면 물에 글을 쓰는 것과 같아서 쓰는 동시에 지워져 버린다는 비유가 있는데,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그게 참말입니다." 범룡 스님은 요즘 탄허스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CD에 수록한 '동양 사상' 시리즈를 듣고, 불자들이 갖다 주는 책도 읽는다. 그런데 공부하는 일이 예전과 같지 않아 듣고 볼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책을 놓고 나면 뭘 배웠는지도 잘 모르겠단다. CD플레이어 조작도 쉽지가 않아서 신도들이 올 때면 배워서 사용하다가 또 하루이틀 지나면 조작법을 잊어버리곤 한단다.

범룡 스님은 한암 스님에게서 받은 '무(無)' 자 화두를 평생 참구하며 수행자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깨달음에 대한 스님의 구도열은 대단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선방을 걸어서 찾아다녔다.

범룡 스님의 방에는 독특하게도 세계지도, 대한민국 전도가 나란히 걸려 있다. 왜 그걸 붙여놓으셨나고 여쭈었다.

"예전에 인도도 가보고, 중국 돈황, 캐나다도 가보았어요. 그때 샀던 건데, 그냥 붙여 놨지요. 사실 내 어린시절 꿈이 세계 일주 였거든.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가끔 바라보노라면 다 가본 곳 같아요. 아이구, 오늘 정말 쓸데 없는 말을 많이 했네요. 그게 어느 스님 말인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하고 생각하면 안한 것만 못하다'고 했는데…"

남전스님의

스님이야기 퇴휴스님 (上)



초기경전에 부처님께서는 절을 세우기에 적당한 장소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성(城)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으면서 숲이 있는 고요한 한정처(閑定處)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연급은 그 당시 출가교단의 탁발(托鉢)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음식이나 의복, 탕약등의 생필품을 공양받기 위해서는 신자들과의 교류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최초의 '절'을 백마사(白馬寺)로 보고 있는데 이곳은 관청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불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세력은 왕족을 중심으로한 지배 계층이었다. 자연히 '절'은 궁궐과 도시에 있었을 것이다. 신라경주의 황룡사 같은 절은 시내 한복판에 거대한 규모로 자리잡고 있었다. 고려시대에 불교는 건국 이념으로서 왕족, 귀족, 평민들 사이에 폭넓게 받아들여져 도시와 촌락에 많이 건립되었다. 조



그림 · 문병성

선의 건국은 이러한 절의 근본 기반을 흔들 정도의 큰 사건이었다. 승유억불(崇儒抑佛)의 이념적 배경과 고려 왕조의 정신적 가치였던 불교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상황들이 맞물려 절과 스님들을 산으로 내모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삼국시대에 전해졌던 선종(禪宗) 계통의 불교 영향으로 깊은 산중에 수행적로서의 가람(伽藍)이 조성되었음도 간과할 수는 없다.

'절'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도심포교당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도시의 변두리나 복판에 그것도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전법(傳法)의 원력 하나로 수행하시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선입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보통은 절 하면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과 기와, 단청등을 떠 올린다. 그러니 빌딩속의 절에는 거부감부터 들 것이다. 포교당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절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보다 해 도심에 포교당이 생겨는지, 빌딩에서도 점포세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혹시 점 집은 아닌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느라 훨씬 많은 시간을 소비하곤 한다. 그리고 그럴때마다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사실 큰 절에선 살기가 훨씬 편하다. 자신의 소임만 충실히 해내다면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수행시간이니까.

그러나 포교당은 다르다. 기도는 물론 각종 법회, 행사에다가 재(齋)를 지내고 신도들의 상담, 절의 경제적 운영까지 그야말로 팔방미인이 아니면 해내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도심포교당 10개 중 6~7개가 1년 내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솔직히 고백하면 나도 문을 닫고 싶은 적이 여러 번 있었을 만큼 포교당의 생활은 어렵다. 이제 겨우 5년 정도를 살고 난 나의 푸념이다. 그럴 때 내게 용기와 격려를 해 주시던 스님이 퇴휴스님이다.

스님은 나보다 5년 정도 먼저 포교당을 열고 정진했다. 삼각산 운가사에서 몇 명의 청년 불자들과 함께 겨우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여 도봉구 창동역 앞의 건물 귀퉁이에서 땐 시멘트 바닥에 새우잠을 자며, 베니어판의 입시 불단에 석굴암

새우잠 포교로 종합도량 일궈
굳은 의지·탁월한 기획력 존경

부처님 사진을 모시고 시작한 포교활동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 자락에 2백여평의 종교 부지를 분양받아 등록 신도 2천여 세대의 거대 도심 포교당으로 자리 잡았다. 나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고비를 넘긴 도심 포교의 베테랑 스님인 셈이다. 나는 스님에게서 도심 사찰로서의 본연의 기능에서부터 세세한 운영의 방법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지금은 포교의 도량이 정말 필요한 때라는 스님의 확신에 찬 말씀에서 생각을 고쳐 먹곤 했다.

경제적으로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여유가 없어지는게 보통이다. 포교당의 살림도 그러해서 나는 그때 그때의 상황을 모면하곤 하는데 스님은 그럴때일수록 보다 치밀한 계획과 기획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스님이 주지로 계시는 법장사의 신행활동을 살펴보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간다. 올해로 개원 12주년을 맞는 법장사는 유치원을 포함한 종합 기능의 도심 사찰 건립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대중 모두가 정진하고 있다. <계속>

■서울 창동 정혜사 주지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함께하는
한울림국악기

국내최초의 등록상표 "한울림"으로 국악기의 브랜드시대를 개척한 한울림은 서울과 부산에 직영전시장과 전국 10여개 도시에 한울림악기 전문 대리점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국악기 전문 제조, 판매업체입니다.

◆생산현장 – 경기도 양평에 폐교된 학교를 사용하는 한울림 양평공방연구원은 그 외형적인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종합악기를 생산한다는 내용면에서도 그 최대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한울림공방이 가장 자랑스럽게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품질을 지향한다는 품질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 타악기 PRERCUSSION INSTRUMENTS
고정음을이 있는 악기와 고정음을이 없는 악기로 이루어진다.
●장구(JANG-GU) ●북(DRUM)
●징(CHING) ●뽕가리(Kkwaenggwari)

◆ 현악기 STRING INSTRUMENTS
악기의 몸통에 줄을 매어 이 줄을 통해 소리가 나는 것이다.
●가야금(KAYAGUM) ●아쟁 ●거문고 ●해금
●개량 가야금(IMPROVEMENT KAYAGUM)

◆ 관악기 WIND INSTRUMENTS
입으로 김을 불어넣어 혀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대금/소금/단소(TAEGUM/SOGUM/TANSO)
●개량대금/개량단소(IMPROVEMENT TAEGUM, TANSO)
●태평소 ●피리

◆ 악 세 서 리 ACCESSORIES
◆ 소 품 STAGE PROPERTIES
◆ 유아용악기 CHILDREN'S INSTRUMENTS
◆ 음반/비디오/교재 CD-ROM/VIDEO

한울림국악기 제품문의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6-16 TEL : 02)521-3277 / FAX : 02)521-3278
부산사무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 3동 144-2 TEL : 051)501-3191 / FAX : 051)501-3192
양평 공방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190 TEL : 031)774-1007 / FAX : 031)774-1006

"승가건강비법 신비의묘능"

[마·가·목]



신승이 전신 회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도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내려오는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신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승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이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탓재로 하여(한박스 60통) 한달분을 보시하게도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조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희미다를 감게 하여 두뇌세포를 촉진 통통,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여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이혈도 불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 험 사 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상담문의 원주태고 보우국사 열반시지 소셜산왕방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차수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행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 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풀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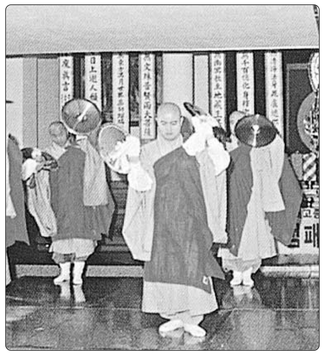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 (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공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 책임보험 3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모 2003학년도 불교학과, 범패과, 불교미술과 신(편)입생 집

1982년에 교계 최초로 설립하여 21세기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20년 전통의 불교 대학에서 정진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가. 불교학과 : 정규생(50명) 통신생(50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불교적 인격과 이상사회구현에 앞장서는 지도자 (스님 · 포교사)가 되도록 하며 예불 · 불공 등 기초불교의식까지 습득하도록 지도함. 졸업증은 유수종단의 지도자로 활약 중.
나. 범 패 과 : 정규생(30명)
인간문화재 제 50호 송암, 백운, 일응 큰스님의 어맥을 이어 불교신행, 예술의 꽃인 영산재를 이론과 실기를 겸해 지도하여 교화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00% 전로 확정.
다. 불교미술학과 : 정규생(30명)
인간문화재 제 48호 만봉 큰스님의 화맥을 이어 불교미술 (단청 · 불화)의 역사와 이론 및 특히 실기와 불교 교리를 함께 배우며, 문화재 수리 기술자시험 특강을 통해 취업 지도에도 탁월하여 단청장, 불모 등으로 활약함.
※ 각과 공히 편입생 10명 내외

2.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불교미술과)

3.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2년 12월 2일 ~ 2003년 2월 17일 (평일 오후 5시까지, 토 · 일요일은 휴무)

4. 전 형 일
※ 2003년 2월 22(土) ~ 23(日)일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대학 교학처 :
서울 성북동 태고사 02-763-0229
02-763-8536
나. 태고종 총무원 :
서울 성북동 태고사 02-745-2030-2
다. 태고종 지방교구 종무원
라. 경 서 원 : 조계사 앞 02-733-3346

※ 교 수 진 ※

정태혁 교수 : 선학개론, 밀교사상	김미선 교수 : 한문
박운곡 교수 : 불교학개론, 대승사상	김치온 교수 : 철학개론
	권영관 교수 : 불화실기
김법장 교수 : 정토사상	이상배 교수 : 불화조형실험
심상현 교수 : 불교의식론	김희정 교수 : 단청실기
백설운 교수 : 불교의식	조윤철 교수 : 단청실기
김수암 교수 : 금강경	손연철 교수 : 불화조형실험
최원허 교수 : 상주권공	주명철 교수 : 중관사상
정청봉 교수 : 상주권공	이기선 교수 : 불화론
민법현 교수 : 불교학	엄혜용 교수 : 교리발달사
김재영 교수 : 포교론	노태범 교수 : 수묵화
이경우 교수 : 비교종교	오지연 교수 : 중국불교사
이형련 교수 : 승가경영론	박재걸 교수 : 유식사상

※2002년 현재

한국불교 태고종립 동 방 불 교 대 학 ☎ 02-763-0229,8536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어디까지 왔나 (上)

현대사회에 있어서 문화는 바로 돈이다. 문화야말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래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콘텐츠 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세계 산업 판도를 재편하는 '폭풍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가 세계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아이템으로 빠른 시간내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문화콘텐츠다. 특히 우리전통문화의 흐름과 함께 해온 불교문화콘텐츠는 엄청난 문화적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불교문화 콘텐츠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프로젝트들은 어떤것이 있는지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캐릭터 시장 기상도 '맑음' 게임·만화·모바일은 '흐림'

상업성·대중성 벽에 막혀 고전
인력난·자금 종단차원 지원 필요



◇한국불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응용한 캐릭터를 개발중인 정석규(사진) 호남대 교수 등 학계에서도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불교문화콘텐츠의 캐릭터 시장 기상지도는 '맑음'인데 비해 그 나머지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모바일 등은 '흐림'이다. 캐릭터 개발은 미약하나마 96년부터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산하 기획단체들과 불교 관련 중소기업 업체들에 의해 꾸준히 개발돼 왔다. 연꽃, 만(卍)자, 사천왕, 동자승, 아기코끼리, 아기부처님 등이 열쇠고리, 티셔츠, 복주머니, 신용카드, 현수막 등에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 캐릭터는 아직도 대중화에 성공한 것은 아니나 어림잡아 150여개가 넘을 정도로 일반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제2차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 공모에서 정명희 앤알케이의 '만봉스님 단청문양의 산업적 활용방안'과 정석규 호남대 인터넷미디어대학 교수의 '한국불화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로 재창조' 프로젝트와 투알엔디의 '고려팔관회를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3개 작품이 선정됐다. 현재 이 작품들은 6월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해 마지막 마무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불교문화콘텐츠 사업의 대부분이 모두 캐릭터 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다. 일반시장들은 빠른 시간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불교문화콘텐츠는 수요창출이 적은 캐릭터 쪽에 머물러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자본을 꼽는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투자비가 많이 들어 큰 자본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보면 오락이나 대중성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진 수요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과거 서유기를 응용한 '니르바나' 게임이 등장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또 디지털 콘텐츠 개발업체인 '불교사랑'이 '공작왕', '퇴마록', '탄트라'등의 불교소재를 개발했지만 게임매니아들의 시선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애니메이션은 올해 개봉되는 '오세암'이, 모바일 분야에서는 스타링이 제공하는 '반야심경', '정율스님의 노래하는 기도' 등 간단한 통화연결음 서비스가 고작이다. 1백개가 넘는 찬송가가 서비스 되는 다른 종교 컨텐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불교문화컨텐츠 사업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아직은 '상업성'과 '대중성' 이란 높은 벽에 가로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선행되야 할 과제는 부족한 인력난 해소와 투자개발비 확보다. 불교계에서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립학교내의 컨텐츠학과 개설 추진과 정부 산하 단체의 아카데미 교육 등에 우수 인재들을 파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05년까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4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또 종단차원에서라도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특별 예산이라도 마련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호남대 인터넷미디어학부 정석규 교수는 "관심은 많은데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들이라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우리문화원형 콘텐츠디지털화 공모나 대한민국콘텐츠 수출대상, 콘텐츠 투자유치 박람회 등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에서 한여름에 동자승과 노승이 나룻배에서 대화하고 있다. 뒤에 암자 세트가 보인다.

영화 '봄·여름·가을 그리고 겨울'

독일과 공동제작·배급

6월 개봉예정

김기덕 감독의 신작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독일의 판도라 필름과 투자를, 바바리아 필름 인터내셔날과 배급을 공동으로 맡는다고 LJ 필름이 17일 전했다.

'봄 여름 가을…'은 아름다운 연못 위의 암자에서 벌어지는 인생 이야기를 4계절에 비유해 그려낸 영화로 김종호, 서재경, 김영민 등 신인배우가 성장해 가는 스님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며, 연극인 오영수가 노승으로 출연한다.

지난해 5월 경북 청송의 주산지에 암자 세트를 지어 첫 촬영을 시작한 '봄, 여름…'은 3월말까지 봄 분량 촬영을 마친 후 6월쯤 국내 개봉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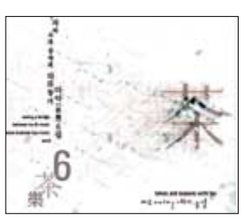
茶樂음반 제6집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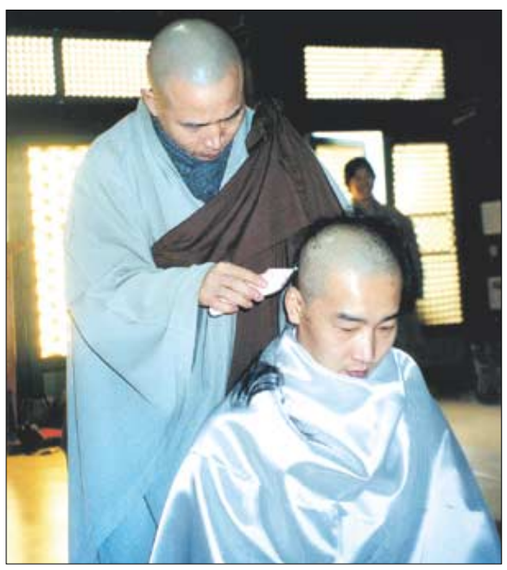
설날등 명절정취 주제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다악(茶樂) 음반 제 6집 '차로 이어지는 겨레, 숨결'을 출시했다.

이번 제 6집에는 설날, 삼짇날, 단오, 칠석, 동지 등 우리 민족의 명절에 느끼는 차의 정취를 주제로 삼아 표현했다.

첫 곡 '미풍에 실려온 미향(美香)의 미소'에서는 설날에 맛보는 차의 향과 그 정취를 노래했으며, '삼짇날 삼화령'은 봄기운이 태동하는 계절에 마시는 즐거움을 서정적인 느낌으로 연주했다. '단오'에서는 25현 가야금 독주로 흥겨운 단오날의 모습을 선율로 옮겼다. 이외에도 '칠석' '동지'의 정취를 표현한 곡도 수록돼 있다.





연극 '붓다를 훔친 도둑' 배우 수계·삭발

연극 극단 '예삶'은 불교연극 '붓다를 훔친 도둑' 개막공연을 앞둔 지난 21일 조계사 덕왕전에서 종하 스님(서울 관음사 주지)을 계사로 김종구(입승역), 이상직(원각 스님역), 최병규(시자 스님역), 전형재(말구역) 등 4명 배우들의 수계및 삭발식을 가졌다. 김종구씨는 "스님을 모시고 수계식과 삭발식을 거행하니 진짜 출가하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방송 프로그램

설날 특집 하일라이트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 부산 FM 89.9 MHZ / 광주 FM 89.7 MHZ / 대구 FM 94.5 MHZ / 청주 FM 96.7 MHZ / 춘천 FM 100.1 MHZ

△**무명을 밝히고**(29일, 오후 5시10분~오후 6시)-민족사 윤창화 사장이 불교계 양서를 소개한다. △**즐거운 설날 고향 가는길**(30일, 낮 12시20분~밤 9시)-귀향길 전국의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청취자들의 고향 소식을 전해준다. △**거룩한 만남**(31일, 오전 9시5분~오전 10시)-장애인 복지시설 '원주 소쩍새 마을'을 찾아가 설날 풍경을 전해준다. △**설날특집 대담 '계미년, 새해가 밝았네'**(2월 1일, 오전 6시30분~오전 8시)-심우성 공주민속박물관장과의 대담을 통해 설날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설날특집 9시간 생방송 '고향의 정, 가득히'**(2월 2일, 낮 12시10분~밤 9시)-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오락이 함께하는 귀성길 종합가이드 △**라디오 열린 마당 '휴먼닥터'**(2월 3일, 오전 8시30분~오전 9시)-신호철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건강정보를 알려준다.

불교텔레비전 <ch 32>

△**도올 김용옥 특강**(31일 오전 8시 10분~오전 8시 50분)-지난해 10월 삼각산 도선사에서 열린 도올 김용옥 씨의 '21세기와 한국불교' 강의. △**장미화 콘서트**(31일 오전 8시 50분~오전 10시 30분)-불자 가수 장미화 씨의 가수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청화스님 특별법문**(31일 오후 1시 30분~오후 2시 30분)-'금강식론'에 대한 청화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 △**특집다큐 '선광사'**(31일 오후 3시~오후 5시)-백제가 일본에 전파한 불교의 모습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지를 추적한다. △**특집 다큐 '목조각장'**(2월 1일 오후 8시 10분~오후 9시 40분)-불교 목조각가 박찬수(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씨의 작품과 그의 예술관을 만나보는 시간. △**불교와 천주교의 만남**(2월 1일, 오후 11시 20분~오후 11시 50분)-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신년특집 대담으로, 공소사 주지 청아 스님과 이창영 주교회의 사무차장 신부가 대담자로 참여한다. △**성창순의 판소리와 민요-국내 최고의 명창 성창순**(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씨가 판소리와 민요를 들려준다.



한번 클릭으로 … 건강 설계 OK

의료정보 얻고, 금연·다이어트 성공하고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금연이나 금주, 다이어트 등 건강 계획을 짠다. 올해 건강 설계는 인터넷 건강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최근 인터넷 건강사이트가 급증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간단한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연과 다이어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종합건강사이트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길라잡이(http://healthguide.kihasa.re.kr)'는 흡연과 음주, 영양상태, 스트레스, 체중조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전국의 병원과 보건소, 약국의 위치와 전화번호 검색도 가능하다.

'내나이닷컴(www.nenai.com)'에서는 건강 생활습관을 테스트하는 53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을 하면 자신의 건강 나이(health age)를 알려준다. 매일 10문제의 건강지식 테스트를 거쳐 500문제를 맞추면 '내나이 의사면허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1대1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에임클럽(www.aimclub.com)'을 이용해보자. 자신의 키와 몸무게, 병력 등을 입력하는 개인 차트를 작성하면 의사의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연사이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범국민금연운동본부가 운영하는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or.kr)'는 금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도전 담배 탈출' 코너에서는 개인에게 적합한 금연 프로그램을 짜주고 '금연 배움터'에서는 담배 유혹 물리치기, 금연 체조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초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금연 서포터즈' 코너도 운영한다.

건강사이트 '케어캠프닷컴(www.carecamp.com)'은 금연을 진행 중이거나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만든 일기장을 공개하고 있다. 또 금연 코너에 가입하면 자신의 금연 결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선포할 수 있다.

목표달성 사이트 '애트빅(www.atvic.com)'은 금연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주는 사이트. 금연그룹에 참여해 목표를 달성하면 해당그룹 회원들의 가입비 80%를 성공 축하금으로 준다. '건강샘(www.healthkorea.net)'의 '금연채널'에서는 니코틴 중독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1일간 집중 금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다이어트사이트

'자생한방병원 비만클리닉(www.jasengdiet.com)'에서는 체질과 비만의 원인을 분석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사이버 건강진단' 코너에 들어가서 자신의 비만 원인을 점검한 뒤 원인에 맞는 클리닉으로 들어가면 한방 치료법, 운동요법 등을 볼 수 있다.

'엔헬스(www.n-health.com)'를 활용한다면 간단한 건강체크부터 자가진단까지 자신이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기 쉽다. 먼저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비만도를 측정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 식단, 칼로리 등을 알 수 있다.

'뱃살.com(www.batsal.com)'은 남성 전문의가 만드는 남성건강 사이트로, 뱃살빼기에 성공한 경험담, 전문가 상담, 성인병 클리닉 등을 제공한다.

여수령 기자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콩나물 잡채

콩나물 400g, 당면 100g, 진간장 3큰술, 흑설탕 1큰술, 참기름, 통깨, 후춧가루 약간씩

1. 콩나물을 냄비에 넣고 뚜껑을 덮어 익힌다. 당면은 찬물에 담가 충분히 불렸다가 적당한 길이로 자른다.
2. 콩나물에 김이 한 번 오르면 뚜껑을 열고 진간장, 흑설탕을 넣고 끓이다가 물이 생기면 당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계속 저으면서 조린다. 국물이 없어지고 당면에 윤기가 생길 때까지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볶아야 오래 두어도 당면이 붇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통깨, 후춧가루를 넣고 한 번 뒤적인다.

〈자료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전자종



서울 종로구가 구의 상징물인 보신각종을 1/18로 줄여 만든 '전자종'을 선보인다.

무형문화재 제112호(금속공예) 원광식 씨가 제작한 '전자종'은 종각에 설치된 타봉기로 타종도 할 수 있고 리모컨을 이용해 보신각종 원음, 제약의 타종행사 실화, 관련 전설, 가야금 연주 등을 들을 수 있다. 폭 240×300mm, 값 29만 7천원. (02)732-1520

보신각종 1/18 축소 리모컨 이용 각종 음향 청취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시험대 위에 오른 자비심

결혼한 지 1년이 된 젊은 주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발랄하고 예쁜 모습의 이 주부는 퇴근길마다 겪게 되는 마음의 갈등 때문에 괴롭다고 하면서 애교스럽게 웃었습니다.

직장에서 컴퓨터 일을 하고 있는 부인은 퇴근 후 시장에 들러 하루 먹을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채식을 좋아하는 남편은 특히 콩나물을 좋아하는데 부인은 콩나물을 살 때마다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돼 괴롭다고 합니다.

사연인즉, 부인이 살고 있는 시장입구에는 80이 넘은 할머니가 콩나물, 파, 양파를 팔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시든 쪽파나 대파를 다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싱싱한 쪽파나 대파를 사서 싱싱할 때는 팔지 못하고 시든 다음에 다듬어서 팔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줘라" 하는 동요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부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말하자면 장사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할머니는 돈을 주고 새 물건을 사서 헌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지 싶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남는 이윤이 있는지 할머니는 여름의 땡볕아래서나 손발이 꽁꽁 어는 추운 겨울에도 늘 그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부인이 할머니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신혼의 보금자리를 차린 날이라고 합니다. 살림 정리가 끝난 부인은 남편에게 멋진 요리로 저녁 밥상을 차려주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입구에 있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남편은 아내가 말릴 사이도 없이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세장을 꺼내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콩나물을 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멋진 요리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부인은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있는 콩나물을 보는 순간 기가 막혀서, '웬 콩나물이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항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내 손을 잡으면서 "꼭 우리 외할머니 같아서"하며 씩 웃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애잔한 슬픔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은 더 이상 항의를 못하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콩나물밥을 해서 남편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콩나물을 유난히 좋아하는 남편의 식성 때문에 그날 이후로도 부인의 장바구니엔 늘 콩나물이 담기게 되었는데, 처음 얼마간은 자신도 마음의 갈등 없이 시장입구에 있는 그 할머니한테서 콩나물을 샀다고 합니다. 마치 남편의 외할머니한테서 콩나물을 사는 것 같은 친근감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남편의 외할머니는 콩나물을 키워서 들고 나와 콩나물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들딸들이 모두 말렸지만 외할머니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콩나물을 키워서 팔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게 된 외할머니는 번 돈의 전부를 아버지 없이 크는 가엾은 외손자를 위해서 썼는데, 그 덕분에 부인의 남편은 어린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용돈을 썼다고 합니다. 부인의 남편은 지금 공학박사로, 유수한 연구소의 연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성격도 그늘진 데 없이 밝아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다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그런 성격이 외할머니의 헌신적 사랑덕분이라고 하면서 외할머니에 대해 한없

'마음의 동요' 사랑으로 정화시켜야

요. 그러자니 남이 하지 않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할머니는 하루 종일 길바닥에 앉아서 헌 물건이 된 파를 다듬어서 파는 게 일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는 이윤이 있는지 할머니는 여름의 땡볕아래서나 손발이 꽁꽁 어는 추운 겨울에도 늘 그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부인이 할머니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신혼의 보금자리를 차린 날이라고 합니다. 살림 정리가 끝난 부인은 남편에게 멋진 요리로 저녁 밥상을 차려주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입구에 있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남편은 아내가 말릴 사이도 없이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세장을 꺼내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콩나물을 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멋진 요리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부인은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있는 콩나물을 보는 순간 기가 막혀서, '웬 콩나물이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항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내 손을 잡으면서 "꼭 우리 외할머니 같아서"하며 씩 웃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애잔한 슬픔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은 더 이상 항의를 못하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콩나물밥을 해서 남편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콩나물을 유난히 좋아하는 남편의 식성 때문에 그날 이후로도 부인의 장바구니엔 늘 콩나물이 담기게 되었는데, 처음 얼마간은 자신도 마음의 갈등 없이 시장입구에 있는 그 할머니한테서 콩나물을 샀다고 합니다. 마치 남편의 외할머니한테서 콩나물을 사는 것 같은 친근감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남편의 외할머니는 콩나물을 키워서 들고 나와 콩나물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들딸들이 모두 말렸지만 외할머니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콩나물을 키워서 팔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게 된 외할머니는 번 돈의 전부를 아버지 없이 크는 가엾은 외손자를 위해서 썼는데, 그 덕분에 부인의 남편은 어린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용돈을 썼다고 합니다. 부인의 남편은 지금 공학박사로, 유수한 연구소의 연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성격도 그늘진 데 없이 밝아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다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그런 성격이 외할머니의 헌신적 사랑덕분이라고 하면서 외할머니에 대해 한없

부인이 할머니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신혼의 보금자리를 차린 날이라고 합니다. 살림 정리가 끝난 부인은 남편에게 멋진 요리로 저녁 밥상을 차려주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입구에 있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남편은 아내가 말릴 사이도 없이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세장을 꺼내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콩나물을 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멋진 요리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부인은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있는 콩나물을 보는 순간 기가 막혀서, '웬 콩나물이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항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내 손을 잡으면서 "꼭 우리 외할머니 같아서"하며 씩 웃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애잔한 슬픔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은 더 이상 항의를 못하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콩나물밥을 해서 남편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콩나물을 유난히 좋아하는 남편의 식성 때문에 그날 이후로도 부인의 장바구니엔 늘 콩나물이 담기게 되었는데, 처음 얼마간은 자신도 마음의 갈등 없이 시장입구에 있는 그 할머니한테서 콩나물을 샀다고 합니다. 마치 남편의 외할머니한테서 콩나물을 사는 것 같은 친근감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남편의 외할머니는 콩나물을 키워서 들고 나와 콩나물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들딸들이 모두 말렸지만 외할머니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콩나물을 키워서 팔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게 된 외할머니는 번 돈의 전부를 아버지 없이 크는 가엾은 외손자를 위해서 썼는데, 그 덕분에 부인의 남편은 어린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용돈을 썼다고 합니다. 부인의 남편은 지금 공학박사로, 유수한 연구소의 연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성격도 그늘진 데 없이 밝아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다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그런 성격이 외할머니의 헌신적 사랑덕분이라고 하면서 외할머니에 대해 한없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신문사장상)

부처님 믿는 마음이 곧 희망입니다

조미자 (충남 천안시 쌍용2동)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인과응보로서 받아들이까 내가 살 수 있는 마음이 들었고, 모든 것이 허망하고 부질없는 집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 뻔한 데도 돌아 설 줄 모르는 남편을 보고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악연도 인연인가 보다 하는 생각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매달렸던 것을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편안해지고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의 말씀처럼 내 자신이 닦아 나가야 할 부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남은 삶을 위해 필요한 수행이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남들에게 별로 베풀지 못했고, 자신의 처지를 가리기 위한 자존심은 또 대단해 남에게는 거만스러움으로 비쳐지기도 했었습니다. 잘 웃지 않고 딱딱한 얼굴 표정은 사람을 가까이 다가올 수 없게 만들고, 가끔은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내고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해 주는 일에도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실 난 속마음은 여리고 정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좋지않은 겉모습으로 살아야 했는지. 아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열등감에 파묻혀 현명하지 못하게 살았던 때문인가 봅니다. 세세생생 쌓아온 두터운 업 때문에 밝음을 보지 못하고, 더구나 자신의 마음을 닦을 줄 몰랐기에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이런 나 자신의 못난 점들을 깨달아 가며 참회해가며 기도하는 수행 생활을 정진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방황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니까 아이들의 마음도 안정이 되어 가는게 보였습니다.

다시 1년 뒤(2002년 12월)에 딸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특차로 들어갔고 아들아이는 사춘기를 잘 넘기고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 생활에서 참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을때 스님께서 이제 자신의 아픔만 보지말고 주위를 돌아보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참다운 불자가 되어 살아갈것을 권유하셨지요. 상담공부를 해 보는 것이 어떠겠냐고 제안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 자신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함부로 나서는 것이 주제넘는 일이 아닐까, 혹 다른 사람이 비웃지나 않을까 하는 좁은 소견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나를 이만큼 설 수 있게 해 주신 스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서울로 상담공부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 공부는 또한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 본부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정폭력, 성폭력, 이혼예방, 청소년 문제 등에 관한 상담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통해 내가 몰랐던 다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어느 부분은 내 이야기만 같아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공부 또한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지만 열심히 해서 부처님께 받은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가꾸어 다른 이들에게 회향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인연 맺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들을 참회하며 게을러지려는 마음을 항복받고자 자신을 추스립니다.

불교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닦아 행복해지고, 이웃이 행복해지고, 나아가 사회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종교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 지면 얼굴에 편안함이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편해집니다. 마치 향 하나를 피우면 방안 전체에 향내가 서서히 퍼져가듯 좋은 기운은 주위를 퍼져나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늘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부처님!

진정으로 하심하여 누구에게든 부처님을 대하듯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심했다는 마음조차도 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이들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했다는 마음조차도 나지않게 하옵소서. <끝>

악연도 인연, 불안한 마음 놓으니 편안

받은사랑 회향하고자 상담교육 시작



그림 · 김홍인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화 룸비니 동산의 기적 ①



수프라 붓다와 룸비니 왕비(王妃)사이에 두명의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으니, 그 첫째는 마야데비(Mayadevi)이고, 둘째는 마하파자파티(Mahapajapati)였다. 후일 부처님의 어머님이 되시는 마야데비는 마야부인(摩耶夫人)이라고 쓰이는데 Mayadevi의 devi는 현지 룸비니 말로 '여신(女神)'을 의미한다. 마야부인(摩耶夫人)의 또다른 표기는 마하마타(Mahamata)인데 이 경우엔 '위대한 어머니'라는 뜻이다.

주위 강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살아 남기 위해서는 샤카족의 단결이 절실히 중요하여 카필라바스투와 코리야족의 왕실은 서로 혼사를 통하여 결속을 다짐하고 있었다. 그 결과 코리야 족의 두 공주는 모두 카필라바스투의 숫도다나 라자에게 시집을 가, 첫째 공주인 마야데비가 순서에 따라 제일 왕비로 정비(正妃)가 되었고 동생인 마하파자파티가 제 2왕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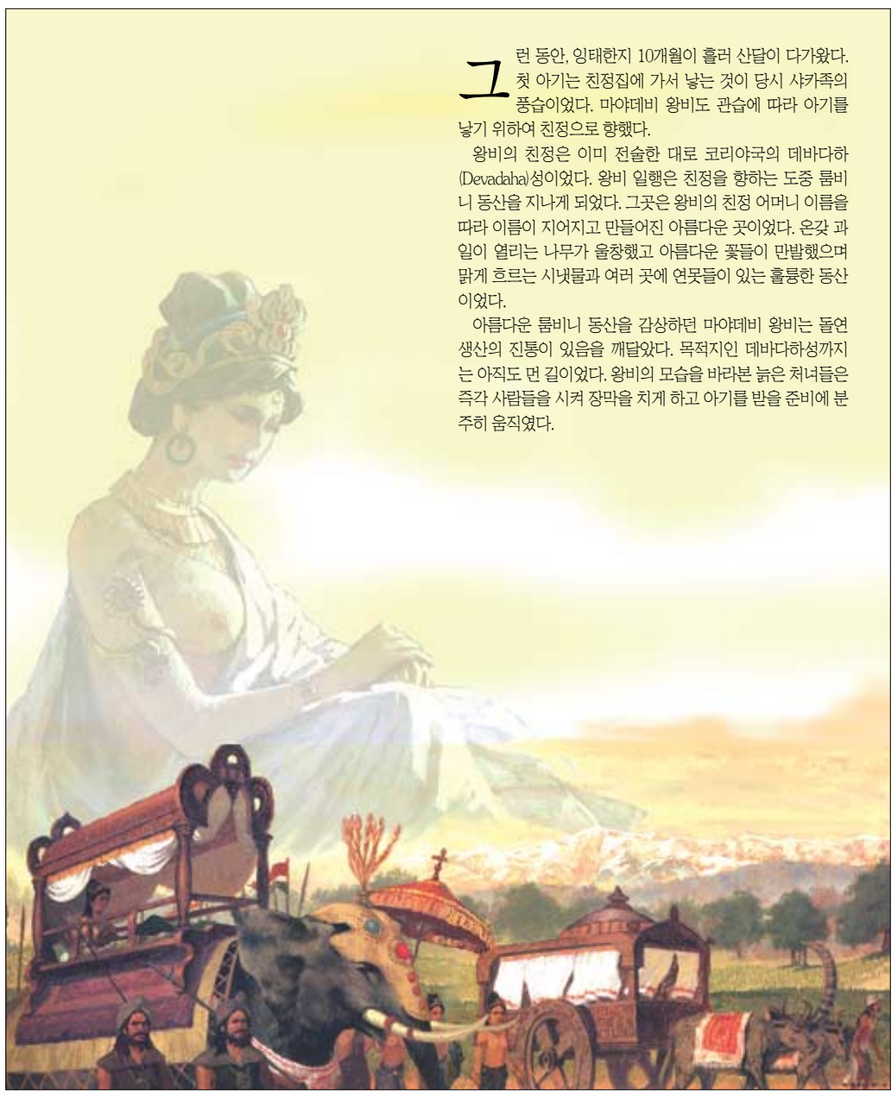
이제 나라의 질서가 잘 잡히어 모든 것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카필라바스투의 숫도다나 라자는 두명의 아름다운 왕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때는 인도의 달력으로 바이샤카 달의 보름날 밤, 숫도다나 라자는 정비(正妃)인 마야데비와 함께 달빛에 취하여 정원에 나와 즐기고 있었다. 한참 즐거움에 노닐던 왕비 마야데비는 돌연 엄습해 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동안 잠에 빠져들었다.



잠깐동안 잠에 빠진 마야데비 왕비는 돌연 저 먼 하늘 위에서 광명이 뻗치며 상서로운 구름이 하늘을 열고, 그 속에서 6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가 내려옴을 보았다. 그 흰 코끼리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잠시 마야데비 왕비의 앞에 멈추어 서며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는 이내 마야데비 왕비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상하고 신비한 꿈을 꾼 것이다. 이것이 불전에 기록된 부처님 태몽꿈 이야기이다.

그날밤, 그 신비로운 꿈을 꾼 후로 마야데비 왕비는 과연 잉태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왕비에게는 항상 불쾌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고 상쾌한 기분만이 있어 이러한 왕비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조차 즐거움 속에서 서로 정답고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고 불전은 전하고 있다.



그런 동안, 잉태한지 10개월이 흘러 산달이 다가왔다. 첫 아기는 친정집에 가서 낳는 것이 당시 샤카족의 풍습이었다. 마야데비 왕비도 관습에 따라 아기를 낳기 위하여 친정으로 향했다.

왕비의 친정은 이미 전술한 대로 코리야국의 데바다하(Devadaha)성이었다. 왕비 일행은 친정을 향하는 도중 룸비니 동산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왕비의 친정 어머니 이름을 따라 이름이 지어지고 만들어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온갖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울창했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으며 맑게 흐르는 시냇물과 여러 곳에 연못들이 있는 훌륭한 동산이었다.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을 감상하던 마야데비 왕비는 돌연 생산의 진통이 있음을 깨달았다. 목적지인 데바다하성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었다. 왕비의 모습을 바라본 늙은 처녀들은 즉각 사람들을 시켜 장막을 치게 하고 아기를 받을 준비에 분주히 움직였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존경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금택암: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몽땅 다 태워버릴 수 있어야

가장 쉽게 죽는 방법

문 저는 주인공에 팔기라는 스님의 법문에 따라 정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아(假我)가 죽어야 진아(眞我)를 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죽는 방법을 일러 주십시오.

답 지구의 지축이 흔들리지 않고 부동하게 있는 것이 사방에서 조여드는 자체로 인해서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게 하나 붙어도 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버리는 관계상 살아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의 혹성입니다. 별성이다 이겁니다. 한 사람 마음의 불덩어리가 온 우주 세계를 다 집어삼킬 수도 있는 거대한 겁니다. 그렇게 집어삼킬 수 있는 그 오묘한 마음을 가지고 만날 저울질만 하고 있으니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나와서 저울질만 하다 간다면 다음에도 저울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다고만 하지 말고 내면을 볼 수 있을 때 흘연히 천리도 눈 앞이다 이겁니다.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삼천대천세계를 집어삼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뭐 낳는 게 있어서 몽땅 다 태워버릴 건가요? 본래 태워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마음으로 쌓아 놓으니까 그런 겁니다. 무조건이지 뭐를 이렇게 달고 저렇게 달고, 그게 도대체 몇만 근이나 된다고 많입니다.

눈 뜨고 폭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눈을 감고 자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자야 시장바닥에 갖다가 팽개쳐도 우쭉우쭉 서죠. 잘된 게 못된 거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도 아니 되고, 잘된 게 못된 거를 견져 들어도 아니 되고, 잘된 게 못된 거를 일일이 계산해도 아니 되는 겁죠. 그래서 속으로는 똑똑하더라도 겉으로 둔한 척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마음공부는 둔하지 않고는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오관을 통해서 사량으로 전부 알겠든요. 머리로 다 알아버려요! 감각 지각, 보는 거 듣는 게 기계적으로 다 있는 거거든요. 거길 통해서 그냥 자기한테 오는 게 있으니 그렇게 오는 수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게 그냥 스쳐 가는데 언제 그걸 세겠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탓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봤고, 자기가 거기에 갔기 때문에 들었고,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고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 탓입니다. 못난 내 탓이에요.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은 내 탓이죠. 내 탓이라는 그 한마디의 뜻이 눈뜨고 자는 일이라, 가정에서도 언제든 일이라든가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지간 일이라든가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하게 말을 해를 뿐 아니라 그 말을 해서 상할 일이라면 하지 말고 골려서 안에다 쏘라 이겁니다.

잘된 거는 감사하게 놓고 안된 거는 다시 말겨 놓고, 공부를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도 다 놔야 돼요. 급하다는 거까지도 놔야 돼요. 그렇게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나온 자리, 내가 나오기 이전 자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전 자리를 알게 되면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육근작용 지켜보는 수행

문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스스로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근(六根)을 운용하여 짓는 결과이니 참나로 육근을 통작하는 바가 모두 고로 화하여 진정 고해가 한이 없다.' 는 가르침에 따라 육근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육근의 허망함을 관(觀)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몸통이 안의 육근 작용을 지켜보는 수행을 통해서 불법의 불가사의한 도리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하는 거를 일일이 따진다면 너무 어지러워서 방향을 어떻게 들지를 몰라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공부하는 데 몇 십 년씩 걸려도 빗장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할 것은, 바깥 경계를 여섯 가지 구멍으로, 즉 색(色)을 보는 거, 냄새를 맡는 거, 소리를 듣는 거, 맛을 아는 거, 몸의 부딪침을 아는 거, 의식으로 드는 여섯 가지를 바깥으로 내다보면, 여섯 경계가 바깥으로 한데 합쳐서 나갑니다. 여섯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육근의 이치를 따로따로 보지 마십시오. 눈이 가면 귀도 거기 속해서 가고 냄새도 거기 속해서 가고 맛도 속해서 가고 나한테 접근이 되는 상대도 동시에, 의식으로 드는 것도 동시에 듭니다.

여러 가지가 한데 합쳐서 해야지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눈 따로 귀 따로 따진다면 언제 몸통이 하나를 가지고 일심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본래 있는 거니까 눈 가는 데 귀가 가고 귀 가는 데 눈이 간다, 둘이 아니니까 마음으로부터 모두가 한마음이 된 거다 이겁니다. 내 몸에서부터 알려고 해서요. 바깥의 것을 먼저 알려고 한다면 내 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움죽거림이 바로 한마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음에 있으니 몸이 지수화풍으로 서 어니 뭉쳐진 게 없고, 지수화풍 아닌 게 없고,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으로 이어지는 연관 있는 것이 전부 나 아님이 없다는 겁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들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지혜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 를 내세우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나라는 게 없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짊어지고 나온 내 탓이지!' 이렇게 돌린다면 싸울 일도 없을 겁니다.

또한 가지는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식구들이 마음이 풍족치 못한 것도 우리가 차원이 똑같으니까, 금은금 방에 가고 넝마는 넝마대로 모이듯이 우리 식구가 차원이 같기 때문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주인공, 당신만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당신만이 우환 병고를 없앨 수 있어.' 하고 모든 거를, 낮게 해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맡기고 관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을 찾는 것도 둘로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인공을 찾았는데도 안 된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벌써 한 다리를 건너가니까 미신 짓이에요. 주인공이라고 이름만 해놨지 그것이 기복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 주인공밖에는 잘 이끌어줄 수 없다는 믿음을 항상 떠나지 않게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실험하고 거기서 체험하고, 체험함으로써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면 불가사의한 법도 거기에서 다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청정하고 청정치 않고를 나누어 분별하지 말고 모든 생각이며 의식들이 다 그 한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들어간다면 참으로 청정한 한 바다의 맛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선가귀감에서

문 『선가귀감』에 "知幻卽離 不作方便 離幻卽覺 亦無漸次"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환인 줄 알면 즉 벗어난 거요 따로 방편을 짓을 바 없고, 환을 여읜 즉 각(깨달음)이다, 또한 점차(漸次)가 없는 것이다. 견성하고 나서 그 바른 눈만 올곧이 가진다면 점차적으로 닦아 나가는 것을 부정하신 말씀으로 짐작되는데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답 일체 만물이 다 환상인 줄만 안다면, 그것은 비우면 그릇이 되니까 방편을 또 지을 게 없죠. 그리고 그릇 같은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릇을 비워서, 그릇을 비웠단 말조차도 없는데 무슨 거기다 또 말을 붙이겠소? 본래 비어 있는 자리인데, 본래 비어 있는 자리라는 말조차도 없는 건데 서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공한 줄을 알게 만들려니까 대화가 필요하고 방편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본래 전부 공한 자리라, 공한 자리다 공한 자리가 아니다 하고 애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릇도 있고 사바가 다 허체가 바로 그런 셈이니 한가지인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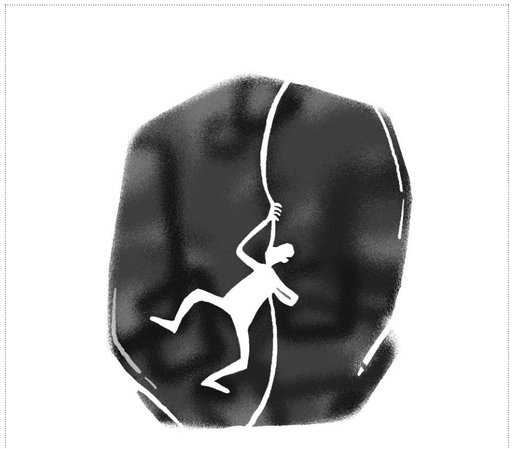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일체를 분별하지 말고
한자리에서 나고 듦을 알아야
청정한 한 바다의 맛을
다 볼 수 있어

"환상을 여의면 곧 깨친 것이다. 또한 닦아갈 것도 없다."고 한 건 거듭 말 것도 없죠. 그릇을 비워서 그릇을 비웠단 말조차도 없는데 무슨 거기다 또 말을 붙이겠소? 본래 비어 있는 자리인데, 본래 비어 있는 자리라는 말조차도 없는 건데 서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공한 줄을 알게 만들려니까 대화가 필요하고 방편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본래 전부 공한 자리라, 공한 자리다 공한 자리가 아니다 하고 애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릇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 형체가 바로 그런 셈이니 한가지인 겁니다.

이 육신이 삶아 나가는데 몇 날 며칠이나 삶 겨 갑습니까? 영화를 만드는데 어린애든 어른이든 아습아습한 데 딱 올라가고 그래도, 펄어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영화의 그림자이죠? 실제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습아습한 데서 펄어져도 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실감나게 볼 뿐이죠. 안 그럴까요?

답 지금 고생이 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수 억겁을 거쳐 오면서 얼마나 쫓고 쫓기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짐승의 몸으로 한번 태어나 보세요.

만약에 사람의 모습을 떠나서 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거나 한다면, 소의 모습으로 살았던 관습이라든가 습성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 모습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거듭거듭 소로 태어나는 겁죠. 또 돼지로 태어난다거나 뱀으로 태어난다거나 해도 그 모습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다 보면은 뱀이 사는 의식을 가지고선 수차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의식, 습이 아주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빠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깜깨 소굴에 들어가서, 나쁜 일을 해서 잡혀 들어갔다고 합시다. '인제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겠다!'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벌써 거기 지키고 있습니다. "이리 와! 할 일 있어." 안 하면은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빠질 수가 없듯이, 뱀의 소굴에 들어가거나 개구리 소굴에 들어가면 그대로 물이 들어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새끼들을 낳아놓는 것은 자기 인과에 의해서 그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숫자대로 낳은 겁죠. 숫자대로 낳았으니 그 숫자대로 낳은 그 속에 또 인과가 들어 있어 숫자대로 또 있으니 어떡합니까, 글쎄. 그게 헤아릴 수가 없죠. 습이 붙어 가지고 그 무명을 벗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천년 만에 한 번 벗을지 말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어나질 못하고 죽었다 하면은, 벌써 그 모습으로 삶아왔기 때문에 헤어나질 못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응신을 하게되죠. 그러니 그 모습에서 떠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 몸 받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사람의 몸을 받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전부 따지고 본다면 부처님들인데 부처님 아닌 게 없는데, 한생각에 그만 부처님의 도리를 상실하고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한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태산 준령을 넘을 수는 있고 뛸을 수 있을지언정 내 백지장 하나를 뚫지 못하고 넘지 못해서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거름으로 바탕을 삼아서 노예가 돼서도 아니 되고 무조건 남이 하니깐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나의 마음을 따르고 공존하고 있는 한마음의 주인공을 믿으세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것이 들이 아닌 까닭에 주인공이라고 했겨늘 어찌 주인공을 떠나서 자기를 떠나서 부처님 법을 익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인간 몸에서 벗어나야 인간을 굴리죠, 자기를 굴리죠. 그 많은 중생들이 자기 몸 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 많은 의식들을 다 한마음으로 몰고 가려면 그래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쯤은 그 속에다 넣을 줄 알아야 되죠. 하인을 부려도 똑똑히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라면, 여러분이 부처라면 바로 부처는 한생각을 내서 법신으로서, 보살로서 중생들을 보살로 만들려면 한마음으로 굴리고 리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화해서, 즉 말하자면 입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보살이 돼서 수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될 구녀을 드나들면서 삼십이응신으로서 반아들일 수 있고, 누가 어떠한 말을 해도 그냥 한 찰나에 드신다고 그랬습니다.

일체가 여러분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체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있는 중생들을 판 나무로 보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미생물에서부터 올라온 그 과정을 모르거든 측을 들여다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데서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 30면으로 계속

☞ 29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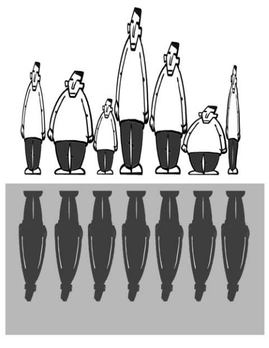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한마음으로 굴리고 리드해야

그러니 큰 거부터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나부터 알면은 모든 물리가 터지게끔 돼있습니다.

화를 많이 내는데…

문 저는 평소 화가 많은 편입니다. 스님의 말씀 따라 모든 화가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문제는 내가 기술을 배워서 기계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데, 그 기계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고 또 의정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무표정하게 무심으로, 누가 들으면 그냥 "어, 그 기계는…." 하고 무심코 말이 나옵니다. 본래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 기계는 어디에 나사를 좀 조여 놔." 이렇게 그냥 무심코 일러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고는 일러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중생이고 알면 부처라는 말과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은 흰합니다. 흰하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생각하면서 알 양으로 의정을 냄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지껏 해 나오신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그냥 무심코 쑥쑥 말해 줄 수 있는 그 성품 입입니다. 고게 바로 본래면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알지도 못하고, 가령도 못하는 사람들이 체험을 해서 말씀해 놓으신 걸 가지고 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엇갈릴 수밖에요. 그렇게 응용을 하고 있으니까, 체험을 못 해 본 사람이 남의 말을 가지고 응용을 하다 보니까, 체험을 안 해 봤으니까 "이러이러하다더라,"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다" 하고 자기 걸로 그냥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체험을 못해 봤으니까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만 했을 뿐이지.

만약에 내가 남의 소리를 듣고서 "몰랐노 버리고 이렇게 해라." 이런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의 힘이기 때문에, 말의 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경험해 보지 않고 절대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으로 수행은 할 수 있을지언정 마음을 깨닫게 할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람만이 부처 되는지…

문 항상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을 갸다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모든 생물들은 불성이 있어 그것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지요? 모두가 부처인데 왜 인간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인간이 되어야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지요?

그러니 몰랐을 때 내 모습으로만 본다면, 지금 내가 배우고 가는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자식들도 내 기준으로 보지 때문에 탈이 나는 겁니다.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한마음이 된다면 폐단이 올 일이 없습니다.

화를 많이 내는데…

제각기 모습이 다르고 차원도 다르지만 모든 그 마음들은 본래부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부터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물질에 끄달리고 먹고사는데 끄달리고 애착에 끄달리고 육심에 끄달리다 보니깐 잘못된 거지 애초부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 부처님도 자기가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골려왔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두가 알은 것도 높고 높은 것도 높고 뭉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도 보고 상대를 통해 일어나는 마음 양면 가운데,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놓을 줄 알아야한이 참선이 될 수가 있다. 즉 말하자면 알아서 화선하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고 쉽 사이 옮아가는데, 아버지가 뭤을 때 아버지라고만 고집하면은 아들 노릇은 어떻게 하며 친구 노릇은 어떻게 하며 남편 노릇은 어떻게 하느냐 이 소립니다.

그와 같이 천차만별로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거를, 그냥 획 놨을 때에 일하면서도 편안하고 가도 편안하고 앉았어도 편안하고 똥을 눠도 편안하고 이래야 화선이자 참선이 되는 겁니다. 생활에서 오는 고통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그 고통이 어디서 온 거를 안다면…. 뜨거운 것을 알아야 시원한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온 거를 안다면 대치를 시원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걸 모르니까 허우적거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만 행한다면 스스로서 성내는 마음이 없어지고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내 마음 자체가 스스로서 돌아가니까 남들한테 한마디를 하더라도 선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가라앉지만 만약에 한생각을 선하게 안 냈다면, 그냥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말도 잘못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불특불쓰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 상해 보세요. 속을 끌이면

이론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언정 마음을 깨닫게 할 수는 없어

얼굴이 찌푸려지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언제나 싱긋이 웃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스마일이지요, 스마일! 부처님의 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관이 다 스무드하게 웃고 있으면 마음도 해랄갛게 웃기 때문에 게죽에서도 웃음이 나오는 거지 속에서 웃지 않는데 어떻게 거죽으로 웃음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에서 썩은 거는 바깥으로도 악취가 나지만 속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 선하게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법이 주어지는 거죠.

아무리 아래 부하직원이라 할지라도 서로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도록 해야지 말로 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죠. 화를 자주 내는 건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거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더 좋지 않다는 걸 알아야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화를 내지 말고 한생각을 선하게 내어서 모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심약멸시죄역망에 대해

문 『천수경』에 "罪無自性從心起 心若滅是罪亦亡"이란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약멸시죄역망"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가 마음에서 일어나 이미 물리적인 결과로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 누구를 다치게 했거나 물건을 훔쳤을 때 마음만 청정해진다고 죄의 결과가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 이것은 그냥 말로 알아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체 만법이 다 나한테 부딪치고 돌아가는데 내가 공한 걸 안다면, 부처님께서 이날까지 말씀해 놓으신, 내가 공한 줄 알아서 마음이 청정하면 죄 또한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공했는데 무슨 업보가 거기 붙겠느냐는 겁죠. 저 사람도 공했고 나도 공해서 내가 한 행위도 공한 줄을 안다면 무슨 업보가 거기 붙고 인과가 붙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전생이라는 걸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왜? 전생에 삶던 습성을 내가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고 불성이라는 건 전생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구태여 왜 그거를 업보다 인과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슨 조상의 탓을 하질 않나. 또 부모가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고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는데 참나! 그런 거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낳기 이전도 조상이고 부모가 낳기 이전도 조상인데 그 조상이 들인가요? 부처 낳기 이전도 조상인데…. 그런데도 조상 탓을 한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애 아버지가 뱀을 자꾸 잡아먹는데 어떡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개 한 마리도 잡아먹으면 업보가 된다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길래 그 말끔에 그 랬어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먹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스님, 그렇다면 정말 업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더러 묻지 말아. 들이 아닌 도리만 알면 돼. 그리고 남편을 원망하지 말아. 남편이 그거 잡아먹었다고 우리 집안은 업보에 휘감겨서 못 산다." 고도 생각지 말고 살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남편이 몸이 좀 시원치 않아서 그런거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들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 마음이 들이 아닌 까닭이에요. 그 도리를 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 안 있어서 다시 와서 뭐라고 그러나 하면 "인제 시원합니다. 애 아버지가 글쎄 그걸 안 먹겠대요." 이러거든요. 아무리 잡아먹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원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봐, 자연히 안 먹어져야지, 업보가 된다고 그걸 억지로 그러면 벗겨질 수가 없어." 그러니 엄마나 그게 간편하고 좋아요?

그러니 업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업보가 되는 거고, 또 살생이라 한다면 한없이 인과가 되는 거고, 또 살생이라 한다면 한없이 살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는 거를 가만히 보라고요. 모든 것이 살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보를 안 지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업보라고 이름지어 가지고 왜 업보를 받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업보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라서 그러는 거지, 업보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수행 과정이죠.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업보가 되지만 그 도리를 알고 자기로 보는 사람에게는 업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잘 되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자기에게 불어닥치는 일들이 모든 게 수행할 수 있는 재료이니까 그걸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난데 저 사람 죽으면 어쩌나?" 이러지도 않고,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쩌나?" 이러지도 않아요. 또 내가 오래 살아야지, 저 사람이 오래 살아야 한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내가 그럴 거 같으면 이 세상에 아마 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모습인데 모습이 허망하고 흘모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과정을 거쳤고 그만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 부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볼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모습을 안 가지고 나왔고 허망한 거라면 그건 말도 안 돼요.

이런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단 하나, 그저 남들한테 가볍게 해주고 인의들게 해주고, 또 죄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죄 없는 마음을 넣어주자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한데 펼어드리지 않게 심부름을 잘 해야겠다, 그러면 부처님과 나와 들이겠는가? 그 뜻이 바로 내가 허망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몸도 나툼이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나툼인 것이죠. 어디 나툼 아닌 게 있나요? 벌레 하나도 난 버리고 싶지 않아요. 왜? 부처님의 나툼이니까 말입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부처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아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사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출시

이 책은 비쌉니다! 그러나, 내용은 몇배 더 비쌉니다!

한문을 몰라도, 출생 년월 일시를 몰라도, 만세력을 펼치지 않아도, 오행공부를 하지 못했어도, 찾아(전화)온 시간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 귀신 침범을 정확히 잡아 낼수 있고 그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이 귀신을 밝히면 그 집안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 받게 됩니다)
- 병자(病者)가 지금 어떤 귀신의 침해로 병들었나를 잘 밝히게 됩니다. 해소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그 귀신만 시식하면 병이 낫게 됩니다)
- 천도 시식 굿의 효과를 미리 알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활인 능력이 단박에 높아지고 살림이 편안해 집니다. 이점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 산소탈을 잘 밝혀 내게 됩니다. 그 해소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누구의 산소 인가를 알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정 빌미 사승을 밝히게 됩니다. 그 처방이 써져 있습니다. (집안 누구에게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될 뿐 아니라 해소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 책은 살림을 넉넉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효사 육임「인터넷 강의」시작안내

인사(人事)에 있어 제일 으뜸되는 육임비술을 집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 공부 할 수 있습니다.

강의비용	1,500,000원
교 재	효사육임강의록 드림
수강방법	100~120분씩 28회 각회 5번 6개월 수강
질의응답	FAX 02-908-8683 또는 E-mail
특 전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정회원 영입
강의일시	2003년 1월 3일부터
1차접수	2002년 12월 28일 까지
등록방법	입금 후 ID 교부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우리 활인 천역자 자신에 대한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값 : 2,500,000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 전 12권 (부록 · 비디오 포함)
우단금박표지, 적색모조지, 8절크기, 매일 차트식 바인더

주문 안내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문의전화 : 02-993-8680 · 02-996-3335 부산지사 : 051-851-2349

육임래정비법 CD 발간 안내

시간만 툭 치면 온(전화) 사람의 모든 사정이 아래와 같이 환히 미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 먼저 하실 말 (초사 : 정확하고 예리 합니다.)
- 온 사정(무엇때문에 왔는가)
- 그 사람의 정황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 병재(病災) 귀신 침범 여부
- 작사(作事) 귀신 침범 여부
- 산소탈 여부(누구의 묘소인가)
- 사승(邪崇)여부
- 제압법(각종 수법 적시)
- 일어난 일, 일어날 일 여부
- 옛 일인지, 근래사인지, 반복사 인지 여부
- 자기가 일으킨 일, 타인으로 부터 당한 일 여부
- 천성의 선 악 여부
- 모든 일의 되고 안되고 여부
- 부지인지 가난지인지 여부
- 가정사 당면 문제 여부
- 가상의 길흉 여부(이사, 길방, 길일 적시함)
- 응기(언제 일이 될 것인가)
- 결국 언사(言辭)

묻는 것은 아래와 같이 즉시 답변해 주게 됩니다.

모망사	출행사	임신사	투자사
공명사	도난사	가정사	승부사
구재사	가출사	이사사	가격사
구직사	대인사	소송사	경작사
시험사	상면사	질병사	묘지사
결혼사	채용사	매매사	기후사

발매 특전 값 2,000,000만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
우리은행 : 813-088426-02-001 김나형

불교 이래서 좋다

이현수 간호사



불교와 인연을 처음 맺은 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다. 어머니는 매주 일요일 아침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 집 근처 포교원 어린이법회에 보냈다. 나는 중등부, 고등부를 거치며 꾸준히

생활 일부분, 인생의 나침반

신행생활을 했다.

초중고 12년을 한결같이 매주 법회에 나갔고 사찰 수련회, 성지순례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녀서 절에 가면 일주문에서부터 반배를 하고 대웅전의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래서 일까? 누가 나에게 불교가 왜 좋으냐고 묻는다면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냥 한번 웃고 만다. 불교는 내 생활의 일부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요즘 절에 자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내가 게을러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때마다 나는 항상 '평상심시도'라는 남전스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되뇌인다. 도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속에 가지는 마음 바로 그것이라는 것. 일상 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넓게 보면 불자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불교가 아닐까 싶다.

내가 생각하기에 일년 가운데 가장 빨리 지나가는 달은 1월이다. 어제가 새해라고 새롭게 마음을 다진 것 같았는데 벌써 마음은 나약해졌고 1월도 하순에 이르렀다. 되돌아보면 불심도 이와 같다. 처음 발심했을 때의 그 진지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느슨해진 나의 마음만이 존재한다. 올해는 초발심이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세기며 살아야겠다.

2003 '세계 물의 해'

물 절약, 작은 실천에서

유엔이 올해를 '물의 해'로 선포한 이유는 인구증가와 물 사용량의 증가, 수질오염 등으로 지구 전체가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엔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도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 가운데 하나다.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3배나 되지만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아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2.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물 살림 홈페이지 제작, 어린이 표어 · 글짓

생활속 시민 참여 필요
자연보호 정신도 가져야

기 공모전, 물 종합 박람회 등을 열어 물의 소중함과 절약을 알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모두의 실천이 필수적이다. 샤워는 짧게, 양치질할 때는 반드시 물을 컵에 받아쓰는 등 아주 작은 일들이 쌓여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門 닫히지 않는 '우리만의 방'에서 만나자"

인천 불교청소년회관 23일 오픈

국내 최초 성매수 청소년쉼터 설치
명상 교육, 아름다운 가게 등 운영

주택지구인 인천 가좌동 가장자리에 위치한 법명사 부루나포교원의 도로변 3층 건물. 겉보기에는 여느 상가 건물과 비슷하지만 이곳은 인근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도량이다. 생활영어, 공예 등을 배울 수 있는 청소년 지역문화센터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청소년 법당, 청소년들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청소년 가게, 성매수대상 청소년 전문 쉼터, 각 학교 청소년 시민참여단 동아리 지원과 정부당국의 청소년 예산 사업을 평가하고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청소년인권정책개발원 등이 있는 불교청소년회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루나청소년 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성매수대상 청소년 그룹홈으로 입소 청소년들에게 명상을 응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자아존중감을 키워주고 자립체험 및 생산성 창출을 위한 각종 공예 현장 실습을 통해 경제관을 심어줄 계획이어서 주위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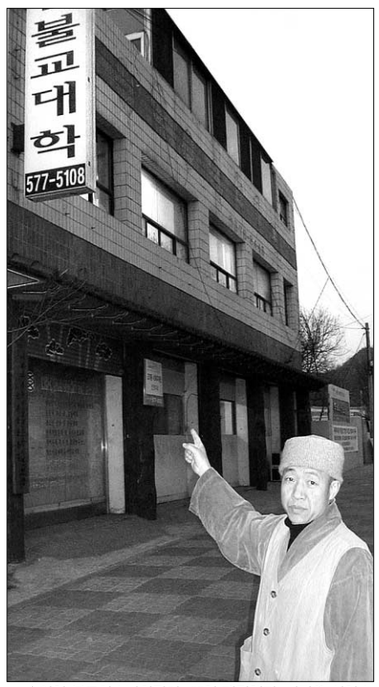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지난 23일 법명사 부루나포교원의 도움으로 200여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인천불교청소년회관을 개관했다.

불교 열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천에 불교청소년회관이 들어서게 된 것은 법명사 주지이자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장인 선일 스님의 원력 때문. 평소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선일 스님은 국무총리실 산하 청보년보호위원회 가출분과 위원으로 오래동안 활동해오면서 성매수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동안 가출 청소년 쉼터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스님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성문화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경 복지사와 함께 이번에 성매수 대상 청소년을 위한 부루나청소년 쉼터와 인천불교청소년 회관을 개관하게 됐다.

인천불교청소년회관은 사찰 및 불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큰 특징. 국비를 지원받는 청소년 시설은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청소년 법당을 설치하고 자아존중심을 고취할 수 있는 참선을 응용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포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인천불교청소년회관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국비지원없이 자체 운영하게 됐다.

선일 스님은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계층이며 동시에 불교의 미래이기도 하다"며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청소년 포교에 종단과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의(032)573-1318 후원계좌 국민은행 903801-01-034694 예금주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인천 불교청소년회관이 23일 개관했다. 사진은 선일스님이 회관 건물을 소개하는 모습.

파라미타 예산 3억6천만원 확정
22일 이사회, 원택스님 새회장



◇파라미타는 올해 조직 재정비와 함께 국제 캠프 내실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진은 22일 열린 이사회.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도영)는 22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전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을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총 9명의 이사 가운데 위임장을 제출한 스님을 포함해 도영, 원택, 지현, 혜자, 동광, 일철, 원혜, 지홍 스님 등 8명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3년도 사업계획과 3억 6천만원의 예산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003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파라미타는 올해 문화재 애호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활동 강화, 조직사업의 강화, 캠프의 내실화, 정부지원

캠프 내실화 등 5개 사업 정해
청소년 포교 매진 할 방침

청소년 사업 수탁 강화 등 5가지를 중점사업 목표로 정하고 청소년 포교에 매진할 방침이다.

신임 회장 원택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터뷰 3면)

김두식 기자

원종복지관, 청소년 기자학교 열어
기사쓰기 · 편집실무 교육 등 다양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갑표)은 22~23일 1박 2일간 경기도 양평 중미산 자연 휴양림에서 '2003년 청소년 기자학교(캠프)'를 개최했다.

올해가 3회째인 청소년 기자학교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행하는 부천청소년신문 '터'를 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기획된 것. 부천청소년신문 '터'는 지역내 중고등학생 기자들이 편집, 현장 취재 등 신문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만들고 있는 순수 청소년 신문이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기자학교는 기사쓰기, 취재방법론 및 편집 실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터' 청소년 기자인 지민혁(부안고 1년)은 "그동안 청소년 기자들과 함께 직접 신문을 만들면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보람을 느꼈다"며 "특히 이번 청소년 기자학교에서 신문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시 배움으로 해서 보다 질 높은 청소년 신문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신문 '터'는 신문제작 및 청소년 기자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제 4기 청소년 신문 기자를 공개모집한다.

김두식 기자

명작 비디오 파일 — 빅

1998년 개봉된 패니 마샬 감독, 톰 행크스 주연 영화 '빅'.

13살의 조쉬는 놀이공원에 갔다가 키가 작아 놀이기구도 못타고 놀림을 받는다. '졸타'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를 발견한 조쉬는 빨리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

다음날 30세의 어른으로 변한 조쉬를 본 엄마는 괴한취급을 하며 쫓아낸다. 집에서 쫓겨난 조쉬는 맥밀런 완구회사의 전산과 말단 직원으로 취직. 어린이의 시각에서 어린이가 원하는 장난감의 아이템을 기획해냄으로서 승진을 거듭하게 된다.

완구회사의 간부 수잔은 그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자 호감을 갖고 마침내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한다. 그러나 조쉬는 점점 어린 시절과 집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는데….

조쉬의 어른의 육체와 어린아이의 정신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는 비목다라 선인을 만나 찰나의 순간 수백생의 인생을 산다. 원래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선재동자는 수백생의 인생을 살기 전의 선재동자가 아니다. 조쉬 역시 어른이 되기 전에 동경했던 세계를 잠시 경험해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아닐까.

강지연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의사, 상담가, 기공수련가 (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수시접수

"단 한번 '명상 최면'으로 어린이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해결"

2002년 12월 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국제신문 12월 21일자 29면
부산일보 12월 21일자 30면
동아일보 12월 23일자 A29면 보도〉을 해결하는데 '명상최면'을 통하여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목격자가 최면상태에서 한번도 보지 않은 범인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렸다는데 있다. 최면상태에서 피술자는 범인의 양쪽귀(耳)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얼굴의 흉터와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것까지 또렷이 떠올렸다. 이런 초월적 현상은 일반 최면과 다른 명상최면으로 가능한 일이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불교문화상품 전문 사이버 몰 마하몰(www.mahamall.co.kr)

설날맞이 大 특전 상품전

※ 1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원적외선 찜질팩(10매)을 드립니다.
● 기간 : 2003. 1. 20 ~ 2. 10 (20일간)



www.mahamall.co.kr

불교용품 展

디지털불경 룸비니	35,000
연옥합장주	7,000
교리기도염주	35,000
오분향(목욕용)	20,000
무공해식물성양초(12개입)	48,000
뿌리죽비(大)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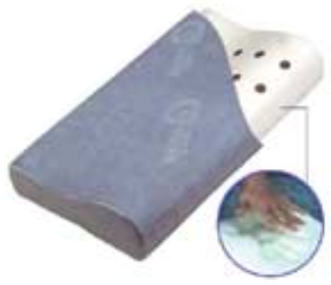
공예문화 展

희담석다기세트	80,000
미륵반가사유상(회향목)	300,000
용무늬 풍경세트	30,000
백자달마쌀독 20kg	68,000
청자5인다기	40,000
월드컵 소종	192,500

마하몰 노마진상품

www.mahamall.co.kr

(30개 한정판매)



37℃氣베개

색상 : 아이보리
사이즈 : 47cm x 29cm x 8cm
~~정상가 : 69,000원~~
할인가 : 39,800원

기베개 – 목주름 예방에 효과적이며 원적외선 방사체인 기암석(LIFE SOUL)을 부착하여 숙면을 유도하여 피로를 해소시켜 드립니다.



숯참선명상방석

사이즈 : 39cm x 43cm
~~정상가 : 35,000원~~
할인가 : 25,000원

특 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현상공덕향 세트

~~정상가 : 15,000원~~
할인가 : 10,000원

국내최초로 개발.
"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추천!! 효도상품 하이라이트

희담석 찜질팩
3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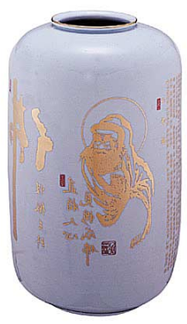
참숯베개
35,000



건강지압봉
16,000



천수경순금 사리백자
230,000



보원향선물세트
60,000



금자석 연옥합장주
150,000



건강향기방석
77,000



연꽃불자시계
99,000



숯 목걸이
19,800



무심정식
105,000



삼보죽염세트 105,000



서울부황 98,000



팬시용품 展

전통창호 차걸이등 세트	18,000
전통창호 열쇠고리 세트	10,000
연꽃연밥차걸이세트	7,000
링목탁 핸드폰 걸이	4,000
연꽃앞치마	5,000
보리수잎 성불인사장	3,500

생활건강 展

대나무수액시트(사은품증정)	90,000
불자용 행운넥타이	38,000
패철(大)-풍수지리기구	200,000
미농6종 혼합세트	47,700
불성차(우전)	90,000
희담석 방석	198,000

음반(CD) 展

불교방송가릉빈가합창단CD	15,000
영산(송암큰스님 유작CD)	70,000
대부모은중경(영인스님비디오)	20,000
관세음보살보문품(영인스님 비디오)	20,000
산사의명상음악 1~6	각 10,000
국악명상음악 1, 2	각 10,000
영검을하루같이-정율스님찬불가모음	10,000
새벽종송(상진스님CD)	10,000
범패와작법무(일초스님)	12,000
선의세계 1~4	각 10,000



10~20% OFF

옛부터 전해내려오던
전통적인 염색법에 의한
한방제품이 한자리에..

※ 주문시 종류 및 사이즈를 말씀해 주세요.



한방폴로티 25,000
한방면티 19,000
한방팬티(남성용) 11,000
천연염색이불 150,000
아로마 약초 베개 39,000
천연염색손수건 15,000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주문 전화 : 02)732-1520 무통장 입금계좌 : 국민은행(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